

현대불교



☎ 구독신청 02)2004-8212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서기 2008년) 4월 30일(음력 3월 25일) 수요일 (주간) 제677 호

"부처님 법대로 사는 것이 봉축"

조계종, 유교법회·경허 만공 사상 조명 등 승풍 진작 큰 행보

"부처님 법대로 사는 것이 참된 봉축이자 불교 중흥의 당간지주를 세우는 길이다."

조계종이 총무원장 지관스님 취임(2005년 10월 31일) 이후 줄곧 추진해온 '수행승가의 중흥'이란 최우선 과제를 이어가기 위해 봉축기간에도 다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계종은 4월 22일, 조계종 승풍진작의 결정적인 계기였던 '1941년 유교(遺敎)법회'를 67년만에 처음 조명한데 이어, 5월 10일부터 전국 사찰에서 결계(結界)신고와 포살(布薩)법회를 일제히 시행하기로 했다. 또 덕숭총림 수덕사와 교육원 불학연구소는 4월 25일 '근대 한국불교의 중흥조인 경허 · 만공의 선풍과 법맥'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를 열어 수행종풍 진작을 거듭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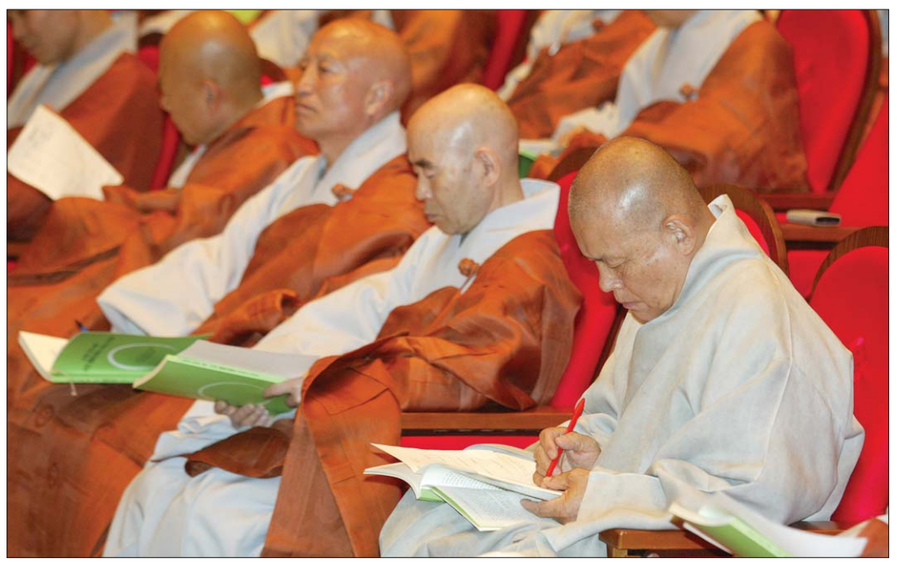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린 유교법회 연찬회에서 지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유교법회는 1946년 가야총림, 1947년 봉암사 수행결사, 1954년 전국비구승대표자회의로 이어진 조계종단 중흥의 토대"라면서 "선배 큰스님들의 홍대한 발심과 대중승가를 위한 크나 큰 사랑과 실천을 본받아 수행종가의 전통을 여법히 계승하자"고 당부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는 "선학원 창립, 선우공제회 결사, 유교법회의 개최 등은 조계종 교단정화로 이어지는 기초가 되었다"면서 "해방이후 '부처님 법대로 살자'고 당간 기치를 높이든 봉암사결사대법회로 이어 온 대발심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이어 벽송사 선원장 월암 스님은 "유교법회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선양할 것이며 중생에게 회향할 것인지 심각하게 자문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암 스님은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증득해 중생을 구제하는 '불조혜명의 계승', △ 계율과 선을 함께 닦는 계선일치(戒禪一致)와 선율겸수(禪律兼修)의 종풍 선양, △ 부처님 유훈대로 살기 위한 <불유교경>의 봉행, △ '견성성불(見性成佛) 요익중생(饒益衆生)'이란 조계종지(曹溪宗旨)의 선양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안했다.

1941년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안국동 선학원에서 거행된 유교법회는 일제강점기 비구스님들이 한국불교의 전통회복과 수행 본분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였다. 위기에 처한 불교의 현실을 직시하고 수행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만공, 한영, 상월, 영명, 채응, 청담, 운허, 동산 스님 등 40여 명의 스님들이 모여 법회를 연 것이 계기가 되었다. 법회 참석자들은 당시 식민지 불교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율장 정신과 수행자의 청정성, 경건성, 위의 회복을 대안으로 삼았다. 때문에 부처님의 유훈(유교경)과 율장(범망경), 선(만공스님의 선법문)을 강조하는 법회 일정을 진행했던 것이다.

청정 수행 가풍의 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25일, 같은 곳에서 열린 '경허 · 만공 선풍과 법맥' 학술세미나에서도 이어졌다.



4월 22일 열린 '유교법회를 조명하는 연찬회'에서 꼼꼼히 메모하며 경청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사진=박재완 기자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설정 스님(덕숭총림 수좌)은 "경허 · 만공 스님은 한말의 격동기 속에서 한국불교의 수행풍토를 일신하고 간화선 중흥의 초석을 다진 대선지식"이라면서, "두 분 선사를 재조명해 오늘날 한국불교의 선풍(禪風)을 진작시키자"고 말했다.

오경후 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허 · 만공의 법맥과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이란 논문에서 "경허 스님은 선(禪)이 한국불교사와 모든 불화의 근본임을 확신하고, 쇠락한 선원을 창설하고, (1899년 해인사 정혜결사를 필두로) 수선결사(修禪結社)를 조직했다. 제자인 만공 스님은 선원체계를 확립한 선승이자 한국불교의 전통성을 수호하기 위해 선학원 운동의 선봉에 선 개혁승이었다. 1931년 당시 지방 선원은 5개에 불과했지만 만공 스님 주도의 지방선원 확충으로 1935년에는 368명의 수좌들이 정진할 만큼 수행풍토가 크게 확장되었다"고 밝혔다.

1947년 봉암사 결사에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던 '유교법회'와 근현대 선종의 중흥조이자 부흥자로 평가받는 경허 · 만공의 선풍을 재조명한 것은 조계종이 역점을 두고 있는 '종단 수행종풍 진작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신정아 사건'과 교구본사 주지 선출 때 불거진 잡음에 이어 최근 MBC '뉴스후'의 사찰 비리 보도로 실추된 종단의 기강을 바로 잡고, 수행과 포교라는 본분사를 강조하기 위한 법회로 평가된다. 조계종이 4월 25일, 올해 하안거 때부터 소속 1만 6,000여 스님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신고하는 결계와 참회 법회인 포살을 전격 시행키로 한 것도 이러한 종풍 쇄신의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가에 '크게 한 번 죽어야 되살아난다'는 사중득활(死中得活)이라는 말이 있듯이, 불교계 전체가 번뇌 · 망념을 텅 비우고 날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을 수 있을 지, 사부대중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법정 스님 봄 정기법문

"한반도 대운하는 국토에 대한 모욕"

"현재 은밀히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이 땅의 무수한 생명체를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신성한 존재인 우리 국토에 대한 무례이고 모욕입니다."

4월 20일 서울 성북동 길상사(주지 덕조)에서 불교계 원로 법정 스님이 오랜만에 봄 정기법문 자리에 나섰다. 2000여명의 사부대중 앞에서 스님은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 법문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맹비난했다.

또한 스님은 지병인 천식으로 투병하면서 느낀 것들을 법회 중 풀어놓기도 했다. 스님은 "아프고 나니까 새삼스레 나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면서 "하루라도 열린 마음으로 살면서, 사는 게 즐겁고 기쁘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날 법정 스님의 법문 요약.

"우리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 같지만 이는 하나의 기적이고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처럼 존귀한 것은 또 없습니다. 생명은 개체로 보면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겉모습은 다를지라도 수많은 생명이 서로 어울려 생명의 연결고리인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생태계가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방방곡곡 어느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국토가 피를 흘리면서 신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은밀히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이 땅의 무수한 생명체를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우리 국토는 어떤 정치권력을 가지고 허물고 파괴할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국토는 오랜 역사 속에서 조상대대로 이어 내려온 우리의 영혼이고 살이고 뼈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물려줄 신성한 땅입니다. 이런 땅에 대운하를 만들겠다는 생각자체가 우리 국토에 대한 무례이고 모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한반도 대운하는 물류와 관광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삼면이 바다이고 고속도로 · 고속철도가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 미루어 그것은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강물은 이리굽이 저리굽이 자연스럽게 흘러야 합니다. 그것을 직선으로 만들고 깊은 웅덩이를 파서 흐르지 못하도록 채워놓고 제방을 쌓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강이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범람을 일으켜 홍수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 뻔합니다.

(정부가) 개발 욕구에 불을 붙여 공론화시킴으로써 이 사업을 해나가겠다는 것은 지극히 부도덕한 일입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기간, 이 사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민들을 속여 근소한 표차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도 국민을 기만하는 비열한 처사입니다.

운하를 이용해 관광을 내세우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있는 것은 운하가 없어서가 아니라 불친절과 높은 물가, 언어소통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왕에 있는 관광자원도 활용 못하면서 또 운하를 만들어 관광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일찍이 없었던 이런 무모한 국책사업이 이 땅에서 이뤄진다면 이는 커다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무모한 일들이 자행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다면 우리는 이 국토에 대해 씻을 수 없는 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2면에 계속〉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 · 형사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김택선 변호사)

순천 선암사 동종 보물 지정

문화재청,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등 4건 대상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4월 23일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순천 선암사 순치 14년명 동종' '영주 부석사 오불회 괘불탱' 등 4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보물 제1559호 지정된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은 모두 7권 7첩으로 구성됐다. 고려 충숙왕 복위 5년(1336)에 종이에 은니로 사경한 것으로 사경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보물 제1560호 '도성도'는 어람용으로 추정되는 회화식 지도며, 보물 제1561호 '순천 선암사 순치 14년명 동종'은 조선시대 대표적 주종장인 김용암이 1657년 주성한 것이다. 보물 제1562호 '부석사 오불회 괘불탱'은 부석사에 전래되던 1684년작 괘불 도상을 기본으로 노사나불을 첨가해 1745년 조성된 작품.

한편 조선전기 출판인쇄와 왕실 관련 불교사 연구에 중요자료로 평가되는 <지장보살본원경>과 15세기 국어학 및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여수 흥국사 목조지장보살'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이순신 선무공신교서' 등 5건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됐다.

조동섭 기자



"마음 활짝 열고 살아가세요"



〈1면에서 계속〉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런 무모한 계획은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가신 조상들과 미래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현재의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한반도 대운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상황임을 여러분, 깊이깊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앓고 나서 느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고 나니 새삼스레 나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하루라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항상 열려야 해요. 세상 사는데 가장 문제 많은 것이 인간관계 아닙니까. 가족, 친구, 직장…. 늘 거기가 문제에요. 내 마음을 항상 열 수 있어야 하는데, 마음이 쉽게 안 열려요.

이 세상을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제대로 써야 마음이 열려요. 순간 순간 하루하루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산다면 분명 모든 것이 잘 받아들여집니다. 어려운 일을 피하려 마세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도 앓으면서 '좋다, 이 과정에서 내가 수행자로 보다 성숙해지리라' 생각하면서 투병하니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달마 스님 이야기에서도 나오잖아요, '마음, 마음이여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받아들이다가도 그 마음이 한 번 비틀리고 억눌리면 바늘 하나도 꽂을 자리 없구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본마음이고, 비틀린 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빨리 풀어야죠. 옹졸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내가 빨리 가서 비워야 해요.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마음 훈련을 해야 합니다. 참선하고 독경하고 염불하는 것은 내가내 마음을 바르게 갖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인생이 곧 학교에요. 이 순간순간을 제정신 차리고 활짝 열린 마음으로 잘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열린 마음으로 살아 사는 게 즐겁고 기뻐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김강진 기자

바로 잡습니다

본지 676호 17면 '선지식을 찾아서' 자광 스님 기사에 실린 오도송은 자광 스님의 시이며 오도송은 별도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광 오도송'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았네(覺). 마음 마음 마음이여
모양도 색깔도 부피도 무게도 없는 마음
한계가 없으니 우주를 싸고 남았고
가고 옴이 없으니 항상 존재하고
무게가 없으니 우주가 짊어졌고
성내고 기뻐함이 없으니 항상 평화롭고
색깔이 없으니 각양각색을 통합하였네
마음에서 허공이 나왔고 시간과 공간이 나왔고
중생과 부처가 나왔고 천당과 지옥이 나왔으니
과연 삼라만상을 창조하였도다.
항상 나와 함께 하는 진법계(眞法界)의 실상이여
만상이 들락거리는구나.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이글거리는 불꽃 속 청정기운 선연"

원담스님을 추모하며

3월 18일 원적에 든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원담 스님의 49재가 5월 4일 수덕사에서 봉행된다. 49재를 앞두고 수덕사 유나 우송 스님이 원담 스님을 추모하며 쓴 글을 싣는다.

방장스님은 임종이 눈앞에 왔는데도 놀라고 황망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고 차분했으며, 안타까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스님은 병고 중에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모두 만나주셨다. 아픈 것도 드러내 놓고 아프셨다. '오늘 내일' 하는 급한 중에도 말이 없으실 뿐, 표정은 언제나 따뜻했다. 미련이 느껴지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방장스님은 시자가 하자는 대로 다 맡겨버리고 이래도 저래도 도무지 본인의 의지가 없었다. 스님의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신이 저리도 초롱초롱 하신대 웃고 장난하고 하실 것은 다 하시면서 왜 호령을 안 하실까, 왜 본인의 의지를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죽어도 살아도 상관이 없고, 살고 죽는데 이미 무심해 버린 것이었음을 그때는 몰랐었다.

어느 날 방장스님께서 '하루 24시간 중에 한 물건도 짓지 말라'(十二時中 不作一物)라는 휘호를 주셨다. 휘호를 받을 때는 참 좋은 법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방장스님께서는 수용하시는 당신의 삶을 글씨로 써주신 것이었다.

산중의 대중들은 방장스님의 병환으로 하루하루가 마음이 아픈데, 막상 당신은 아프면 아픈 대로 괜찮으면 괜찮은 대로 내버려 두셨다. '정말 일이 없었구나, 훨씬 벗어나서 노니셨구나, 한가했구나, 당신의 휘호대로 수용하셨구나' 하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다.

병고 속에 꼼짝 못하고 갇혀 있는 것이나 건강한 사람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이나 그 틀을 넘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그 법을 수용하는 차이는 하늘과 땅 만큼이나 서로 틀릴 것이다. 방장스님께서는 병의 고통도 극락의 연화대가 되어 이 꽃잎 저 꽃술로 무심히 노닐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방장스님의 임종이 가까워 올 무렵 상좌 법정 스님이 방장스님 귀에다 입을 대고 "스님, 제가 누구입니까?" 하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다그치듯이 물었다. 그러자 눈을 감고 조용히 계시던 분이 느닷없이 벼락 치듯이 '할'을 하셨다. 옆에 있던 모든 이들이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 성성한 기세에 위압을 느끼면서도 가슴 속이 시원했다.

평생을 쓰시던 방장스님의 육신으로부터 스님의 한 물건이 떠나고 나니, 염하는 자리 상식 올리는 자리조차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았다. 주객(主客)이 서로서로 법이 있어서 육신 또한 대법(大法)이다. 서로 범할 수 없는 것이 불불(佛佛)이 불상견(不相見)이다.

벽초 노스님은 염하시면서 법주가 "목욕이요"하면 "예"하고 대답하시고, "착복이요"하면 "예"하고 대답해 주셨다. 여법하게 염불하며 법식대로 순서 따라 어느 것 한 가지도 소홀하게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방장스님은 까다롭지 않으셨다. 언제나 시원하시고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분이셨다. 주인공 찾는 일에 대해서는 금방 놓친

"임종을 눈앞에 두고도 마음은 늘 차분하고 따뜻한 표정을 지으셨다"

보물을 손에 쥐여 주듯이 친절하셨다. 제반사에서도 방장스님은 웬만하면 스스로 알아서 고쳐가도록 뒷말을 하지 않으셨다.

장례 모시는 5일간의 날씨는 참으로 따뜻하고 화창했다. 내내 화창하던 날씨가 다비할 때는 금방 구름이 기압을 낮춰서 불꽃이 위로 치솟지 않고 적당히 진정되면서 연기도 거의 없이 금방 속불로 이어졌다. 역대 다비 중에 화력이 이렇게 강렬한 것은 처음이었다. 방장스님의 불덩어리 같은 한 생각이 이렇게 방광하는가 싶어서 옷깃을 가다듬었다.

이글거리는 불꽃 속에 밝고 맑은 청정의 기운이 선연하다.
어디선가 깊은 환희가 울려온다.
한없이 풍요롭고 편안하다.
천천만만 인이 없는 것처럼 편안하다.
뜨거워서 물러서면서도 스님이 타고 있는 불꽃 속으로 자꾸자꾸 다가선다.

다비를 마치고나니 날이 어두워지고 밤새도록 비가 내렸다. 방장스님은 가셨지만 산과 숲은 스님을 보낼 수가 없어 밤새도록 울었나보다. 방장스님께 불명을 받은 팔십 노구(老軀)의 유심거사가 상중에 추도 한시(漢詩)를 지어올리고 조문하고 갔다.

원월영담만춘광 (圓月影潭滿春光) 둥근 달이 못에 비춰 봄빛이 가득한데
덕숭산봉만진원담(德崇山峰巒盡圓潭) 덕숭산 크고 작은 산봉우리 모두가 원담입니다.

덕숭산의 고요와 새벽의 대종소리에 방장스님께서는 가셔도 가신 적이 없다는 것을 느낀다. 이 중만한 스님의 뜻을 어떻게 받들어야 옳을까. 내가 입산한지 몇 해 되지 않아 혜륜 노사께서 열반하셨다. 자고새면 뵙던 노사를 다비장에서 한줌의 재로 날려 보내고 돌아오니 참으로 궁금했다. 옆에 계시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셨을까? 그래서 방장스님께 물었다.

"혜륜 노스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자 방장스님은 이렇게 답하셨다.

"니가 있는 곳으로 갔다."

방장스님이 계시지 않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때 이미 스님께서 대답을 해 주신 것이 되었다. 이 한 물건을 "이"로 돌이키는 정진일색과 너를 부처님으로 모시고 받드는 일, 이것이 방장 스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 생각하니 차라리 마음이 한가해진다.

"스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고 물어 본다. 방장 스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고 생각해 본다. 스님께서는 지금도 "니가 있는 곳을 살피라"고 하실까? 있는 곳은 차치하고 "'이 뭣고'나 놓치지 말라"고 하실까?

방장스님이 가끔 회고하셨던 당신이 발심할 때의 일은 덕숭산 모든 대중들에게 언제나 새로운 발심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 방장스님이 어릴 때 만공 스님을 시봉할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방장스님이 탁자 밑에서 몰래 팔상록을 보고 있는데, 만공스님이 가만히 와서 내려다보시고는 "그게 무엇인가?"하고 물었다. 말을 못하는 어린 시자에게 만공스님은 단호히 꾸중하시기를 "지나가는 거지가 성불해도 너는 틀렸다."하시고는 돌아서 가버렸다. 세상이치를 다 통달하신 분, 모든 이들이 도인이라고 받드는 분, 하늘처럼 믿고 받들어 모시는 만공스님께서 "너는 틀렸다"고 단언하시니 방장스님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있을 수 없는 충격이었다.

그때 방장스님은 어떻게 죽을까를 깊이 고민하다가 참선하다가 죽자고 결론을 내렸다. 죽기로 결심한 이상 모질게 잠과 추위를 이기며 죽기로 화두를 들었다. 깜빡 졸기만 하면 쫓겨나는 금오 스님과의 용맹정진에서 제일 나이 어린 납자로서 끝까지 버티어낸 것도 그때의 일이고, 불거자거(不擧自擧, 화두를 들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화두가 잡히는 것을 뜻한다)도 그때의 일이고, 삼처전심(三處傳心)의 대답으로 만공스님께 칭찬받은 것도 그때의 일이다.

방장스님께서는 이 공부의 제일 첫째 조건이 발심이라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다. 경허 스님이 발심할 때의 일과 만공 스님이 발심할 때의 일을 산중대중들은 방장스님의 법문으로 들으면서 살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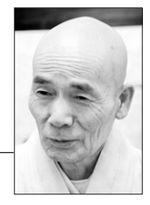
방장스님의 그 시절 그 풋풋했던 동자승으로 돌아가자. 다시 시자가 되고 행자가 되자. 만공스님께 받은 그 충격의 발심으로 용맹정진하자. 스님을 길이 모시는 일이 달리 무엇이 또 있을까?

"주인공 찾는 일에는 금방 놓친 보물을 쥐여 주듯 친절하셨다"

방장스님의 이제(二祭) 분향을 마치고 산에 올라가니 연분홍 진달래가 소나무 사이마다 지천으로 피었다. 우리들은 곧잘 '해동이 되고 진달래가 필 때쯤에 반가운 사람 만나자'고 약속하는데, 오늘은 누가 오려나? 이골 저 비탈에 저리도 진하게 웅성웅성 모두 나와 화려하게도 꽃피었는가. 무심했던 저 꽃들이 시리게도 곱게 눈에 잡힌다. 방장 스님은 가셨지만 스님의 향기는 가슴에 그대로 남아 있다.

천안대비불간투(天眼大悲不看透) 대비의 천안으로도 뚫어 볼 수 없는데
수풍화우과전산(隨風化雨過前山) 바람을 따라 비가 되어 앞산을 지나간다.

방장스님의 사십구제를 즈음하여
미좌 우송 분향 삼배



우송 스님(수덕사 유나)

2008년 빛고을 연등축제

LotusLantern Festival

1) 연등법회

※일 시 : 5월 5일(월) 오후 2시 ~
※장 소 : 광주공원 일대
※내 용
① 소원지 날리기 - 각자의 소원을 적어 에드벌룬에 묶어 상공에 띄움
② 부스운영 - 어린이 · 어른 모두 즐길수있는 전통놀이재현,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장엄등 전시, 목걸이 만들어 가져가기 등
③ 무료공양 - 밥차운영(자비신행회 협조)
④ 어린이 놀이경연대회-어린이날을 맞아 불자어린이들의 장기자랑 (오후 4시 20분 ~ 5시 20분, 광주공원 특설무대)
⑤ 공연-연꽃무, 심청전(미륵사 -목언스님지도)
⑥ 법고(法鼓)공연-각사찰 주지스님들이 직접나와서 시연

※법요식 : 개식 - 육법공양 - 삼귀의 - 반야심경 - 찬불가 - 환영사 - 격려사 - 축사 - 청법가 - 법문 - 발원문. 제등행진 준비

2) 제등행진

※사부대중 모두가 어울려 각종 전통등과 장엄물을 앞세우고 행진
행렬 순서 : 선발대 - 신도그룹단

1.선 발 대 : 깃발(3개) - 취타대(30명) - 장엄등(4ea) - 합창단(150명) - 운불련차량(20대)
2.신도그룹단 : 스님,기관장,재가신행단체장 - 차량공연(대북타고) - 신도1그룹(400명) - 신도 2그룹(400명) - 신도 3그룹(400명) - 풍물놀이(빛울림) - 신도 4그룹(400명) - 신도 5그룹(신행단체 포함 400명) - 연희단(30명)한마음선원

3) 대동한마당

※일반시민과 불자 모두가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한데 어울려 노는 축제 한마당(안무 - 조선대학교 무용과 박준희교수)

맞이공연	본행사전 제등행진 팀이 도착하여 자리를 잡는동안 맞이하는 공연(도드리 / 얼쑤)
개 막	개막선언과 축하 팡파레(범종 3회) / 레이저, 폭죽
공 연 1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화려한 무용공연 / 조선대무용과, 대성여고
공 연 2	봉축 노래 및 연주 / 장성일 (톱연주, 요들송)
공 연 3	인기가수공연(김상배 - 몇미터 앞에 두고...) 범민스님(목탁새), 서경스님(하모니카연주), 무진스님 - 판소리, 무상스님(통기타)
공 연 4	청소년 댄스팀 공연(전국대회우승팀 포함) / B-boy 공연 인기가수공연(김미성, 이애자, 미화)
피 날 레	민요 전체 참가자 강강수월래 마무리 (불꽃, 레이저쇼, 바누방울등)

2008 빛고을 연등 축제 일정

행 사 명	날 짜	시 간	장 소
어울림마당	5월 5일(월)	오후 1시 ~ 6시	광주공원
연 등 법 회	5월 5일(월)	저녁 6시 ~ 7시	광주공원
제 등 행 진	5월 5일(월)	저녁 7시 ~ 8시 20분	광주공원 → 금남로 → 문화전당앞
대동한마당	5월 5일(월)	저녁 8시 20분 ~ 10시	문화전당앞

※ 광주불교방송 개국 13주년 기념행사

♧일 시 : 5월 22일 오후 3시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내 용 : 인기가수초청공연



부처님오신날 광주 · 전남봉축위원회
광주광역시 서구치평동 산1번지 불교회관
사)광주불교사암연합회
전화 : 062_376_3223
후원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보성건설

‘화합과 상생’의 등 밝혔다

서울시청 앞 봉축상징물 점등… 전국 곳곳 연등 물결



서울시청 광장을 밝힌 ‘화합과 상생의 등’. 사진=박재완 기자

“‘화합과 상생의 등(燈)’을 통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을 밝힙시다.”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가 4월 21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봉축상징물 점등을 시작으로 서막을 열었다.

이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점등식은 봉축위원회 위원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비롯한 불자 및 서울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지관 스님은 ‘나라 발전과 서울시의 융성을 위한 축원문’을 통해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호로 평화적 통일과 나라 발전을 이루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몸과 마음이 항상 편안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5월 12일 부처님오신날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을 밝힐 ‘화합과 상생의 등’은 분열과 양극화라는 우리 사회와 인류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사회 및 국민통합은 물론 인류의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 등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전통등 제작방식으로 만든 한지 대형등이란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국보 제29호 성덕대왕 신종과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을 형상화하였으며, 그 위에 전통 문양을 채색하여 높이 18m로 제작했다. 한지의 내구성과 방수처리 기술을 개발, 처음으로 야외 전시와 대형화가 가능하게 된 것.

시청 앞 장엄등과 더불어 종로와 청계천, 북촌 등 서울시 전역에는 5만여 개의 가로연등이 설치되어 부처님오신날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며 도심의 야경을 아름답게 수놓게 된다.

한편, 전국 곳곳의 봉축 분위기도 점차 무르익고 있다. 속초 신흥사(주지 오현)는 영북지역봉축위원회와 함께 4월 18일 속초소방서 앞 선전탑에서 점등식을 가진데 이어 5월 2일 제등행렬, 12일 봉축법요식을 봉행한다. 백제불교회관(이사장 장곡)과 백제불교신행단체협의회(회장 이진옥)는 4월 21일 경성 큰마을사거리에서 봉축조형물 동자승 점등식을 가졌다. 원주 구룡사(주지 원행)와 강원지방경찰청 경승단은 4월 25일 ‘국가사회안정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어 원주 및 횡성지역 불교계는 5월 2일 원주국민체육센터 앞에서 봉축탑을 점등하고 3일, 횡성오거리에서 제등행렬을 펼친다. 전북봉축위원회도 4월 12일 서신동에서 기원탑 점등식을 갖고 탑돌이를 했다. 광명시불교연합회(회장 원명)는 4월 20일 올해 처음 철산역광장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

김성우 기자

문광부 ‘연등축제 지원’ 나서

옥외전광판 광고 등 다양한 홍보 계획 마련

문화관광체육부(장관 유인촌)가 부처님오신날 홍보지원 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문광부 종무실(실장 곽영진)은 최근 문광부 국문 홈페이지(mcst.go.kr) 및 영문사이트(Korea.net)에 연등축제를 알리는 배너를 설치하고 다양한 홍보지원에 나섰다. 종무실은 4월 28일부터 고속터미널 상가옥상, 청계천 광장, 서울신문사, 테헤란로 등 서울시내 옥외전광판 동영상 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광부TV에 17분 동안의 동영상 홍보물을 올리는 한편, KTV(한국정책방송)에 봉축관련 코너들을 기획하고 국제위성방송인 아리랑TV를 통해서도 연등축제를 다양하게 취재해서 보도할 예정이다. 이밖에 <Korea Policy Review>를 1만4천여부 발행, 재외 160개국 공관에 연등축제를 소개하고, <코리아 플러스>를 통해서도 기사와 광고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기획실 관계자는 “문광부가 주도적으로 봉축 홍보지원 계획을 마련한 것은 연등축제를 한국의 고유한 전통축제로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연등축제의 무형문화재 등재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기독·천주교 대표단 “부처님오신날 축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권오성 총무, KNCC 종교간 대화위원장 김광준 신부, 기독교장로회 선교국장 정해동 목사, 기독교감리회 선교국장 신복현 목사 등 대표단은 4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예방, 부처님오신날을 미리 축하했다.

KNCC 권오성 총무는 “종교간 이해와 교류를 위해 직접 방문해 축하드리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영향력이 큰 불교와 기독교가 발전적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관 스님은 “모든 종교는 다르지만 근본은 하나이기에 만나서 반갑다”면서, 연등축제와 봉축법요식 등을 소개했다.

권 총무는 “이번 부처님오신날부터는 KNCC 소속 성직자들도 전국의 사찰 법요식에 참석해 부처님오신 뜻을 나누겠다”고 제안했다.

권 총무는 또 “KNCC는 평화와 통일은 물론 환경문제에도 관심이 많다”며 “특히 하느님의 창조적 질서를 파괴하는 운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조계사에 나투신 황룡사 진신사리

대웅전서 이운식·친견대법회 봉행



황룡사 진신사리를 친견하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포교원장 혜총, 교육원장 청화 스님(오른쪽부터).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사(주지 원학)와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범하)은 4월 2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황룡사 출토 진신사리 이운식 및 사리친견법회를 봉행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 수장고에 보관됐던 사리는 이날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 특별 ‘법보’전 전시에 앞서,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운됐다.

사부대중 1000여명이 동참한 사리친견법회에서 지관 스님은 “황룡사지 출토 사리는 부처님 열반 후 세계 각처로 나눠 봉안됐던 진신사리 중 하나로, 643년 자장스님이 당나라에서 모셔와 황룡사 구층목탑에 봉안했던 사리”라며 “부처님처럼 맑고 향기롭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참배하자”고 설법했다.

한편 진신사리는 사리친견법회가 열린 23일 당일만 조계사 대웅전에서 참배가 가능하다. 이후 4월 28일~6월 29일 동안은 불교중앙박물관에 전시되며, 전시 후에는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돌아간다.

조동섭 기자

국가 보조금 횡령 의혹 태고종 “사실무근” 반발

태고종이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을 이용해 억대 계약금을 챙겼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태고중앙복지재단(이사장 운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태고중앙복지재단 이수범 사무국장은 4월 21일 “형(운산 스님)의 이름을 이용해 심옥순씨에게 매매계약을 종용한 사실도 없으며, 1억원의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국장은 “2006년 8월 14일 충남 논산 화지동 토지 5642㎡에 대해 심옥순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이 계약금을 받을 수 없어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입회인인 안모씨와 이모씨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조건하에 1억원을 받은 후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고 해명했다.

김성우 기자



간다라·티베트 불교미술 한눈에

천태종 소장 해외유물展

천태종 관문사 성보박물관(관장 세운)은 5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 봉축 기념 특별전 ‘천태종 소장 해외 유물전-간다라·티베트 불교미술’전을 개최한다.

관문사성보박물관은 국립박물관을 제외하고 간다라 유물을 유일하게 소장한 곳. 이번 특별전에는 인도 랴자그라하 교외의 동굴에서 인드라의 예배를 받는 광경을 새긴 ‘제석굴설법부조상’, 불두만 남은 스투코, 쿠샨 왕조의 카니슈카왕 때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여래 입상이 그려진 금화’를 비롯한 각종 동전들, 기원전 작품으로 추정되는 낙타 모양토기 등 90여점의 해외 유물이 전시된다.

세운 스님은 “간다라와 티베트 불교미술이 우리나라 불교예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 말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불교도서전 개최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과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원택·이하 불출협)가 책 읽는 불자문화 확산과 ‘사찰 작은 도서관 만들기 운동’ 전개를 위해 ‘제 1회 불교도서전’을 개최한다. 도서전은 5월 1~6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진행된다.

이번 도서전은 불출협 15개 회원사가 중심이 돼 550여종의 불교관련 도서를 전시·판매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신간은 일반서점보다 약 20%, 재고도서는 약 5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불서 판매로 조성된 수익금은 전액 사찰도서관 건립을 위해 사용된다. (02)2011-1770

김강진 기자



불기2552(2008)년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은 「결계 및 포살에 관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2552(2008)년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본종 모든 스님들은 결계신고와 포살 참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결계신고

▪신 고 일 : **불기 2552(2008)년 5월 10일(토, 음력 4. 6) ~ 5월 19일(월, 음력 4. 15)**

▪신고장소 :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다만 공찰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함.)

▪신고방법

– 본종 소속 사찰의 주지는 〈시행령 별첨 서식1〉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에 사찰의 소임자 및 거주대중을 기입하여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의 방법으로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함.

– 본종 관장 하에 기관 및 단체(선학원, 대각회 등 법인소속 사찰 포함)의 거주승과 기타 수행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스님은 〈시행령 별첨 서식2〉의 결계신고서(개인용)를 작성하여 결제 일 전 10일부터 결제 일까지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지역 교구본사에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의 방법으로 결계신고를 함.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시행령 별첨 서식1〉의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를 작성하여 결제 일 전 10일부터 결제 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의 방법으로 교육원에 결계신고를 함.

– 6월 이상의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스님과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출국한 스님은 〈시행령 별첨 서식3〉의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신고함.

2. 포살

▪포살참여 의무

– 본 종 스님(‘예비승’을 포함한다)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안거 중에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의 포살에 참여하여야 함.

▪포살참여 예외

가. 승납 30년 이상, 연령 6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의 스님
나.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다.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라.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마. 군 복무중인 스님

※ 나~마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첨 서식6〉의 포살 불참 사유서를 결제 해제 일 까지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함.

▪포살 시행일 : 교구본사에서 정하여 시행함(각 교구본사별 포살 시행일은 추후 공고 예정임)

▪타 교구 포살참여

–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하고, 〈시행령 별첨 서식4〉의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를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포살 참여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권리제한(결계및포살에관한법, 계단법, 승가고시법, 법계법)

– 사미·사미니는 비구·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없다.
–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 법계를 품수 또는 승서할 수 없다.

4. 유의사항

– 결계신고는 접수기간 내에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시행령 별표1 :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 참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서식〉은 종단 소속사찰 및 교구본사에 발송된 안내책자와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 및 각 교구본사홈페이지에 게재된 소정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계 2552(2008)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 관

화장사 가침박달꽃 축제

청주 화장사(주지 무진)에서 5월 2일부터 4일까지 가침박달꽃 축제가 열린다. 가침보존회와 가침박달꽃축제 준비위원회가 가침박달나무의 생태적 ·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알리기 위해 마련하는 축제다.

축제는 ▲5월 2일 10시 깨침꽃과 만나는 차와 음식시연 시식의 장 ▲5월 3일 11시 가침박달나무 식수행사(야생화꽃시뿌리기&나무심기) ▲5월 4일 가침꽃과 함께 하는 가족사진 촬영대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한편 가침박달나무는 충청북도 천연유전자원보호림 제32호로 지정된 세계적 희귀수목이다. 현재 화장사 대웅보전 뒷산에 3만 여 평에 걸쳐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전국 최대의 규모다.

손효선 기자

대구 제현사 시집 기증

한용운 스님 등 근대 한국 시인 시비를 조성한 대구 제현사(주지 우록)가 제1회 '책 나누기 행복 더하기 축제'에 시집 '대구 동구 도동에 시비가 있다네'를 기증했다.

대구시 중구청이 주관하는 이 축제는 세계 책의 날(4월 23일)을 맞아 알뜰 도서교환 시장, 가훈 써주기, 삼행시 짓기 등으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열렸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중화사 초파일 범종 낙성

5월 12일 부처님 오신 날 충북 영동 중화사(주지 현구)에 가면 불자들도 직접 범종을 칠 수 있다.

중화사는 3년간의 범종 불사를 마치고 부처님 오신 날에 '범종 낙성식'을 봉행한다. 이날 낙성식에서는 중화사를 찾은 모든 사부대중에게 범종 타종의 기회가 주어진다. (043)742-2057 손효선 기자

해산 스님 사리탑 점안식

제천 고암사(주지 정명)는 5월 4일 오전 10시 상락당(常樂堂) 해산(海山) 스님의 사리탑 점안 및 사리탑비 제막법회를 봉행한다.

해산 스님은 1957년 월정사에서 탄허 대종사를 은사로 득도, 오대산 수도원에서 수행했다. 불교신문 초대 편집국장을 지냈다. (043)647-5359 김성우 기자

"부처님 가르침 따라 새 삶을"

충청지역 사찰, 봉축 맞아 교도소 수계법회 개최 잇달아

"지키겠습니다."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 날을 맞아 충청지역 사찰들이 재소자들을 위한 수계법회와 위문 행사를 잇달아 개최하고 있다.

4월 23일 봉행된 대전교도소에서는 재소자 47명이 신도5계를 받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 것을 서원했다. 이날 수계법회의 전계사 진철 스님(만불선원 회주)은 비록 사회와 격리된 공간에서 생활하지만 마음만은 늘 청정하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대전교도소 재소자 47명이 5계를 받고 연비를 하며 불자의 삶을 서원했다.

진철 스님은 수계법어를 통해 "살생하지 말라 함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살라는 뜻이고 투도하지 말라 함은 일한 만큼 갖고, 가진 것을 베풀며 살라 함이다. 사음하지 말라 함은 이성관계로 인해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다"고 말했다.

또 "망어를 하지 말라 함은 종교를 통해 진실함을 배워 진실하게 살라는 뜻이고 술을 마셔도 취하지 말라 함은 정체성을 갖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라는 뜻"이라며 계를 지키는 생활을 당부했다. 수계식은 200여명의 수용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됐다.

4월 18일 공주 영평사(주지 환성)에서는 공주교도소 재소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신묘장구대다라니 독경대회'를 열었다. 독경대회에서는 재소자 가운데 선발된 10명의 경합을 벌였다. 140여명의 재소자들은 독경대회를 관람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또 수덕사(주지 옹산)는 5월 6일 홍성교도소에서 재소자 수계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청주청원 조계종 주지협회(회장 각의)는 어버이날인 5월 8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문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손효선 기자


길이가 1000미터나 되는 진일 스님의 '거북귀' 작품.

진일 스님 선서화 400여점 선봬

대구문화예술회관 전시

대한불교조동종 혜광사 주지 진일 스님이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만마리의 거북이는 만부쳐다'를 주제로 '선서화 작품전시회'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다.

14일 개회식에는 조동종 총무원장 덕우 스님, 승정원장 덕룡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축하했다. 400여 점의 작품을 내 놓은 이번 전시에서 진일스님은 1000미터 길이의 거북 귀(龜)자 작품을 선보여 관객의 감탄을 자아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생명 사랑 실천하는 청소년으로"

대전파라미타청소년協 '2008 신입생 입회 선서식' 개최

대전파라미타청소년협회(총재 진철, 이하 대전파라미타)는 '2008 입회선서식 및 자연 · 생명사랑 다짐대회'와 '총재 추대식 및 회장 이 · 취임식'을 4월 19일 대전 보문고등학교에서 봉행 했다.

이날 행사에는 파라미타청소년협의회 총재 혜종 스님, 대전파라미타 총재 진철 스님, 대전파라미타 회장 선오 스님, 백제불교회관 이사장 장곡 스님, 대전 중구 권선택 국회의원, 대전서구경찰서 이기병 총경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대전 파라미타 학생대표가 파라미타의 활동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회장 선오 스님은 인사말에서 "역대 성현의 가르침의 핵심은 나만 생각하는 좁은 마음을 넘어 나만큼 남을 생각해 주는 마음을 갖게 하라는 것이다"며 "나를 사랑하듯이 남도 사랑하고, 자연과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는 청소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총재로 추대된 진철 스님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소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커나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보시 지계 인욕으로 정진하여 이웃과 더불어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혜종 스님은 격려사에서 "대전파라미타에서 11번째 새내기를 맞아 새로운 다짐으로 출발하는 것과 그 출발을 이 자리를 축하 한다"며 "또한 이 자리를 통해 자연사랑 생명사랑 다짐 선서를 하며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과 환경파괴의 피해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대전파라미타청소년협의회는 전 총재 장곡 스님에게 감사패 수여를 하고, 신임 임원 및 분회 회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손효선 기자

부처님 오신날 기념 전통문화 축제 개최

인천불교범종단聯

인천불교범종단연합회는 5월 3일 오전 10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대법회겸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축제 한마당'을 개최한다.

조계종인천사암연합회장 지명, 천태종 황룡사 주지 무원, 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삼계종 총무원장 일초, 법륜종 총무원장 대일, 원융종 대표 보련 스님 등 인천지역 60여 사암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모두 3부로 진행된다.

1부 인천시 무형문화재의 '인천수륙재 및 범패 · 작법무 공연'에 이어, 2부에는 불자 연예인 초청 전통문화축제 한마당이 진행된다. 이어 3부에는 '온 세상이 하나'라는 주제로 손에 손 잡고 인천 시내를 순회하는 제등행렬이 이어진다. 김성우 기자

천태종 조사전 낙성법회

단양 구인사서 봉행…5천여 사부대중 참석

대한불교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이 역대 천태조사들의 존상을 모신 조사전을 완공했다. 천태종은 4월 22일 단양 구인사에서 '천태종 역대 조사전 낙성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정 도용 대종사,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종의회 의장 도정 스님 등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0여명이 참석했다.

지상 2층에 연면적 693㎡ 규모의 조사전에는 한국의 천태조사 1조인 파약선사와 천태사상을 크게 일으킨 대각국사 의천스님 등을 비롯해 43조사의 존상이 봉안됐다.

법요식에서 종정 도용 스님은 "자비하신 마음의 천안으로, 지난 인연 여러 고을 굽어보시네, 이미 좋은 밭에 씨앗 뿌리셨으니, 돋아나는 새싹위해 감로수가 되리라"라고 법문했다.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역대 조사전은 한국과 중국 양 민족사이의 화합과 불교 교류를 확고히 다지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며 "같은 법맥을 이어온 양국 천태종단이 인류화합과 세계평화를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천태종은 1993년 중국 천태종 총본산인 국청사에 한국 천태종의 개산조인 대각국사 의천스님과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의 존상을 봉안, 2003년 조사전 건립불사에 착수한 이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불교협회와 함께 존상을 조성해왔다. 손효선 기자

광고필름
(도피안사)

“부처님오신날 기쁨의 축제로”

부산·경남 각 사찰에서 다채로운 행사 열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산 경남 각 사찰에서 다양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 055-382-7182)는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공연과 통도사를 만끽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한다. 5월 2~12일 새롭게 단장한 도서관 앞 솔밭 주차장 및 통도사 일대 길을 불빛 거리로 조성해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왕벚꽃나무를 비롯한 나무들을 다시 심어 아름답게 조성한 장소를 지역민들과 나누자는 취지다. 5월 11일 오후 1시에는 일본 정행사를 초대하여 ‘아악(雅樂)공연’과 불교무용을 설법전에서 개최한다. 아악 공연은 중국의 경극과 비슷하게 진행되며 음악과 연극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12일 법요식은 오전 9시 30분에 봉행하며 점등식은 오후 7시이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051-508-0345)는 5월 1일 오후 7시 홍법사 청년회에서 직접 만든 장엄등 점등식을 개최한다. 올해 제작한 장엄등은 작년에 조성한 삼존석불의 모양을 보고 만들어 귀엽고 새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유아기 때 출가 경험을 통해 불교에 대한 바른 개념 획득과 심성을 순화해 불교 인재를 양성하자는 목적으로 ‘부처님과 함께하는 21일간의 제4기 홍법사 동자승 단기 출가’를 실시한다. 4월 23일 출가 입재식을 마친 동자승들은 23일부터 28일 동안 행자 생활을 거친 후 29일 삭발 수계했다.

5월 12일 환계식에서는 그동안의 수행을 점검하고 저녁 발우공양 모습을 일반에 공개한다. 이에 앞서 12일 오전 10시 법요식과 성인마을 상좌 수계식을 봉행한다. 외국인들도 신청한 수계식과 함께 사진, 조각보, 사경 등 다양한 전시회도 열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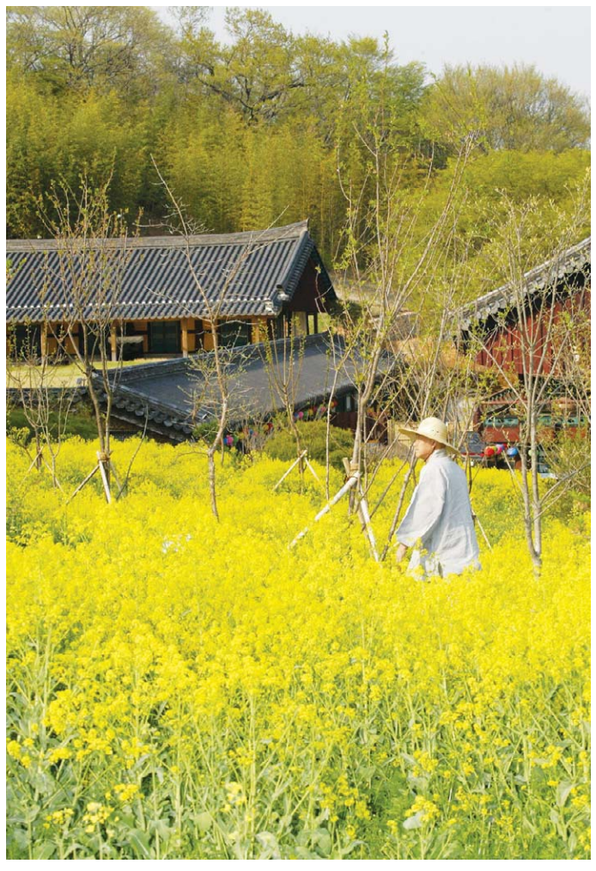
울산 월봉사(주지 오심, 052-251-4602)는 12일 오전 10시 봉축불공 및 법요식을 시작으로 부처님오신날 어린이사생대회를 오후 2시 개최한다. 또한 신도들이 참가해 직접 만든 등을 심사하는 ‘예쁜 등 경연대회’ 및 ‘작은 음악회’를 열 계획이다.

부산불교신도회 부산불교인재개발원(051-853-8539)은 7일 오후 7시 부산불교신도회관 6층 법계정사에서 강릉 성원사 주지 주경 스님을 초청해 대법회를 봉행한다.

기장불교사암연합회(회장 초삼, 011-9042-7799)는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기장군청 전시관에서 ‘나누는 자비 따뜻한 손길’이란 제목으로 선화 및 찻그릇 전을 개최하고 있다. 전시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3일 오후 4시 개최하는 봉축법요식에서 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불우이웃 성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hdbp@hanmail.net



부산 각 사찰에서 다채로운 봉축행사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제등행렬 모습.



서운암 들꽃 향연 펼쳐져 양산 통도사 서운암(주지 성파)은 4월 25~30일 제7회 서운암 들꽃축제를 개최했다. 서운암 일대 100만여㎡의 들꽃 군락지에 조성된 할미꽃, 대청, 조팝나무, 금낭화 등 100여 종이 넘는 다양한 들꽃들이 선보인 이번 축제는 예년보다 기간을 4일 연장해 진행됐다. 축제기간 동안 축하공연과 연꽃사진전, 시화전, 그림전 등의 볼거리와 차 시연회도 함께 열렸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초파일 맞아 학생들도 수행

부산 금정中 108배씩 100일 정진

봉축을 맞아 부산의 종립학교 학생들이 수행의 물결을 만들어 화제다.

부산 종립 금정중학교(교장 현익채)는 3월 10일부터 108배씩 총 10800배를 목표로 100일기도 용맹정진 중이다.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12시 50분부터 학생100여명이 학교 법당 반야원에 모여 발원문을 시작으로 108배, 정근, 사홍서원의 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금정중학교 이석언 교법사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우려도 했지만 함께 절을 이어가는 우리 학생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현재 매일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학생은 40여명이 넘으며 최대 120여명이 참석해 높은 참여율을 보여 주고 있다. 1학년 차태현 학생은 “집중력도 좋아졌고 불자이신 부모님의 영향으로 꼭 절수행도 하고 싶었는데 참가할 수 있어 기쁘다”며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고 소감을 말했다.

부산 해동고등학교(교장 강석표)에서는 봉축을 맞아 봉사를 통한 보시행을 실천한다. 5월 7일 해동고 학생 23명은 천마재활원 장애인 9명과 일반 장애인 8명과 함께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을 실시한다. 본 문화체험은 오전 8시부터 통도사 경내 순례와 통도사 서운암 들꽃 구경 및 통도 환타지아에서의 놀이 시간으로 구성되며 30~40대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나들이이다. 9~10일에는 생명나눔실천운동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와 공동으로 후원을 위한 홍보캠페인에 동참해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500원의 희망’ 두송복지관

부산 사하구 두송종합복지관(대표이사 지현)은 최근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500원의 희망선물’ 사업을 실시했다. ‘500원의 희망 선물 프로젝트’는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삼성화재RC가 공동으로 장애인 가정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500원의 적립금을 모아 활용한다.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된 황인춘(60)씨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넓은 방과 책상이 생긴 것이 너무 좋다”며 감사의 마음을 밝혔다. 황씨는 4월 23일 가족과 함께 새롭게 바뀐 집에 입주했다. 하성미 기자

5월 7~8일 용호장승축제

용호종합복지관(관장 이춘성)은 5월 7~8일 지역민들의 건강과 주민화합을 위한 ‘제5회 용호장승축제’를 용호복지관내 너른 앞마당에서 개최한다. 5월 7일 오후 2시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재를 지내는 것을 시작으로 저소득 독거 어르신 20여분을 모시고 장수축제를 연다. 8일 오전 11시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 1000여명과 함께 공연 및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孝 큰 잔치’를 개최하고 오후 3시부터 어울림 한마당도 준비한다. (051)628-6734 하성미 기자

생명나눔 부산 첫 기증자

범어사 포교원 금정선원(선원장 대정) 신도 조수연(57 · 여)씨가 4월 14일 생을 마감하며 자신의 시신을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에 기증했다.

시신은 고인의 생전 뜻에 따라 의대생 연구와 해부 실습용으로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일에 기증됐다. 故조수연씨는 올 1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에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했으며 부산지역본부 창립 이래 정식 등록자의 시신이 실제로 기증된 첫 번째 사례이다. 하성미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광덕사 혜인정사 염불선원 개원

“부산의 새 수행 구심점 탄생”



정기적인 법문으로 신도위한 수행처 조성

4월 18일 부산 금정산 아래 구서동에서 잔치를 연상케 하는 개원법회(사진)가 열렸다. 부산의 새로운 구심점이 탄생한 것을 축하하며 모인 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이 광덕사 혜인정사 염불선원을 개원하고 앞으로 정기적인 법문을 하며 신도들을 위한 수행처로 삼을 것을 약속한 것. 또한 법문을 위한 법사비도 받지 않으며 원하는 이는 누구나 와서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열린 선원, 청정 선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발원을 밝혔다.

“그동안 법사비를 받아 불사에 도움을 주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도 법사비를 받지 않고 법문을 하셨습니다. 돈을 안 받고 하는 법문이 참 법문 아니겠습니까? 운영이 되고 안 되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사찰에서는 법사스님을 모시고 싶어도 법사비를 걱정합니다. 법사비, 기도비 걱정 없이 마음껏 수행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회주 혜인 스님은 운영 원칙을 이와 같이 밝혔다.

“이와 같은 운영 계획이 나온 동기 또한 오직 수행입니다. 각 행사를 위해 마련하는 법문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도부터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꾸준한 법문과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점검도 필요합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이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든 부담 없는 편안한 마음으로 내 집처럼 생각하고 자주 오세요. 죄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참회하시고 부처님 법문이 듣고 싶다면 법을 청하시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싶으면 마음 편히 오셔서 기도하고 독경하고 정진하셔서 여러분의 의지처가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램은 없습니다.”

누구나 찾아와서 쉴 수 있으며 편히 기도 할 수 있는 곳. 불자들을 위한 의지처가 되겠다는 것이다.

혜인 스님이 이끌어갈 법회의 공식 명칭은 ‘부부법회’이다. 치마 불교, 노인 불교에서 탈피하여 더욱 성장해야 한다는 것.

“남편과 함께 오십시오. 남편이 없으면 남자친구라도 데리고 오세요. 치마불교, 노인불교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들은 법문이 좋으시다면 남편에게도 권유해서 듣도록 해야지요.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염불선원은 6월부터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정기적인 법회를 회주 혜인 스님과 함께 시작한다. 또한 생활 불교화를 위해 모든 의식과 독경, 염불을 한글로 풀이해 알기 쉽게 진행하며 사경 공부를 통해 수행 정진하도록 돕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051)517-9008 하성미 기자

조계종 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 신축불사 안내



귀의 삼보 하옵고

지장선원 · 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은 불타의 혜명과 조계종 종지를 봉대하며 불타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전법과 불자님들의 교육 및 사회 복지 사업을 위하여 신축불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극락정토 안양국에 세워질 도심 속의 전법도량 신축불사에 무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덕 지으시고 세세생생 부처님 품안에서 구경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원불봉안 및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께는 돌아가신 후 영구위패를 봉안하여 사십구재와 기제사, 명절차례를 세세생생 모셔드리며 공덕비에 이름을 새겨 매일 천도 기도해 드립니다.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한통의 전화로 신축불사가 이루어집니다.

■ 안양불교문화원 ARS 신축불사후원금 060-707-1032 쌍상하

원불봉안, 탱화, 수미단, 닷집, 법상, 법종, 향로, 촛대, 불상 등의 불사도 가능합니다. ■ 신축불사상담 1588-1936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401-248474 안양불교문화원
국민은행 620601-01-131405 지장선원
농 협 170888-51-025398 안양불교문화원

■ 홈페이지 : www.abccenter.or.kr ■ E-mail :abccenter123@hanmail.net

조실 지관 회주 세민 주지 현호 신도회장 심정구 수석고문 이필상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존재케 하라"

전북·충남 4개 본사 대운하 반대 행렬 참여

한반도 대운하 반대 행렬에 전북 · 충남의 불자들도 나섰다. 4월 22일 금산사, 선운사, 마곡사, 수덕사 등 조계종 전북 · 충남지역 4개 본사 스님과 불자 200여명은 금강 하구언에서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도보순례단의 금강순례 출발행사에 동참했다.

'금강운하의 위협으로부터 금강을 살리는 평화의 발걸음'을 주제로 열린 금강순례 출발행사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행사. 선운사 법만 스님은 '한반도 대운하 백지화 촉구 성명서'를 통해 "생명평화를 제1의 가치로 삼고 수행하는 불제자로서 우리 국토의 근간인 백두대간과 생명의 터전인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과 금강을 오로지 '개발'과 '발전'의 당위만을 내세워 파헤치는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한다.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여여하게, 두두물물이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뭇 생명의 자연스러운 존재방식"이라며 한반도대운하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순례단을 이끄는 도법 스님은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4대 종단이 한강, 낙동강, 영산강순례를 통해 운하의 비현실성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이번 순례를 통해 운하를 건설해서는 안되는 까닭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제 그 이유를 대중에게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순례 71일째를 맞은 도보순례단은 금강 하구를 출발해 전북 익산, 충남 논산, 부여, 공주, 연기를 거쳐 금강의 지천인 미호천을 지나 5월 10일 청주에서 100일간의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보순례단은 4월 18일 부안 해창 갯벌을 출발해 21일까지 동진대교, 김제 망해사, 김제 거전갯벌, 군산 하제항 등을 거쳐 군산 내초도 앞 갯벌까지 새만금 갯벌과 연안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과 생존의 위협에 처한 지역 주민의 아픔을 느끼며 새만금 지역을 순례했다.



4월 22일 금강하구에서 열린 대운하 반대 금강순례출발 행사에는 스님과 불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bud1080@naver.com

꽃바람 솔향기 함께 퍼진 선율

4월 20일 전주 모악산 금선암, 산사음악회 열려


4월 20일 전주 금선암에서 열린 산사음악회에서 사부대중 1000여명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전주 모악산 금선암(주지 덕산)은 4월 20일 '꽃바람 솔향기 음악회'를 개최했다. 금선암 신도 및 모악산을 찾은 상춘객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함께한 음악회는 전주시립국악단의 힘찬 북소리 연주로 막을 열었다.

이어 퓨전 판소리 '제비노정기', 국악가요 '배띄워라', 대피리 가락과 모듬북 등으로 활기찬 리듬과 경쾌한 가락을 더한 합주곡 '방황', 불교전통 승무와 사물놀이 협주곡, 통기타 가수 오경진씨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공연시간 내내 관람객들을 신명나는 시간으로 이끌었다.

산사음악회를 기획한 덕산 스님은 "솔향기 은은한 도량에 연주단과 함께 모인 여러분들이 바로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꽃바람이다. 부처님 오신날에도 여러분의 꽃향기와 솔바람이 함께 부처님 오심을 축하하길 바란다. 이 자리에 모인 모두의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선암에서는 산사음악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 봄내음이 가득한 화전과 산채비빔밥 등을 공양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정심으로 국민에 봉사하렵니다"

공불련 금산사서 철야정진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하복동, 이하 공불련)는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김제 금산사에서 제 5차 임원회의 및 제16차 성지순례 법회를 개최했다.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김완주 전북도지사 등이 동참한 법회에는 전국 공무원불자 300여명이 동참했고, 일감 스님의 지도 아래 법회는 철야정진으로 이어졌다.

월주 스님은 "불교는 자각각타의 종교다. 진리를 자신의 마음에서 구해 이웃에 회향해야 할 것이다. 전법도생과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보현행원을 실천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하복동 공불련 회장은 "공무원들은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공불련은 국민을 편하고 이롭게 한다는 본분을 되새겨 청정심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자"고 다짐했다.

임원회의에서는 불자회 미설립 기관의 불자회 설립 유도와 일청일임(一廳一任: 한 기관에서 한가지 분야 봉사를 맡는) 운동 등을 통한 포교 및 봉사활동 전개 등을 골자로 한 2008년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찰과 연계한 수행 및 포교활동을 전개해 생활불교의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공불련은 6월에는 합동수계법회를 개최하고 7월에는 중국성지순례를 계획했다. 또한 10월에는 창립 8주년 기념 법회와 산사음악회 개최, 11월 22일은 '공불련 사회봉사의 날'로 정해 각 지역기관별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불련은 내실 있는 수행 정진활동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국내외 성지순례를 실시하고, 수계법회 및 철야정진대회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환경보살의 원력 모아 청정국토 만들 것"

광주불교환경연대 출범식

불교계의 본격적인 한반도 대운하 저지 움직임의 하나로 광주불교환경연대 출범식이 열렸다. 4월 19일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 성오 스님(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법일 스님(광주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완도신흥사 주지), 배삼태 회장(가톨릭농민회), 임낙평 회장(광주환경운동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법일 스님은 "지역의 젊은 불교활동가들이 이 시대의 공업(共業)을 해결하기위해 불교NGO를 설립했다. 이웃과 자연의 아픔을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풀어 나가자"고 말했다.

수경 스님은 "자연 생태계 파괴와 빈부 양극화는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 광주에서 새로운 불교환경운동의 지평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불교환경연대는 대운하 백지화운동, 불교환경 캠페인, 빈그릇 운동, 환경아카데미, 어린이생태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전남 지역민의 환경인식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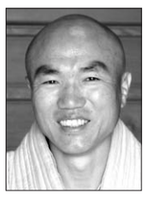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 존자

금산사 수련원 템플스테이 팀장 일감 스님

"템플스테이는 깨어있는 휴식 시간"

기발한 아이디어로 템플스테이 진행 '일감 스님과 대화' 프로그램의 꽃



벚꽃이 꽃비로 반기고 진달래향이 그윽한 계곡너머 그늘밑, 서래선원에서 금산사 템플스테이 팀장 일감 스님과 마주앉았다.

금산사 수련원의 템플스테이는 2007년 연인원 4000명이 다녀갔다. 올해만 4월까지 2000명이 다녀갔고 연말까지 5000여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금산사 템플스테이는 인기 있는 산사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금산사 템플스테이의 인기비결은 무엇일까?

일감 스님은 "금산사 템플스테이에서 산과 계곡과 물이 어우러진 대자연과 함께 조상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금산사를 찾는 대중들은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연령도 다양하다. 가족단위의 참가도 늘고 있고 종교를 초월한 각종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금산사 템플스테이의 특징은 깨어있는 휴식이다. 감각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지만 절집의 방식으로 나를 내려놓는 휴식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깨어있는 휴식을 통해 성숙된 자세를 맞아 아픔을 정리하고 자신을 가장 짧은 시간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금산사 템플스테이"라고 설명했다.

일감 스님은 매월 계절의 변화와 특색에 맞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춤명상 템플스테이' '화전놀이 템플스테이' '일출맞이 템플스테이' 등 아이디어도 기발하다. 예불, 참선, 108배, 다도, 들녘걷기, 찻잎따기 등 기본 프로그램 외에 이벤트성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을 다양한 산사체험으로 이끈다.

일감 스님은 "템플스테이 참가자 모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스스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화두를 받아 깨어있는 삶을 시작하게끔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일까? 금산사 템플스테이를 찾은 참가자들은 한번 다녀가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혹은 가족 · 주변 사람들과 다시 금산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금산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이 일감 스님과의 대화다. 참가자들이 일감 스님에게 평소 궁금했던 점과 고민거리를 물으면 명쾌한 설명으로 단박에 고민이 풀린다는 것.

일감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인 연기법적 입장에 충실하고, 자기 스스로를 내려놓고 타인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도록 권유할 뿐"이라며 겸손해 했다. 하지만 서먹했던 참가자도 스님과 말 몇마디 나누면 금새 마음을 열고 대중과 동화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전언이다.

일감 스님은 "급박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차분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 대안으로 템플스테이를 권했다.

스님은 "불교는 수행해서 꽃을 피우고, 수행을 통하여 바뀐 삶의 모습으로 깨달음의 향기를 주위에 전달한다"며 "결국 수행이 삶을 바꾼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 전북지사 : (063)910-5199

5월에 있는 木曜강좌

"선문촬요 (祖師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참선! 모르고 하면 어리석음만 짓습니다.

달마 祖師께서 "禪門"을 열어주는 길 "선문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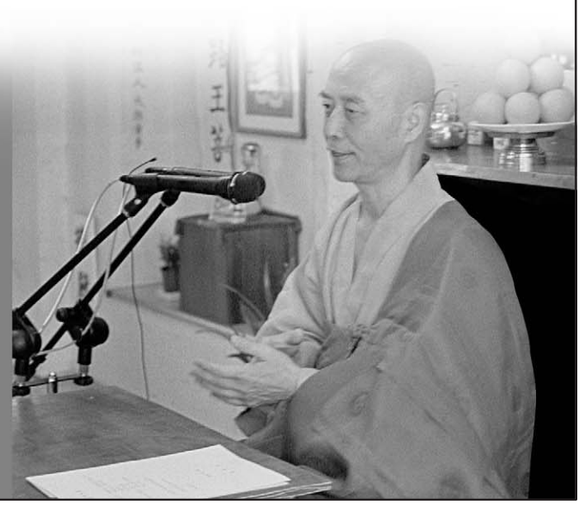
그냥 널려져 있는 불교는 약쳐방은 있으나
의사 없이 쓰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쓰면 오히려 불교로 사람을 묶어 놓습니다.

현대인들의 복잡한 생활은 스트레스로 묶여 있습니다.
禪은 우리 생활속에 있는 긴장을 풀게 합니다.

마음이 드러납니다... 밝아집니다.
묶여있는 의식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달마 스님께서 남기신... "혈맥론, 관심론, 사행론..."은
바로 그가 오신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문촬요"는 서산, 경허스님 등 모든 종사가 의지했던 서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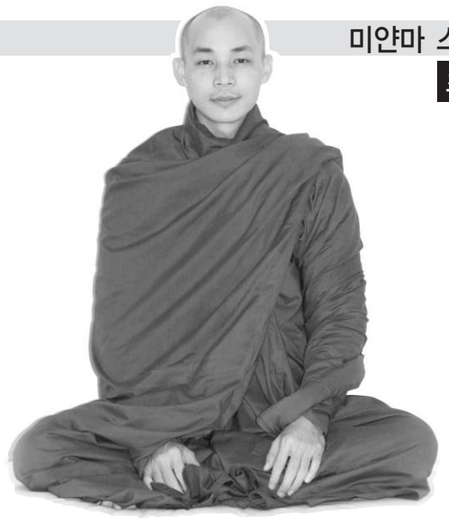


서울 六祖寺 현웅스님께서 직강설 합니다.

■ 일 시 : 시작 - 08년 5월 22일 (음력 4월 18일)
회향 - 08년 9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교재 주문 가능)
■ 동 참 비 : 4-5개월간 15만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16701-04-017439(예금주 육조사)
■ 육조사. Phone : 02)953-5291
※ 참가 대상은 信心있는 사부대중, 出在家者들은 다 入房할 수 있음.
※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주무시고 갈 수 있습니다.

미얀마 아신 빤딧짜 스님의
정통 위빠사나 수행 강의

미얀마 스님의 유창한 한국말로 강의



초보자도 알기 쉽게 위빠사나 수행강의

아신 빤딧짜 (Ashin Pandicca)

;미얀마, 샨도, 깔러 시 출생

1982년 첫번째 출가 (따웅 부 루 또야)
1988년 두번째 출가 (몽요아 시)
1990년 비구계 수계 (몽요아 시)
1990~92년 수행명상 센터 (2년간 있었음)
1993~96년 강원 (비저다요 강원 몽요아 시)
1997~99년 강사 (미아와디민지 강원 만달레이 시)
2000년 토굴 생활 (핀우륀 메이묘 시)
2001~현재 싼먀띠다 수행 센터 양곤 (주지)
지도자 법사 싼먀띠다 수행센터
2002년 다곤 대학 졸업
2005년 뻐터우 불교 센터 건립(불교/한국어)
2003~04년 해외포교대학원 졸업
2003~08년 조계사 청년회 법회 강의
2007년 광주 원각사, 제주 산방사 법회강의
2008년 ▷ 6월 1일 광주 원각사 법문
▷ 5월 1일 ~ 12일 제주 산방사 법문

■ 일 시 : 5월 14일(수)부터 (21일간)
■ 시 간 : 오후 2시 ~ 4시
■ 대 상 : 스님 및 재가불자 모두 동참 가능
■ 동참금 : 5만원
■ 장 소 : 대한불교 조계종 무주선원
(부산 지하철 3호선 숙등역 3번출구 바로 앞)
문의-(051) 334-8108

밝은마음, 밝은사회, 좋은세상
대한불교 조계종 무주선원 법/회/안/내
▶ 금강경 강 의 - 매주 목요일 오전10시~12시, 저녁7~9시
▶ 천수경 강 의 - 매주 화요일 오전10시~12시
▶ 초발심자경문 - 매주 수, 금요일 오전10시~12시

"석굴암, 조선 식민지배 수단"

강희정씨, 동악미술사학회서 주장

신라 천년 예술의 극치로 기하학적 완성을 보여준 석굴암(국보 제24호). 한민족의 자랑으로 1995년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석굴암이 한때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를 위한 수단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희정 서울대박물관 연구원은 4월 19일 동국대에서 열린 동악미술사학회(회장 윤범모) 월례발표회에서 '식민지 조선의 표상: 석굴암의 공론화'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석굴암의 '공론화'는 석굴암이 대중에 공개되고 조선 대표 문화재가 된 과정을 말한다.

강 연구원은 일본의 조선 고적 조사의 목적이 "합병 전에는 식민지 경영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고, 강점 후에는 효율적 식민지배 방편이었다"고 지적했다. 강희정 연구원은 "석굴암을 복원했던 것은 일본이 미개한 조선에 베푸는 시혜로 조선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며,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에 석굴암 사진을 보수 전(조선의 과거)과 보수 후(조선의 현재)로 함께 수록한 것을 예로 들었다.

강 연구원은 "총독부 주도의 석굴암 복원이 끝나자 석굴암 관광이 시작됐다. 석굴암 관광은 비문명의 조선과 달리 유적을 보호할 줄 아는 일본의 자랑이었다. 1930년 일본 황족이 석굴암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것을 강희정 연구원은 "당시 일본인들의 조선 관광은 일본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였던 셈"이라 해석했다.

하지만 석굴암 복원은 일제의 시도와는 달리 오히려 조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강 연구원의 주장이다. 1925년 10월 25일자, 11월 9일자 <조선일보> 등에는 '석굴암 불상은 국방의 수호신'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석굴암에서의 최남선 강연을 포함한 경주견학단 모집광고가 났다. 신문에서 최남선은 "토함산에 올라가니 홍예처럼 뚫린 굴이 나타나는데 이곳이 바로 나라의 자랑거리, 예술의 정수가 감춰진 곳"이라 평했다.

강희정 연구원은 "당시 평양, 금강산 등에 한정됐던 수학여행지가 보성고보, 대구 신명여중, 포항소학교 등에 의해 경주로 바뀌기 시작했다. 석굴암 등이 있는 경주로 수학여행을 계획했던 것은 민족 자긍심 고취를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강희정 연구원이 <조선고적도보>에 수록된 석굴암 복원 전 · 후 사진을 놓고 설명중이다.

1920년대 이후 전국 곳곳에서 빈번했던 영사회는 민족의 자의식 고취와 계몽운동적 성격이 짙었다. 영사회에서 석굴암은 첨성대, 돌거북, 봉덕사종, 다보탑과 함께 신라 5대 미술로 지정되는 등 석굴암은 민족 자긍심을 키우는 소재가 됐다.

한편 '사찰문화재가 국가나 국민의 것'이라는 인식은 일제 잔재라는 주장도 있었다. 강 연구원은 "일본 문부대승이던 구키 류이치(九鬼隆一)가 '사찰문화재는 국가나 국민의 것으로 박물관에 진열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 뒤, (불상 등) 사찰문화재는 신앙의 대상에서 미술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결사는 참여도 공동체 운동도 아니다

김호성 교수, 보조사상연구원 월례발표회서

보조지눌의 정혜결사, 원묘요세의 백련결사, 가깝게는 봉암사 결사 등 교단 개혁의지가 자정운동으로 발현된 결사가 반드시 참여를 뜻하는 것도 아니며, 공동체 운동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4월 19일 동국대에서 열린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 제80차 정기 월례학술대회에서 김호성 교수(동국대)는 '결사 개념의 재검토와 탄허의 결사운동'을 발표했다.

김 교수의 발표는 결사를 ▲수행운동 ▲개혁운동 ▲이념운동 ▲공동체운동의 성격으로 설명한 것부터 시작됐다. 그는 "특히 ▲개혁운동 ▲공동체운동의 사항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결사는 참여 속의 개혁이 아니라는 점과 반드시 공동체 운동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개혁세력인 진보가 정치화 · 권력화 돼 보수로 바뀌며 개혁의 주체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잦았다"고 지적하며, "정치화 · 권력화 등을 경계했다는 점에서 결사가 반드시 참여나 개혁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호성 교수는 <삼국유사>의 피은(避隱)과 동진(同塵)을 예로 들어 "피은이 산중에서 숨어사는 것이라면 동진은 사람들 속에서 숨어사는 것이다. 결사의 개혁성은 '참여 속의 개혁'이 아닌 교단의 반윤리적 상황에 대한 윤리적 대응과 윤리적 개혁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결사의 본질적 조건인 수행운동을 위해서라도 결사가 '참여 속의 개혁운동'일 수는 없었다"고 역설했다.

김호성 교수는 교단의 권력화를 경계한다는 의미에서 진일보해 "홀로 하는 것도 결사"라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그는 교단의 권력화 양상을 세속권력과 관계 맺거나 내적으로 교단 안에서 발생하는 권력 기제로 나눠, 사람들이 모이면 권력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호성 교수는 "붓다의 출가 자체가 권력을 넘어서는 일이었다"면서 "권력으로부터 살아남는 방법은 뭉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참다운 보살행을 위해 (붓다처럼) 무쇼의 뿔처럼 혼자서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는 연대하지 않는 각성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를 '홀로결사'로 표현하고 역경불사로 평가되던 탄허 스님의 수도원운동을 결사로 재평가했다.

김호성 교수는 "결사는 불교교단의 문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다. 직접 그 상황에 참여해 개혁하는 대신 그 상황으로부터 피은해 먼저 스스로 수행함으로써 장차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하는 일이다. 종단의 제도나 조직을 활용하지 않는 순수 민간, 재야 차원의 탈권력 · 탈정치를 지향함에 반드시 2인 이상의 모임이 아니어도 무방하다"고 재정의했다.

한편 '선사상과 심리치료'를 주제로 열렸던 이날 학술대회에는 이남경(동국대 강사)씨가 '심리치료를 위한 선과 인본주의 접근법 비교연구'를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사회자 김성철 교수, 발표자 김호성 교수, 논평자 김광식 교수, 홍사성 불교평론편집위원(왼쪽부터).

"법화삼매와 간화선은 같기도 다르기도 해"

학담 스님, 법화학천태학연구회서 강연

"깨달음만을 법칙으로 삼아 맛없고 뜻 없는 말귀를 봄으로써 본래 면목을 직하에 사무쳐 통달하는 간화선과 <법화경>에 의지한 법화삼매는 같은가, 다른가?"

4월 19일 동국대에서 열린 법화학천태학연구회(회장 리영자) 춘계 학술강연회에서 '법화삼매와 간화선'을 주제로 기조강연한 학담 스님(대승사 주지 · 사진)은 "간화선은 뜻과 이치가 끊긴 활구를 통해 무념을 증득해 가는 선법이지만 법화삼매는 바른 뜻과 이치를 세워 이치에 이치 없는 중도실상을 바로 살펴 삼매로 나간다는 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스님은 "간화선에서 의단을 끊어 뜻도 뜻 없음도 사라지는 순간과 법화삼매에서 뜻과 이치를 따라 '하나의 진실'을 사유해 삼매를 얻는 순간이 같다"며 "간화선과 법화삼매의 차별을 떠나 수행방법은 깨달음의 결과에 대한 인행의 성격을 지닌다"고 정의했다. 스님은 이 같은 논지를 남악 선사와 대혜 선사의 법화삼매 증득, 천태교와 선수행으로 나눠 설명했다.



한편 강연회에는 김선근 교수(동국대)가 '법화영험과 서사공덕' 민희식 교수(前 한양대)가 '법화경과 신약성서' 김성구 명예교수(이화여대)가 '사성제에 대한 과학적 고찰' 지창규 교수(동국대)가 '천태 대사와 원효 대사'를 강연했다. 강연회에 앞선 학술발표회에는 이승남(동국대 박사과정)씨 등이 천태학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운암 김성숙은 진보적 민족주의자"

한상도 교수, 운암 김성숙 학술회의서 발표

4월의 독립운동가로 운암 김성숙 선생(법명: 태허)이 지정된 것을 기념해 운암의 생애를 학술적으로 재조명하는 발표회가 열렸다. 4월 25일 서대문 독립관에서 열린 학술발표회에서 한상도 교수(건국대)는 '승려에서 임시정부 요인으로'란 발표를 통해 운암 김성숙 선생을 진보적 민족주의자라 평가했다.

한 교수는 "운암은 1916년 서간도로 망명하려다 양평 용문사에서 불교에 귀의해 태허라는 법명을 받았다. 1918년에는 경기 봉선사 월초스님 문하에서 불교교리를 배우며 근대사회과학에 눈떴다"고 말했다. 그는 "3 · 1운동 때 양주 · 포천 등지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다 체포됐던 운암이 옥중에서 사회주의사상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출고 후 베이징으로 망명해 의열단 및 한인 아나키스트들과 교류하며 진보적 근대정치사상을 섭렵했다"면서 1923년 10월 불교유학생회 조직 결성과 '상하이 문화계 구국운동 선언' 발표 등 행적을 소개했다.

한상도 교수는 "임시정부요인이었던 김성숙은 이승만 등 우익 편중 결집체에 대항해 좌 · 우익 대립을 지양하고 민족통일을 이뤄야한다고 주장했던 민족주의자였다"고 평가했다. 한 교수의 발표는 "신한당 · 신민당 등 4 · 19혁명 이후 정치활동에 동참했던 운암이었지만 1969년 운명할 때까지 혁신계 인사로 감시의 대상일 뿐이었다"면서 "1982년 뒤늦게나마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된 것은 다행"이라고 끝맺었다.

조동섭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우리 학회는 (14)금오사상연구소

5월 2일 현판식…조계종 정체성 연구 매진

한국불교 정화운동의 주역으로 일생을 간화선 수행과 두타행의 실천으로 살다간 선지식 금오 스님의 열반 40주기를 기념해 금오사상연구소가 5월 2일 설립된다.

금오 스님은 1912년 16세에 금강산 마하연 선원 출가 후 줄곧 계율 중심의 신조로 간화선 참학에 매진했던 수행자로 일본 강점기 창씨개명을 거부했던 민족주의 승려였다. 부종정과 감찰원장, 총무원장, 봉은사 · 법주사 등 주지를 역임했던 스님은 1954년 6월 24일 열렸던 승려대회 준비위원장이기도 했지만 그동안 한국불교정화운동사에서 소외돼 있었다는 것이 금오문중 스님들의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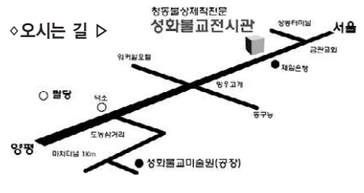
금오사상연구소 발족준비위원장 월서 스님은 "금오 스님의 참여로 한국불교 정화운동에서 승가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었다. 정화운동사에서 스님에 대한 역사성을 고증하고 간화선 실천행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불교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4월 22일 열린 조계종 유교법회와 25일 열린 경허 · 만공 학술회의 등 조계종 정체성 확립의 움직임이 금오 스님 사상 연구소 설립으로 이어져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금오사상연구소 현판식은 5월 2일 서울 내자동에서 열린다. (02) 919-0211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오시는 길 ▷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불상, 석탑, 석등 사찰공사 전문업체 일심석재
대한민국 석공예명장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등석 : 황등석은 색상이 아름답고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절분이 많고 쉽게 부식되는 중국산 수입 돌과는 차원이 다른, 석질이 우수한 익산에서만 생산되는 무절분 화강암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전화 063)836-0231 팩스 836-7527
011-673-7527


김옥수 석공예명장
•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제36호)
• 대한명인(06-122호)
• 現 일심석재/일심산업 대표이사
• 전국기능올림픽 석공예 2위
•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정사 공로패 수상
•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사상과정수료
• 대한광업진흥공사 석공예기능 훈련강사 역임
•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노동부장관 표창
• 대구기능대학교 명예교수
• 사)돌문화보존회 이사장
• 제9회 돌문화축제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블러그에 「김옥수」 또는 「일심석재」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일주문



도배물품 후원자 모집
의정부 송산노인복지회관 운영위원장 일면 스님은 지역 내 노인주거개선사업을 실시하며 도배물품 등을 후원해 줄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031)852-2595



신라고찰 중창불사 대법회 봉행
구미 문수사 주지 혜천 스님은 5월 4일 오후1시 자광 스님(직지사 전 주지)을 법사로 '신라고찰 중창불사' 대법회를 봉행한다. (054)471-3771



중국 문화 사절단 초청
대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장 돈관 스님은 5월 5일 오후 7시 중국 '사해보닝' 문화 사절단을 초청, 오페라 경극과 소림 무술사들의 공연을 개최한다. (053)792-1353



광주 법흥사 창작무용
광주 법흥사 우하 스님은 5월 8일 오후 7시 30분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전북 도립국악원 무용단원들과 함께 '범패소리와 창작 무용'을 선보인다. (062)945-2588



자비 경로잔치 개최
군산 흥천사 회주 지환 스님는 5월 3일 흥천사 앞 광장에서 '제10회 자비의 경로잔치'를 개최한다. (063)445-3769



제18대 불자국회의원 당선자 축하연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은 4월 30일 오전 11시 밀레니엄서울 힐튼 그랜드볼룸에서 제18대 불자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축하연을 연다. (02)732-7274

허균허난설헌 賞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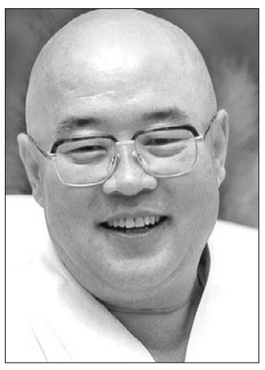
수필가 김대원씨

대한불교 전국산악인불자연합회 前 사무총장 김대원씨(사진 가운데)가 문단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다. 김씨는 3월 20일 '탐미문학상'을 수상한데 이어 4월 19일 제20회 '허균허난설헌 문학 · 문화예술상' 시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허균허난설헌 문학상'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소설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과 조선 최고의 여류시인 허난설헌의 문학과 예술, 그 업적과 뜻을 기리고자 제정된 권위 있는 문학상이다. **임연태 기자**

"효 문화원 기능할 병원 운영할 터"

안성에 파라밀 양 · 한방병원 개원하는 각현 스님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적으로 노인이 차별받는 시대를 맞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전통적 미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다 보니 이번에 병원을 개원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이 병원을 준공했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이 병원은 2003년부터 설립하고 있던 '효문화원'이 연꽃마을 의료법인을 통해 병원으로 모습을 바꾼 것. 5년 동안 제 모습을 찾지 못했던 건물이 이제 '파라밀 양 · 한방병원(이하 파라밀병원)'이라는 이름으로 5월 개원을 앞두게 됐다.

연면적 약 8211.6㎡에 지상 6층 20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 요양병원과 한방의원으로 설립된 파라밀병원은 진료과목으로 내과, 가정의학과, 외과, 한방과를 준비했다. 시설로는 입원실과 인공신장실, 터미널케어실(호스피스병실),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상담실, 재가노인복지센터, 실버용품 대여 · 판매점, 식당, 장례식장 등이 개설됐다. 특히 건물 6층에 약 231.4㎡ 규모로 아미타불을 모신 법당도 이미 조성됐다.

"다른 병원에 비해 법당을 크게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따로 설치해 공간을 제대로 확보, 이용률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스님은 법당을 통해 '효문화원'의 기능과 역할도 제대로 살릴 생각이다. 어린이청소년은 물론 3년 전부터 자매결연을 맺어온 일본 동양대학 학생들의 교환 연수 장소로 이용, 봉사 · 실습을 통해 사회 속에서 노인들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이다.

스님은 연꽃마을 이사장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 1700개 사회복지시설이 제대로 경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복지미래재단의 수장이기도 하다. 스님은 "바쁜 일이지만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보람도 많이 느낀다"고 말한다.

앞으로도 스님은 할 일이 많다. 당장은 연꽃마을에서 유료노인시설인 경주실버맨션을 올해 짓기로 건축 허가를 받아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현재 준공은 했지만 파라밀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이 도입돼야 하기에 스님은 마음이 바쁘다.

"이번 병원 설립은 어르신들이 한 번의 방문으로 필요한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원 스톱(one-stop) 서비스 체제를 완성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해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새로운 시설을 하나 설립하려 합니다. 항상 복지에서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호흡할 것"

개관 10주년 맞은 옥수복지관 관장 상덕 스님



"지난 10년 동안 하루하루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성동지역 주민분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서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온 지 벌써 10년. 4월 29일 옥수종합사회복지관 10주년 개관행사를 진행한 관장 상덕 스님은 지금까지 옥수복지관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 동안 상덕 스님은 옥수복지관을 맡아 그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역사회복지관을 한 해도 쉬지 않고 이끌어왔다. 스님은 복지관에서 노인, 어린이청소년, 장애인, 지역주민 등의 계층을 각각 만족시키는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애써왔다.

"옥수복지관은 지난 10년간 자립 · 안정 · 도약 · 발전기로 나눠 운영해왔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또 새로운 비전인 '3C계획'을 통해 더 좋은 복지서비스를 펼치고자 합니다."

스님이 말한 '3C계획'이란, '펀 해피(Fun-Happy)운영'의 일환으로 Client(대상자), Center(기관), Community(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을 말한다. 즉, 기관에서 책임의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대상자들의 욕구를 제때 파악해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주민, 기관이 조화되고 함께하는 기회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와 주민 · 기관의 관계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스님의 뜻이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전문 프로그램을 시행해 지역주민들의 행복을 창조하고 선도하는 중견복지관으로 다시 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성원해주셨던 분들이 넉넉한 도반으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김강진 기자**

현대불교 · 구독신청 (02)2004-8200

"체계적 포교사업 돕겠습니다"

종무행정 프로그램 개발한 전병규 대표



"부처님오신날이면 여러 사찰에 연등을 밝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탑스컴 전병규 대표가 웹 기반 종무행정 프로그램 '수비라'를 만들게 된 동기다. 사찰 곳곳을 찾아다니며 연등 접수를 하던 어머니를 대신해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없을까를 고민했던 것.

전 대표가 운영하는 탑스컴은 2000년 설립된 벤처 1세대 기업으로 주로 금융기관과 관공서용 프로젝트를 담당했었다. 하지만 가볍지 않은 불연에 불교 커뮤니티 사이트나 종무행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다.

탑스컴의 자랑은 '내 마음의 법당'이라는 찾아가는 이메일 법당 서비스와 국내 최초 웹기반 종무행정 프로그램 '수비라'다. '내 마음의 법당'은 별도의 클릭도 필요없이 이메일만 열면 사찰 법당이 눈앞에 펼쳐지는 서비스다. 이메일을 통해 법당 참배는 물론 핸드폰, 카드 등을 통해 시주도 할 수 있다. '수비라'는 기존의 종무행정 프로그램의 장점만을 모아 웹 기반에서 구현시킨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보안성이 뛰어나다.

탑스컴이 두 제품 모두 개발하는데만 각각 3년여가 걸렸고 비용은 3억여원 넘게 들었다.

현재 '내 마음의 법당', '수비라' 등을 운용하는 사찰은 통도사 수원포교당을 비롯해 50여곳 가까이 되며 입소문을 통해 점차 적용 사찰이 늘고 있다.

전 대표에게는 꿈이 있다. '내 마음의 법당'과 '수비라'를 운용하는 사찰을 불교마을(www.templevill.com)에 모아 불교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포교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사이버 불국토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전병규 대표는 "'수비라'에 대한 교계의 열렬한 호응에 불교마을이 사이버 불국토를 이룰 날이 머지 않았다"며 환한 미소를 띄웠다. **조동섭 기자**

전국 어린이연꽃노래잔치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송묵)는 4월 20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제20회 전국어린이연꽃노래잔치를 진행했다. 대상은 홍승운(12 · 제주불교 우담바라합창단 어린이가, 중 · 합창부문 최우수상은 부산 통도사 포교원 불지사어린이합창단이 수상했다. **김강진기자**

대각사 단청불사 회향식



울산 대각사(주지 대각)는 4월 20일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과 원효종 경북남교구종무원(종무원장 영운) 지역 스님 20여명 등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웅전 단청불사 회향식을 봉행했다. 이날 월운 스님은 "부처님 법을 바로 알아야만 인격과 순간순간 바른 판단력을 갖춰 진실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다"고 법문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난치병어린이돕기 3000배 정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은 4월 19~20일 서울 조계사에서 제8회 난치병어린이돕기 3000배 정진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과 삼선승가대 학인스님을 비롯한 800여 사부대중이 참가했다. **김강진 기자**

자비신행회 밥차 마련



광주 대표 신행단체인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을 위한 '십시일반 밥차'를 장만했다. '십시일반 밥차'는 전체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마련됐으며, 차량내부에 1000명분의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주 보각사 낙성법회 봉행



전주 보각사(주지 향산)는 4월 24일 태고종 승정원장 남파 스님을 증명법사로 사부대중 1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낙성법회 후 일승장학회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정읍 인상고교 학생 2명에게 각 120만원씩의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조동제전북지사장**

부모님께 사랑가득! 최고의 孝 선물

성인병(당뇨 · 고혈압) 예방

첫서리맞은 금강선원 뽕잎차

뽕나무는 신선목이라 하기도 하고 뽕잎은 한방명으로 신선엽(神仙葉)이라 합니다.
신선엽(神仙葉)은 뽕잎을 장복하면 신선이 된다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구증구포 뽕잎차의 특징

1.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10종이나 들어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좋습니다.
2. 혈관내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고 혈전을 용해시켜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3. 다이어트, 소화촉진, 관절통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4. 머리를 맑아지게 하며 흰머리가 검어지게 하며 탈모예방에 좋습니다.
5. 중풍(뇌졸중)을 예방해줍니다.
6. 중금속을 제거하는 효능이 탁월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합니다.
7. 식이섬유가 녹차의 4.7배가량이나 많아 변비에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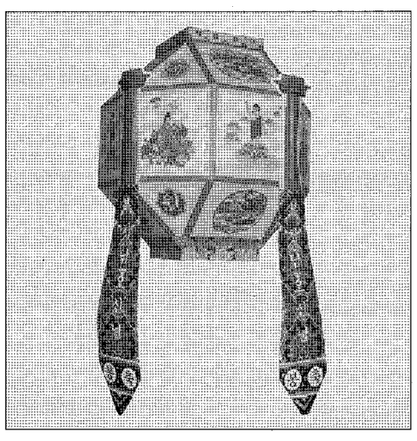


스님께서 아홉번 찌고 말린 금강선원 첫서리맞은 뽕잎차는 금강선원의 선원불사와 법당불사에 회향을 하오니 신심 있으신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www.ggzen.or.kr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뽕잎차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금 강 선 원
구입문의 : 055)931-9590
계좌번호 농협 843162-55-000050 금강선원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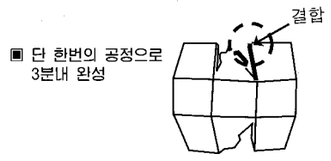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 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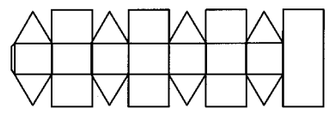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 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현우기획
전화:(043)877-6464 팩스:(043)877-8239 핸드폰:016-552-9360
(043)877-8236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주)국민피앤텍
▪농 협 415051-51-000057 예금주:(주)국민피앤텍

“불자 요양보호사 양성 적극 나서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두달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와 의료보험관리공단이 보호가 필요한 중증노인들을 앞으로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며 내 놓은 국가시책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불교계는 아직 이 제도 시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요양보호사 양성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요 사회 사업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란 노인요양시설에서 전반적 노인케어를 담당하면서 전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공인 자격자를 말한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요양보호사양성교육원에서 신입 기준으로 240시간(이론 80 · 실기 80 · 실습 8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1급을 취득할 수 있다. 국가공인자격임에도 학력 · 나이 제한이 없고 무시험이라 현재 40~50대 중반 여성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관심을 반영하듯 보건복지가족부 통계(2008년 3월 현재)에 따르면 전국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은 1070곳에 이르고 있다(서울은 121곳).

교육은 사회복지학과 간병 등의 이론, 인체모형 등을 통한 실기, 요양원 · 생활시설 실습으로 각각 진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요양보험수급 노인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키워낸다는 방침이다.

■ 불교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불교계에서는 서울 수효사와 여수 석천사에서 종단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립, 교육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 수효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효림원(원장 무구) 효림요양보호사교육원(이하 효림교육원)은 4월 18일자로 요양보호사 1급 자격 이수자 80명을 배출했다. 이들에 대한 자격증은 4월 24일 효림교육원에서 교부됐다.

올 2월 4일 개원한 효림교육원은 불교계 최초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기관으로 등록돼 있다. 현재는 사회복지사 ·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와 신입, 그리고 직장인과 주부 등으로 나눠 5개 분반을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효림교육원에서는 사회복지법인 효림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가정파견봉사센터 등이 추후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효림원은 내년 7월 준공될 서대문요양원을 수탁해 교육과 실습, 취직이 모두 연계될 수 있게 됐다.





서울 수효사는 4월 24일 효림원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배부했다(사진 위). 여수 석천사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립해 불자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효림원·보문복지회서 자격증 첫 발급

타종교 비해 교육시설 부족…관심 필요

효림교육원을 이끌고 있는 무구 스님은 “어떤 사람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받아 뭐하느냐고 하는데 국가자격이라 취득하는 성취감도 있고 봉사나 사회복지의 기본 생각 등을 배울 수 있어 여러모로 유용하다”면서 “이를 통해 각 가정에 있는 노인을 비롯한 가족을 돌볼 수 있고 자기자신의 케어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여수 석천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 보문요양보호사교육원(이하 보문교육원) 역시 현재 요양보호사 1급 자격수료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40명의 교육생들이 전라남도청으로부터 자격증이 송부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2월 12일 문을 연 보문교육원은 현재 신규의 경우 49명이 종일반과 야간반으로 나뉘어져 교육받고 있다.

보문복지회 김현옥 과장은 “앞으로 요양보호사 수요가 많을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역사회 주부들에게서 문의가 많다”며 “보문교육원 요양보호사 교육은 국가자격증 소지자 배출만이 아닌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무형의 자원인 마음의 씨앗을 제대로 심어주고자 하는 종교 본연의 의무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찰에서는 앞으로

요양보호사제도에 대해 사찰 또는 불교계기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교육실 문제로 타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재단을 비롯한 몇 개의 불교계 사찰 · 기관이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 설립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불자 요양보호사 양성은 불교사회복지의 위상을 높이고 불자들의 사회참여를 늘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이 분명하다. 불교계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립해 40대 이상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불자들이 아직 요양보호사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사찰과 종단기관의 꾸준한 홍보도 필요하다. 한 스님은 “현재 타종교에 비해 불교계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난립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역별로 거점을 두고 불교계에서 역량을 모아 제대로 된 양성기관을 세워 집중하는 편이 불교사회복지의 위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 요양보호사 제도, 이런 점은…

요양보호사 제도는 취지는 좋지만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제대로 알아둬야 요양보호사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낭패를 보지 않는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 부실 교육기관의 수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교육을 받은 것 처럼 서류를 꾸며주는 기관도 있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나 의료보험공단에서 교육기관을 철저히 점검해 시정해야 할 부분이다.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제도의 실질적 의미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해도 실습이 가능한 요양원이 부족한 것이 큰 문제”라 귀띔하며 “불교계에서 요양보호사 못지 않게 요양원 설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아직도 복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 인식돼 있다. 하지만 그것만 복지가 아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 행복하게 살아야 진정한 의미의 복지를 이룰 수 있다. 진각종 실상심인당에서 활발한 복지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는 문화주(53 · 사진)씨 역시 처음에는 보시금을 내는 것이 복지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그는 누구보다 폭넓게 ‘복지’를 바라보고 있다.

“가슴으로 복지행 펼칠 것”

⑳진각종 실상심인당 문화주씨

15년간 지역사회 위한 복지 실천

복지활동 통해 스스로 깨침 얻어



“저도 이제야 머리로 하는 복지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겨우 따뜻한 가슴으로 복지행을 펼치는 불자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벌써 15년째 서울 구로동 진각종 실상심인당에서 여러 가지 지역 복지를 펼쳐 온 문씨. 그러나 자신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다.

요즘 문씨는 ‘수업’을 진행하느라 바쁘다. 구로지역 거주 주부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독서지도를 하고 있다. 화요일에는 실상심인당에서, 금요일에는 심인당 인근의 꿈나무 어린이도서관에서 각각 수업을 하고 있다. 수업 대상은 저소득층, 일반인 등을 딱히 가리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국사, 세계사, 문학사로 범주를 나눠 여기에 대한 책을 선정해 가르친다. 문씨는 이 자리에서 교육노하우를 알려주기도 한다고. 그랬더니 엄마들 반응이 좋아 계속해서 수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다.

“이 지역이 소위 잘사는 동네는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독서 교육에 목말라 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면 아이도 책을 읽게 됩니다. 주부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이제 배워가서 독서지도도 할 수 있거든요.”

문씨는 여느 자원봉사자들과는 조금 달라 보인다. 그는 몸을 쓰는 일 보다는 주로 머리를 써서 봉사해왔다. 물론 실천력도 뒷받침 됐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해 온 것이다.

3년 전부터 문씨는 실상심인당 청소년들과 강릉지역 공부방 아이들을 연계해 방학 캠프를 열고 있다. 아이들끼리만 교류하면 어렵지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같이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보도록 만들면 어느새 친해진다고 한다.

“자꾸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얻는 게 많지요. 강릉 공부방 아이들이 실상심인당 아이들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성취감이 깊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성공만 한 것은 아니다. 몇 년 전에는 실상심인당에 ‘나눔가게’를 하나 열어 지역사회에서 재활용품을 순환시키고 그 수익금은 다시 저소득층에게 전달하는 사업을 실시했는데 ‘자원재활용’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게를 접을 수 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는 지역사회를 향한 복지행 실천을 멈추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다. 시행착오는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기 때문이다.

문씨는 도서관 수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 실상심인당에서 천연비누 만들기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중에서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천연비누를 좀 더 값싸게 공급하면서 주부들에게는 배움의 기쁨을 선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러가지 복지활동을 통해 저 스스로의 깨침이 된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복지행으로 바쁘면 수행이나 기도에 대한 마음도 함께 깊어집니다. 저는 이런 것이 고맙고 행복합니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불교지도자 대법회

일시 : 불기2552(2008)년 5월 6일(화)
장소 : 라마다송도호텔(컨벤션센터 2층)

■ 1부 _ 오후 5시 식전행사(축하공연)
■ 2부 _ 오후 6시 본 행 사(대법회)
■ 3부 _ 오후 7시 식후행사(중국의 세계문화유산 '사해보녕' 문화사절단)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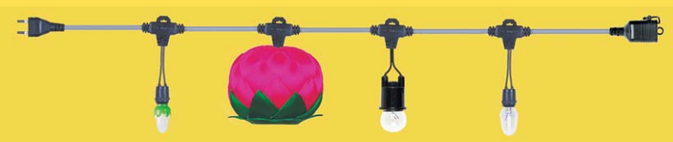
주최 : 인천불교총연합회 봉축위원회 032)330-5343
후원 : 인천광역시, 불교TV, 불교방송, 한국불교신문, 현대불교, 주간불교, 우리불교, 생활속의 불교, 사)팔관재보존회, 해동불교법음대학
협찬 : 라마다송도호텔, (주)영회기업



중국의 세계문화유산 '사해보녕' 문화사절단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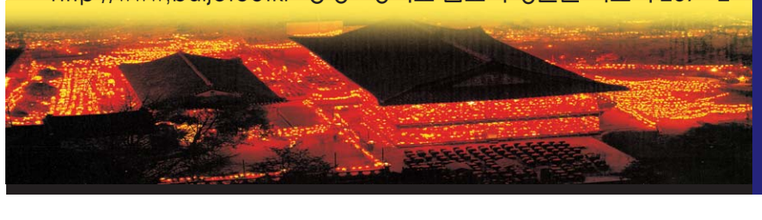
장엄용(법당) 전기초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그을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시간 조절 가능



SMD,LED전구 (국산정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 영가위패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참선수행 정신치유에 '효과'

해외불교칼럼



참선은 행복감과 집중력을 높이고 면역체계를 강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며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정신훈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참선이 정신신경질환 예방과 심리치료에 널리 활용된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제 참선은 현대의학의 주변을 겉도는 대체의학의 한계를 벗어나 정규의료시술권역으로 파고든다. 최근 영국 옥스퍼드대학 정신의학부의 마크 윌리엄즈 교수 등이 연구 개발하여 영국 전역에 성행 중인 참선 위주의 정각인지요법(正覺認知療法)은 국립건강보험의 정신신경과 정규처리항목이다. 이 요법은 우울증 등에 대한 기존치료방식인 인지행태요법과 약물치료에 참선의 비중을 증가 접목시킨 것이다.

즉, 8할의 참선과 2할의 인지치료를 병행하는 8주간의 집단치유코스다.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십대에 겪은 우울증이 다시 발작했던 캐롤 캐틀리는 이렇게 말한다. "제 경우엔 수차례의 심한 자살충동을 이 치유코스를 통해 극복하게 됐죠. 이젠 재발위험이 없다고 해요." 윌리엄즈 교수는 이 요법의 단순함을 강조한다. "이 코스의 취지는 환자의 당면문제를 교정하거나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매사를 그저 '있는 그대로 보는 법', 즉 담담한 관조의 방식을 지도할 뿐입니다. 모든 생각은 그저 생각일 따름입니다. 생각엔 긍정도 부정도 없고, 심지어 중립이란 것조차 없는 거죠." 그는 마치 반야심경을 아주 쉽게 풀어 말하는 듯하다. "생각 즉, 상념(想念)은 누구에게든 어쩔 수 없이 떠오르죠. 그러나 그걸 굳이 가르고 헤아리는 판단(判斷)은 그만 두자는 겁니다." 문득 기독교의 발생이전, 그리스의 숱한 철학적 변설들 가운데 판단중지(epoche)란 낱말이 떠오른다.

기독교적 심판논리와 양분사고에 자신도 모르게 시달려온 현대 서구인의 정신치유에 고대 그리스의 '에포케'가 재활용 처방되는 묘한 아이러니다. "저는 이 요법을 우울증이 현재 진행되는 환자보다는 과거 3회 이상 우울증이 발작했던 환자에게 주로 권합니다. 집단요법의 결과 우울증 재발률이 5할 이상 감소하지만, 추가적인 임상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요법은 식이요법, 운동 등과 함께 실시되므로 참선이 만병통치란 속단 역시 피해야 합니다." 서구의 과학계에선 참선을 범죄충동의 예방, 약물남용의 부작용과 후유증의 치료에도 확대 응용하고자 연구 중이다. 참선은 그 수행방식과 형태가 매우 다양하여 불교식 참선, 요가명상, 탄트라명상, 참선정각명상, 초월명상 등등 이내 헤아릴 수조차 없다.

특정한 주제나 목표에 집중하는 고도의 정신수행인 참선은 역사적으로 종교 등 영성적 행위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일련의 주문 등을 반복염송하거나 호흡을 조절하며, 때론 단순히 자신의 존재만을 깨닫기도 한다. 참선은 더욱 행복한 삶과 효율적인 집중을 도울뿐더러, 기관지천식 완화, 임신율의 상승, 피부노화의 억제효과 등 전반적인 면역체계를 강화시킨다. 미국 보스턴의 사라 레자 박사는 수년간 참선을 수행한 그룹과 전혀 참선을 한 적이 없는 그룹의 두뇌들을 MRI 스캐닝으로 비교 분석한 끝에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감정전이가 이뤄지는 일부 두뇌조직 및 두뇌외피 특정부분의 두께가 두 그룹 간에 서로 달랐다. 이는 참선수행이 두뇌구조의 변화까지 유발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불교 승려들의 참선에 관해 수년 동안 연구해온 미국 위스콘신의 리처드 데이비드 박사는 단언한다. "참선은 행복감과 집중력을 높인다. 특히 그 행복감과 집중력을 지속 발전시키기에 적합한 두뇌구조로 변화도 유도한다."

그는 사무직원그룹에 스트레스감소기법을 겸한 참선과정을 실시했다.

그리고 그 전후의 두뇌기능을 비교한 결과, 뚜렷한 변화를 확인했다. 그가 주장한바, 행복과 열정의 특성과 연관된 좌측 두뇌의 기능이 단연 활발해진 것이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3월 31일 영국의 BBC 제2방송은 '참선, 대체요법인가?'란 심야특집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출처: BBC, Mindfulness Based Cognitive Therapy (MBCT)/ 편역: 성휴 스님

"불교란 바른 삶을 찾아가는 길"

월드 스타 불심도 스타 스티븐 시걸 ❷

미국의 CNN 프로그램 중 '래리 킹 라이브'는 1985년 시작된 이래 매일 밤 백만 명 이상이 시청하는 인기정상의 토크쇼다. 액션스타, 영화제작자 및 감독, 대본작가, 그리고 무술인, 작곡가 겸 가수, 동물보호 및 환경운동가 등 호칭들이 줄줄이 따라붙는 신장 193cm의 거구 스티븐 시걸 도반은 오래전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다.

"아마도 저는 영적 의식을 지니고 태어났나 봐요. 지금껏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아오면서도 전 늘 제가 가야할 길이 뭔지 생각해왔어요." 그는 1951년 미시건 주 랜싱턴에서 고교 수학교사인 유태계 아버지와 응급실 의료기사이자 가톨릭신자인 아일랜드계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그리고 5살 때 캘리포니아의 플러톤으로 이사하여 거기서 자랐다.

"저는 대개의 미국 애들이 그렇듯 자연스레 기독교적 환경 속에서 지냈죠." 그는 7살 때 일본 무술인 가라데의 고수이자 작가인 일본계 후미오 데무라의 후견으로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의 합기도 도장에서 역시 일본계인 해리 이시사카 사범의 지도로 처음 동양무술과 접하면서 불교적 환경 속으로 서서히 접어든다. 그럼 다시 래리 킹 쇼에서 그가 한 말을 들어보자.

"그런데 저로선 참 이상한 점이 있더군요. 불교에선 붓다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소리 같은 걸 전혀 안하는 거예요. 게다가 카톨릭신자든 개신교신자든 자신이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나 불교철학을 익히고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불교서적들도 보고 불자들과 어울리면서 차차 깨닫게 됐어요. 아, 불교란 종교라기보다는 바른 삶을 찾아가는 곧은 길이로구나! 남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로선 제 삶을 어찌 살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죠. 예수나 무함마드를 기리며 묵상을 하든 지고지순한 불법의 지혜를 얻고자 참선을 하든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항상 명상의 요소가 내재해요. 그게 제 생각이자 또한 불자가 된 까닭입니다."

그는 주로 폭력물에 등장하는 액션스타다. '할리우드의 아르하트(阿羅漢)'라 할 스티븐 시걸 도반이 출연하는 영상작품들은 대체로 영적 요소와 생태보존 등 공생공존의 분위기, 그리고 동양적 권선징악(勸善懲惡)의 도덕규범을 지니고 있다. 그는 미국 태생의 전형적인 서구인이지만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동양적 환경에서 보냈다. 그 기간은 초기인격형성기이자 또 하나의 성장단계다.

즉, 사회적응력이 아직 미숙한 청소년이 집과 가족이란 안온한 둥지에서 벗어나려 꿈틀대는 이소본능(離巢本能)이 발달하는 시기다. 바꿔 말해서, 어느덧 답답해진 가정이란 틀을 뛰쳐나가고픈 이탈충동(離脫衝動), 그래서 때론 이유 없는 반항(Rebel Without a Cause)의 거친 계절이기도 하다. 바로 그런 시점인 17세 되던 해 이미 합기도 공인 초단이었던 그는 일본으로 무술 유학을 떠난다. 성깔도 있고 덩치도 있어 자칫 '문제아'가 될 수도 있었던 시기에 참 좋은 인연이 맺어진 것이다.

이른바 '청소년문제'의 대부분은 보모를 포함한 기성세대가 청소년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규범을 설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강요함으로써 생겨난다. 즉, 기성세대가 청소년을 자신들의 뜻대로 편하고 쉽게 다루고자 틀을 만들고 또 그 안에 줄곧 가둬두고자 무지하고 무모한 시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이제 본격적으로 인지 및 분별력이 발달해가는 청소년과 충돌하게 마련이다.

그 과정을 동양에선 사춘기(思春期), 서구에선 다루기 난처한 시기(awkward age)라 말한다. 피할 수 없는 그 과도기를 현명하게 통과하도록 돕는 극히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극기(克己)와 인내(忍耐),그리고 엄격한 규율과 절도를 강조하는 동양무도다. 청소년기에 이른 시티븐 시걸도 반은 동양무도의 수련에 정진함으로써 심신단련과 예절교육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균형시각과 원융공존의 가치관을 지니게 된다. 성휴 스님

"일본 最古사찰, 부여 왕흥사가 원형"

아사히신문 보도

4월 17일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보도를 통해, 백제 출신의 조사공(造寺工), 화공 등 전문가들이 백제의 멸망과 함께 사라진 부여의 왕흥사(王興寺)를 원형으로 하여 일본의 최고(最古) 사찰인 나라의 아스카데라(飛鳥寺)를 건축했음을 확인했다.

왕흥사는 백제의 위덕왕이 한 왕자의 영혼을 천도하고자 새운 대가람으로, 그 폐허에서 출토된 예술품들에 대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의 탄소연대측정 결과, 건축 일자가 577년 2월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593년 1월 15일에 거행된 아스카데라의 여래진신사리탑 봉안식에는 백제의 복식을 착용한 백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아스카데라의 창건 초기에는 불교에 생소한 일본인들을 위해 두 명의 백제 고승이 승정원장을 역임했다. 출처: ABI

MIT 불교학생회 다양한 전법활동

스탠포드, 버클리, 하버드와 함께 미국에서 가장 활동적인 대학교불교서클 중 하나인 MIT 공대의 프라즈노파야 불교학생회는 대전법의 달 4월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4월15~16일에는 '자아상실에 관한 두뇌해부학적 접근'을 주제로 제임스 오스틴박사의 특강 및 자유토론, 또 15, 23, 30일에는 MIT 교수, 임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데니얼 콜만, 로버트 서먼 교수 등 저명한 불교석학들의 오디오, 비디오 강좌가 펼쳐졌다. 출처: MIT PNE

ABC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Everything in my shop is the best!

So, don't try to divide and judge!

내 가게에 있는 건 모두가 최고지요.

가르고 분별하려 들지 마세요.

Despite many years of harsh practice, a monk had failed to reach the enlightenment. While roaming around a market in despair, he overheard some talks between a butcher and customer. "Give me the best piece of meat you have! What's the best one?" asked the customer. "Everything in my shop is the best! So, don't try to divide and judge!" replied the butcher. At these words, the monk immediately got enlightened.

오랜 세월 동안 고달픈 수행에도 불구하고 깨우침에 이르지 못한 스님이 있었다. 크게 낙심하며 시장 통을 어슬렁대던 그의 귀에 푸줏간 주인과 손님이 나누는 얘기가 들려왔다. 손님이 물었다. "이 가게에 있는 고기 덩이 중 어느 게 제일 좋아요? 그걸로 한 덩이 주세요." 푸줏간 주인이 대답했다. "내 가게에 있는 건 모두가 최고지요. 가르고 분별하려 들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스님은 그 자리에서 큰 깨우침을 얻었다. 번안: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봉 대한불교법상종 수락산 아미타 기도도량 천문사 행

극락보전 낙성 및 아미타불 점안 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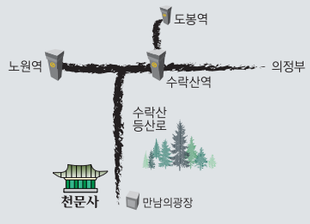
모시는 글

수락산 아미타 기도도량 천문사가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불사를 원만 회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공덕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자비로운 5월에 원만 회향을 축하하는 극락보전 낙성 및 아미타불 점안 대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무루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천문사 주지 진성 합장

법회안내

- 일시 : 불기 2552(2008)년 5월 3일(음, 3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천문사 극락보전 (서울 노원구 상계 1동 1000-7번지)
- 문의 : 02)936-9736 / 011-307-3130



대한불교법상종 수락산 아미타 기도도량 천문사



박재완 기자의
사찰풍경

통도사의 봄,
꽃과 연등과 새 잎은 어찌 저리 고울까?

통도사의 봄 길을 걷는다.
봄이라고 하기엔 미안할 만큼 벌써 도량엔 녹엽이 짙게 드리우기 시작했고
곳곳엔 연등이 걸렸다.
통도사의 봄,
꽃과 연등과 새 잎은 어찌 저리 고울까?

물오른 녹엽 위로 봄볕이 얹히고 흘러내린 봄볕을 따라
스님 두 분이 정겹게 걷는다.
자연과 시절이 빚어낸 풍경은 침묵만으로 많은 이야기를 한다.
저기 멀리 보이는 두 스님도 풍경이 빚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다름 아닌 '인연'이 아닐까.
먼 곳에서 시작된 한줌 빛이 봄볕으로 통도사에 닿고
그 빛으로 또 다시 녹엽은 피어났다.
시절은 시절대로 자연은 자연대로 날줄과 씨줄처럼 만나 지금 이 순간의 풍경을 만든다.
우리 살아가는 모습 역시 인연의 풍경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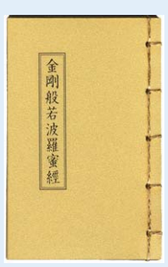
일주문을 따라 오색 연등이 걸리고
마당엔 시선 닿는 곳마다 꽃을 피운 나무들이 단아하게
도량의 품위를 지키고 서있다.
통도사는 신라의 자장이 당나라에서 돌아와 창건한 절로서
이때 부처의 진신사리를 금강계단에 봉안한 불보사찰(佛寶寺刹)이다.
그런 이유로
대웅전 안에는 불상이 없고 법당의 모습도 다른 절과는 많이 다르다.
법당 외부 사면에는 각각 다른 이름의 편액이 걸려있다.
동쪽은 대웅전, 서쪽은 대방광전, 남쪽은 금강계단, 북쪽은 적멸보궁이다.

대웅전 창살문 앞에도 분홍 연등이 걸렸다.
이제 열흘 남짓이면 부처님오신날이다.
매년 오는 봄이지만
그 때 마다 인연이 다르고 마음은 설레듯
매년 부처님오신날마다 우리는 다른 풍경으로 서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저러나, 꽃과 연등과 새 잎은 어찌 저리 고울까?

양산 통도사=글/사진 · 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봄의 한 가운데 있는 통도사. 일주문을 따라
곱게 연등이 걸리고 담장위로는 화사한 봄꽃이,
대웅전 앞엔 분홍 연등이 걸려있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 상 불 소 영
장 량 장 가 천
의 식 사 용 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
메훔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창작뮤지컬 '플라워' '오세암' 연극 '나생문'

무대 위에 펼쳐지는 佛法의 향연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소재로 하는 뮤지컬과 연극으로 공연예술계가 풍성하다. 싱그러운 5월 젊음의 문화공간에서 펼쳐지는 부처님의 가르침 한 마당을 법당으로 삼아보면 어떨까.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기승전결로 사랑하며 갈등하는 주연 배우일 테니까 말이다.대학로 김동수플레이하우스에서는 뮤지컬 '플라워(flower)'가 4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연장 공연에 들어갔다. 중앙대학교 아트센터에서는 바라오페라단이 '오세암(五歲庵)'을 5월 2일과 3일 이틀간 공연한다.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에서는 구로자와아키라 감독의 영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생문(羅生門)'이 5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연극으로 재구성돼 관객을 만난다.







왼쪽부터 창작뮤지컬 '플라워' 공연, 창작뮤지컬 '오세암' 공연, 연극 '나생문' 공연 중에서.

#내게 있는 집착 내려놓기 창작뮤지컬 '플라워'

1971년 창단된 극단 맥토의 작품이다. 인생의 낙오자로 대표되는 이 시대의 비주류들이 주인공이다. 한 때 잘 나가던 미아리 나이트클럽 사장, 전직 몰락한 사이비 교주, 가난이 싫어 가출한 언어 장애우, 어린 시절 천재 소년으로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던 청년 금동이, 공양간의 박 보살 그리고 엄마를 잃은 아홉 살 지혜가 인적 드문 천화사(天花寺)에서 만난다. 선(禪) 수행중인 연공 스님은 이들이 못마땅하기만 하다. 주지스님은 인자한 너털웃음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다. 그들은 천화사에서 기적을 이뤄 줄 한 송이 꽃을 찾고자 하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그 각오는 퇴색되어 간다. 낙오자들의 도피처인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수행자의 요람인가. 기구한 운명을 탓하기만 하는 이들 앞에 어린 지혜의 실종사건이 발생한다. 불협화음이던 모두가 서로에게 솔직해지면서 한 마음이 되어 간다.

주지스님은 선종2조 혜가 스님과 제자 승찬 스님의 죄와 참회에 대한 문둥병 이야기를 들려준다.

내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나는 과거의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가. 모든 것은 본래 스스로 그러하다는 것을, 나 역시 자연인 것을 알아가게 된다. 이외에도 해와 바람이 친구가 되는 동화와, 달마 대사와 혜가 스님의 마음에 관한 대화를 빌어 그들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기적의 꽃을 이미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너와 내가 투영되고, 서로를 비추는 참 인생을 노래하는, 인생 3막이 시작된다. (02)2238-0903

#아! 어머니 그리고 관세음보살님 '오세암'

봉축 전야음악제로 무대에 오른다. 지난 수년간 서울 경기 지역 불교합창단을 이끌며 찬불가를 통한 포교에 앞장서온 관음회합창단과 불교계 유일의 바라 오페라단의 앙상블이다.

해안 포구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 사는 감이네 집에 세암이가 태어났다. 병고로 아빠는 가족의 곁을 떠나고 뒤이어 집에 불이나 엄마도 잃게 된다. 부모를 잃은 두 아이를 설정 스님은 절로 데려오고, 마등령 고개턱에 자리 한 관음암에 개구쟁이 세암이와 함께 오른다. 관음암에서 놀다 지친 세암이는 관세음보살 탱화를 발견하고 탱화 속 보살상을 엄마라 부르며 지극정성을 다한다. 설정 스님이 겨우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잠시 내려 간 사이 마등령에는 폭설이 내린다. 이듬해 눈이 녹아 산에 오르니 죽은 줄로만 여겼던 세암이는 부처가 되어있었고, 탱화 속 관세음보살이 눈을 뜬다.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설악산 만경대 아래에 있는 암자 오세암에 얽힌 관음 설화를 뮤지컬로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전체 3막 9장으로 구성됐다. 교과서에 실려 있어 우리에게 익숙한 정채봉 작가의 단편동화 '오세암'은 2003년 성백엽 감독에 의해 75분의 애니메이션으로도 선보였던 작품이다. 이번 뮤지컬의 연출을 맡은 안병길((사)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씨는 불교음악의 지휘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자연스럽게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아로새기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무)010-4654-9369

#유식학으로 재보는 진실과 거짓의 '간격' '나생문'

인간의 본성에 물음을 던진다. 한 가지 사건에 관하여 각각의 인물들이 털어놓는 엇갈린 진술을 통해 '사람 사이에 신념은 어떤 잣대를 두어야 하는가, 사람 사이의 믿음과 신뢰를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 한가'를 묻는 문제극이다.

'나생문'은 아쿠타가와류노스께의 소설로 구로자와아키라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어 1951년 베니스 영화제 그랑프리 등을 수상한 고전 영화이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나생문의 성문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기 위해 모여 앉은 나무꾼과 스님 그리고 지나가던 행인. 이들은 그 날 벌어진 괴이한 살인사건 재판의 증인이다. 산적 타조마루가 사무라이를 죽이고 그의 부인을 강간한 사건에 대해 각자 다른 진실을 진술하면서 갈등은 점차 고조된다. 엇갈진 진술 속에 '과연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 하는가' 관객은 스스로 고민하게 된다. 하나의 진실을 바라보는 상분(相分)에 대한 견분(見分)으로 불교의 유식학(唯識學)적 접근을 통해 관람한다면 극을 더욱 실감나게 즐길 수 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상의 나생문을 오고 가고 있을까. 상반된 진실 혹은 거짓의 퍼즐 속에서 왜곡된 기억에 의존하며 진실이라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들은 왜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가. 구로자와아키라 감독의 말처럼, '이기주의는 인간이 날 때부터 지니고 있던 죄악'인 것일까? (02)556-5910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플라워	오세암	나생문
공연기간	4월 26일 ~ 5월 25일	5월 2일 ~3일	5월 9일 ~ 6월 29일
공연장소	김동수 플레이하우스	중앙대학교 아트센터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공연시간	평일 오후 8시 토 · 일 · 공휴일 오후4시 • 7시 (월요일 공연없음)	오후 7시 30분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3시 • 6시 5/12 석가탄신일 오후 5시 6/6 현충일 오후3시 • 6시 (월요일 & 5/13 공연없음)
티켓가격	전석 3만원 불교 • 기독교 • 천주교신자 20% 할인	무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37 말린다래순 볶음나물



수액, 피로회복 항암효과 신장염 약효
열매 숙성하면 단맛과 신맛 어우러져

<동의보감>에 의하면 다래나물은 '심한 갈증과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는 것을 멎게 하고 결석치료와 장을 튼튼하게 하며 열기에 막힌 증상과 토하는 것을 치료'한다고 기술되어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식용과 약용 등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어린순은 그늘에 말려 묵나물로 이용합니다. 특히 수액은 민간요법으로 피로회복, 항암효과, 신장염 등 다양한 약효가 있습니다. 곡우를 지나 나무의 생리 활동이 왕성한 봄이 되면 다래나무에 상처를 내어 수액을 받아 마시는 관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래는 다래나무과의 낙엽활엽 덩굴나무로 길이는 7m 정도이며 줄기의 골속은 갈색으로 계단모양으로 층이 져 있습니다. 어린 가지에 잔털이 있고 껍질눈이 뚜렷합니다. 잎은 어긋나며 타원형이고 가장자리에 날카롭고 가는 톱니가 있으며 잎겨드랑이에만 갈색의 털이 나 있습니다. 잎자루에는 누운 털이 있고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취산꽃차례는 털이 없으며 잎자루보다 짧습니다. 꽃은 암꽃과 수꽃이 따로 5월에 흰색으로 피고 3~10개의 꽃이 달립니다. 수꽃에는 많은 수술이 있고, 암꽃에는 1개의 암술만이 있으며 암술 끝은 여러 갈래로 갈라진 모양입니다. 열매는 달걀형으로 10월에 황록색으로 익어 식용합니다. 한국 · 일본 · 중국(둥베이) · 우수리 등지에 분포합니다.

다래는 열매를 따서 숙성시켜 먹으면 단맛과 신맛이 어우러져 맛이 좋습니다. 또한 숙성시키지 말고 그대로 말려서 약재로 이용하는데 약명은 미후도입니다 봄철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다래 순을 따서 삶아 말렸다가 묵나물로 먹습니다. 부드러운 감칠맛이 어느 산나물보다 맛있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고 생으로 데쳐서 바로 나물을 무쳐먹으면 아린 맛도 나거니와 미끄러운 진액이 나와서 맛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말린다래순 볶음나물

재료: 다래순, 들기름, 깨소금, 간장

만드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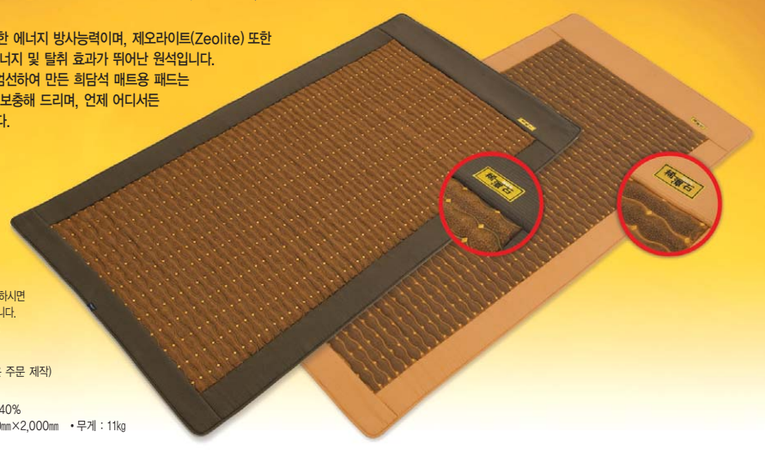
① 말려둔 다래순에 물을 넉넉히 붓고 소금을 넣어 삶는다.
② 물이 식을 때까지 그대로 2-3시간 두면 부드럽게 불어 부드러워진다.
③ 다래순을 건져서 물기를 꽉 짜고 간장 깨소금을 넣는다.
④ 간과 양념이 잘 스며들도록 무친 다음 뜨거운 후라이팬에 들기름을 두른다.
⑤ 양념된 다래순을 넣고 잘 볶아 완성한다.
볶을 때 너무 습기가 없으면 부드러운 맛도 없어지니 주의한다.

稀潭石 희담석

www.jawonet.com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계절,
생명에너지가 방사되는 희담석 제품이 좋습니다."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이며, 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매트용 패드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맥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사용방법
돌침대, 매트리스, 전기매트, 요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희담석의 에너지가 고객님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 (뒷면의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희담석 매트용 패드
●1인용 : 35만원 ●2인용 : 60만원 (2인용은 주문 제작)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60%, 제오라이트(Zeolite) 40%
• 겉재질 : 모노망사, 황토면 • 크기 : 1,000㎜×2,000㎜ • 무게 : 11kg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 희담석 방석

희담석 방석
●가 격 : 45,000원
●크 기 : 4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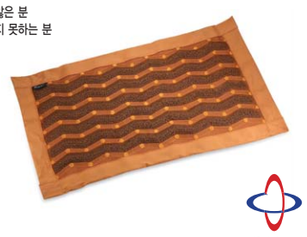


사용처
좌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 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익합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습니다.)

희담석 에너지가 숙면을 도와주는 - 희담석 베개용 패드

-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은 분
-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 등

희담석 베개용 패드
●가 격 : 25,000원



사용방법
베개위에 올려놓거나 베개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올린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함. (뒷면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호 금구빌딩 B103호
TEL:(02)3476-2335 FAX:(02)3476-2505

제품문의 011-9230-2335

소원성취 원불봉안

천불전에 백옥 원불을 봉안하시어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수불사에서는 원불을 봉안하는 모든 불자님들이 반드시
소원을 성취하도록 매일 정성껏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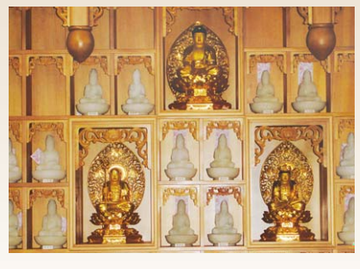
- 자녀들의 입시 합격발원
-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발원
- 공무원시험 합격발원
- 입사, 취직, 승진시험 합격발원
- 사업성공 발원
- 건강발원
- 조상 영가 극락왕생 발원

수불사 주지 해광스님 집전으로 매일매일 지극정성
기도발원하여 꼭 소원성취하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불봉안불자는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비결], [불가비의]
[속을 보이는 사람들] 저자인 해광스님을 친견하여
운명상담을 받고, 성취하는 기도법과 모든 필요한 방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불사 · 금강불교대학

☎ 032)665-8472 (카페: 다음[해광스님]) • 주소: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33-7
1. 외곽순환도로 중동 IC 라일락마을 앞
2.상동신도시 사거리 비잔티움 뒤 상 3동 사무소,119소방센타 맞은 편





옥불제작 : 옥예원 011-347-0085

지혜 바탕으로 한 연기법의 종교 탄생하다





함께가요~ 강의실로!

'부처님오신날' 기념 대중강좌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 ④

부처님 일대기를 통해서 배우는 불자 신행

'고타마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불교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다. 고타마붓다의 성도(成道, sambodhi, Abhi-sambodhi)는 불교의 탄생을 의미함과 동시에 불교적으로 붓다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오늘 강의 주제는 고타마붓다의 출가수행 이후의 성도기다. 강의를 맡은 이태승 교수는 일본 고마자와대학(駒澤大學)에서 대승불교 중관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저 및 저서로는 〈실담자기와 망월사본 진언집 연구〉 〈을유불교산책 —깨달음에서 지혜로〉 〈인도철학산책〉 등이 있다.

강사 : 이태승(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부 교수)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일시 : 2008년 4월 23일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불교적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한국불교에서는 깨달음을 매우 강조합니다. 사실 깨달음이란 말 자체는 상당히 모호합니다. 의미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자들은 불교를 이야기할 때 무조건 '깨달음의 종교'라고 정의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붓다의 정각체험을 깨달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불교를 칭할 때는 깨달음의 질적인 의미인 '지혜'란 말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불교는 지혜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지혜는 '연기(緣起)적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을유문화산책-깨달음의 지혜로〉 서문에 쓴 글을 소개합니다.

'불교는 지혜의 종교이다. 지혜란 연기에 대한 체득을 바탕으로 생겨난 삶의 통찰력과 합리적 실천 능력이다. 모든 번뇌를 떠나 지혜를 얻은 부처님은 이타행과 자비행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로의 법을 주었다. 부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중생에서 부처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곧 정신과 마음의 자기변화이다. 이것을 수행이라 이름하며 부처님의 정신과 마음을 닮는 것이다.'

대승에서는 왜 처음부터 반야를 강조했을까요. 불교의 합리적 지혜라고 하는 반야바라밀(PrajnaParamita)의 핵심이 바로 연기입니다. 이것은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붓다의 성도가 없었다면 오늘의 불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인도에서 동양으로 전개된 불교는 여과되고 습합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교의 보편성을 알기에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붓다께서 살아 계셨던 인도 당시로 최대한 접근해 보고자합니다. 불교는 또한 신앙적인 부분과 동시에 철학적인 부분으로도 상당히 심오합니다. 붓다 당시 이미 인도에 '자아(我)'라는 개념이 있었기에 불교의 '무아(無我)' 개념이 나올 수 있었다는 관계성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불교가 나오기 전 인도는 베다와 우파니샤드라는 문화적 기반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상 속에서 불교는 '我'를 바로 앎으로서 해탈에 이르는 수행을 제시했습니다. 절대적인 것에 대한 의존이라는 인도의 보편적 이념 속에서 고타마붓다의 고민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의 진리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의 토론이 공존했던 사회 구조를 지닌 인도였습니다.

저는 고타마붓다가 연기법에 의해 성도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완전한 행복, 윤회로부터의 해탈인 성도는 불교의 근본 지향이 됩니다. 인간의 사유를 벗어나지 않는 연기적 성도에 대한 근거로 근본경전인 남전대장경 〈율장(律藏)〉의 대품(大品)을 살펴보겠습니다. 붓다는 우루벨라 마을 네란자라 강 옆의 보리수 아래에서 7일간 7그루의 나무를 옮겨가며 49일간 법락(法樂)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1의 7일에 순역(順逆)의 순서에 따라 연기를 생각하심과, 제3의 7일에 무찰린다 용왕의 엄호, 제5의 7일에 이루어진 범천의 권청 부분에 주목합니다.

제1의 7일.

'세존은 그날 밤 초야(初夜)에 연기를 순역의 순서에 따라 생각하셨다. 무명(無明)에 연(緣)하여 행(行)이, 행에 연하여 식(識)이, 식에 연하여 명색(名色)이, 명색에 연하여 육처(六處)가, 육처에 연하여 촉(觸)이, 촉에 연하여 수(受)가 있고, 수에 연하여 애(愛)가, 애에 연하여 취(取)가, 취에 연하여 유(有)가, 유에 연하여 생(生)이, 생에 연하여 노(老)·사(死)·수(愁)·비(悲)·고(苦)·우(憂)·뇌(惱)가 생긴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고온(苦蘊)이 생겨난다. 그렇지만 환멸연기로서 무명이 남김없이 소멸되면 모든 고온이 소멸한다.' 고타마붓다는 자송(自頌)의 게를 외우셨습니다. '노력하여 깊이 생각하는 바라문에게, 갖가지 이로운 법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의 의혹은 모두 사라진다. 원인이 되는 이치를 확실하게 아는 까닭이다. 연이 소멸하는 이치를 아는 까닭이다. 모든 것을 다 알아 걸림이 없어 마치 태양이 천공을 비추는 것과 같다.'

제3의 7일.

삼매로부터 나온 고타마붓다는 무찰린다 나무 아래에서 다시 결가부좌를 하시고 해탈의 기쁨을 누리십니다. '갑자기 큰 구름이 생겨나 7일간 계속 비가 내렸고 찬바람이 불었다. 그러자 무찰린다 용왕이 자신의 용궁에서 나와 세존의 몸을 일곱 겹으로 둘러싸고 큰 머리를 들어 세존의 머리를 덮으며 세존을 보호했다. 7일을 보낸 후 하늘이 개이자 용왕은 그 본래의 모습을 버리고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합장하고 귀의했다.' 고타마붓다는 자송(自頌)의 게를 외우셨습니다. '만족을 알고 가르침을 듣고, 진리를 본다면, 홀로 있는 것은 즐겁다. 세간에 대한 노여움이 없고, 유정에 대하여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즐겁다. 세간에 있어서 탐욕을 떠나고 모든 욕망을 초월하는 것은 즐겁다. 그렇지만 아만(我慢)을 조복하는 것은 최상의 즐거움이다.'

제5의 7일.

세존은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생각이 생겼습니다. '내가 깨달은 이 이법은 매우 깊어 보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고요하며, 생각의 경계를 넘고 미묘하여 현자만이 능히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집착의 경계를 즐긴다. 그런 이들은 차연성(此緣性)과 연기(緣起)를 보기 어렵다. 만약 내가 이 법을 설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피로만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생각한 고타마붓다는 침묵을 지키며 법을 설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당시 인도 철학의 핵심적 존재이자 사바세계의 주인인 범천(梵天)은 붓다의 생각을 알고 세간이 소멸함과 성도의 침묵에 안타까워합니다. 범천은 붓다에게 합장하며 청합니다. '원컨대 법을 설하소서. 유정이더라도 그 더러움이 적은 자가 있어 법을 들으면 깨달을 것입니다.' 붓다는 천안으로 세간을 관찰하시고 범천에게 게송으로 설합니다. '감로의 문은 열렸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자신의 믿음은 버려라. 범천이여, 사람들을 번거롭고 힘들게 할 것이라 생각하여 미묘한 정법을 설하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범천은 붓다의 설법을 확인받고 경배합니다. 범천의 권청은 전법 행진을 출발하는 붓다의 마음이 드러난 에피소드입니다.

불교는 지혜를 바탕으로 한 연기법의 종교입니다. 불법은 연기에 의해 귀일합니다. 붓다의 고행 6년이라고 하는 사유의 시간은 궁극의 지혜로 행하게 한 연기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개념이 순간적인 종교체험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심도있게 구체화되지 않은 성도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보다 길었다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연기의 도리는 관계성을 원리 그대로 체계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인도의 종교와 철학에서 이러한 연기법을 설한 것은 오직 불교뿐입니다. 괴로움의 실체를 밝히는 12연기를 통해 고타마 붓다는 성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에 고타마붓다의 성도는 인간 정신의 내면적 질적 전환과 인간으로서 완성된 성자의 가능성 그리고 인류의 위대한 사상가의 탄생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깊습니다.

정리=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입 종 안 내

◇입종 안내 구비서류
- 본종 입종 신청서(총무원, 지방종무원 비치)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 등본 1부
- 승적 증빙서류(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사진(내,외부)

문의 및 접수처 :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소: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총무원 (051)527-5431~2 팩스 (051)527-7733
· 경남종무원 (055)853-0479 휴대폰 011-583-0479
· 중부종무원 (043)648-8942 휴대폰 010-8849-9573
· 제주종무원 (064)724-0318~9 휴대폰 019-522-0318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 · 천수경
수리수리마하수리
THE THOUSAND HANDS SUTRA
Mystical Gateway to Happiness and Enlighte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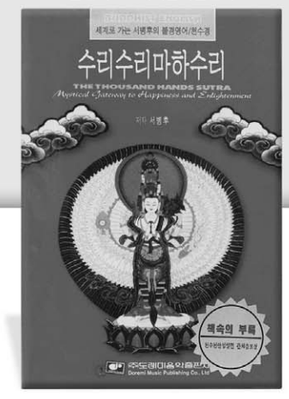


보다 활발한 한국 불교의 해외 포교, 그리고 신세대 지식인들에 의한 넓은 시야의 불교 공부와 수행을 위한 기본적 불경 영어 가이드로서 기획된 이 책은 천수경을 첫 텍스트로 했습니다.
영어화된 산스크리트어는 영어로 다루고, 그 표기도 표준적 국제 시스템에 따랐습니다.

자비와 깨달음의 감로를 내려주시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구원의 염원이 담긴 천수경의 신비스런 비밀공식이 우리들 앞에 펼쳐집니다.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불교를 연구해 왔고, 풍부한 영어교육경험을 갖춘 필자가 선사하는 최초의 영어완역 천수경과 현대적 시각의 주해, 통쾌할 정도로 행간을 꿰뚫는 새로운 해석은 우리들을 감동케 할것입니다.

책1권, 오디오테이프 3개포함
~~20,000원~~ → ₩ 14,000원
저자 서병후 | 156쪽 | A5
출판사 : 도레미음악출판사



온라인 책방 여시아문
02)737-0695



가장 어려운 공부 쉽게 하는 길



명상만화 마음공부
김충현 글| 고성원 그림
인북스 펴냄|1만 2000원

나는 내 마음의 노예인가! 선우(善友)인가! 모든 해답은 내 안에 있다.

'텅 빈 캔버스 같은 내 마음의 화가는 바로 나! 탐욕과 이기를 그리면 집착이 물들고 감사와 사랑과 배려를 그리면 기적처럼 행복이 찾아든다.'

<화엄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다. 그러나 <마음공부>의 시작과 끝 어디에서도 어려운 경전 말씀과 한문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단순화 되고 유머러스하게 희화된 노스님과 법(法)을 구하는 행자의 선문답이 카툰(cartoon)형식으로 그려졌다. 마치 그림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듯 그 상황을 글로써 묘사하면서, 다시 한 번 삶의 지침으로 지닐 수 있도록 쉽게 풀어 놓는다.

'마음'과 '나'는 다스림의 수직관계가 아닌 다독거림의 수평관계임을 알아야 한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존재, 이것이 마음이다. 마음은 나를 반영함으로써 서로 되먹임된다. 야운비구(野雲比丘)가 <자경문(自警文)>에서 "주인공(主人公)아, 청아언(聽我言)하라" 외친 것도, '마음의 주인공인 나 스스로가 삶의 주체이며 내 마음의 울림을 바로 들어야'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가. 마음의 평화와 행복의 이상향을 언제나 먼 밖에서 찾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일상이란 고루하게 반복되고 정형화 되어 있는 것이라고 여겨왔다. 이러한 우리에게 저자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빌어 '마음'을 열고 찾아가며 일깨우고 닦아 지니는 마음수행의 단계를 안내한다.

화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어떤 색의 물감으로 그려 나가야 할지, 불교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삶의 주변에서 늘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남긴 이야기를 간략한 글과 그림으로 만날 수 있다. 하루에 한 가지 주제씩 읽어 보면서 그 날의 화두로 삼아도 좋다.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으면서도 마음을 밝히기에 부족함 없는 길을 품은 내용들로 가득한, 곁에 두면 마음이 맑아지는 책 한 권이다.

저자는 춘천 불교방송 보도 제작팀에 근무하면서 <마음공부>를 집필했다. 불교 석학 제프리홉킨스의 <자비명상>을 번역 출간한지 1년만에 내놓은 에세이다. 서울대 동양화과를 나온 고원성씨의 그림과 함께 어울려 잔잔한 미소를 선물한다.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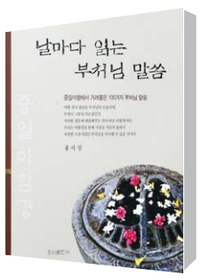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3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뜰
4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5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6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7	사찰,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목경찬	조계종출판사
8	돈오선	월암	클리어마인드
9	술 취한 꼬끼리 길들이기	아잔 브라흐마	이레
10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붓다,
이 세상에 나투신 이유?
고따마 붓다
[성열지음 | 도서출판 문화문고 | ₩22,000원]

매일 '부처님 육성' 듣기



날마다 읽는 부처님 말씀
홍사성 지음
우리출판사 펴냄|1만 2000원

훌륭한 스승으로서의 부처님. 부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훌륭한 스승이다. 그런데 부처님을 만나기 어려운 역사적 존재라고 인식하거나 그 가르침은 매우 깊고 높아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기 쉽다. 그것은 긴 세월동안 불교가 종교로 숭상되어 오면서 부처님을 신화적 존재라는 안개 속에 파묻은 까닭이다.

또 경전을 번역하고 해석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매 시대마다 다른 관점이 제시되기도 했고 옛 언어로 전해지는 가르침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이 불교를 어렵게 느끼도록 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멀리 있지도 않고 그 가르침이 알아들을 수 없거나 이해하기 힘든 것도 결코 아니다. 문자의 함정을 벗어나지 못한 탓에 불교를 어렵다고 말할 뿐이다.

아함부 경전은 부처님의 육성이다. <장아함> <중아함> <잡아함> <증일아함>으로 구성된 아함부 경전의 가르침은 우리 이웃의 이야기처럼 친근하다. 부처님은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 자상하게 다가와 이런저런 가르침으로 삶의 지혜를 심어 주는 분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경전이다.

불교신문 불교방송 불교TV 불교평론 등 불교계 매체에서 활동해 온 홍사성씨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아함부 경전의 가르침들을 신문지상에 연재하고 책으로 묶는데 힘써 왔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훌륭한 스승으로서의 부처님을 만나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이미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마음으로 듣는 부처님 말씀> 등을 통해 아함부 경전에 알알이 박혀 있는 지혜의 보석들을 세공해 독자들에게 선물했다. 아함경 읽기의 마지막 단행본이 된 <날마다 읽는 부처님 말씀>은 <증일아함경>에서 뽑아 낸 100개의 보석 같은 가르침이다. **임연태 기자**

■서평 송준영 시집 '습득'

언어 끊어진 곳의 소식



송준영 시인은 일찍이 조계종정 서옹 선문의 뜰에서 머리를 묻고 몸을 가라앉히어 들어 올려 천거하며 헤아려서, 불조(佛祖)의 서래밀지를 사자상승(嗣子相承)하였으니, 곧 불조의 심인을 전수 받은 분이다. 화살 하나로 세 관문을 두드려 깨뜨렸으니, 선이라는 화살 하나로 교(敎)의 관문과 선의 관문 시의 관문을 관통한 작가이며 선장이다.

우리 주변에 단 한 번의 깨달음의 바람에 번뇌망상을 벗겨내[瞻風撥草] 봄도 없이 흐린물, 험한 산의 정수를 삼키고 불조의 언구를 여과없이 받아들여 그 미묘한 뜻을 알지 못하면서 선시라는 이름으로 시를 발표하는 탐욕스럽게 술지게미나 먹는 자들이 많다. 이 당주조한(噇酒糟漢)들은 소리와 모양을 따르고 좇아 현상에만 사로잡혀 독자들의 눈을 멀게 할 뿐만 아니라 목에 칼을 걸치고 족쇄를 두르고도[披枷帶鎖] 자기 자신이 칼과 족쇄에 얽매여 있는 줄 모른다. 비록 얻은바가 있다해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선시다'하고 자임하며 자임 그것이 도리어 병이되니, 깨달음이란 바로 물에 얼음이 생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송준영의 시는 다 같은 언구를 사용해도 그 뜻은 범인의 그것과는 천지현격(天地懸隔) 이어서 그경계가 다르다. 그의 언구는 하늘의 구멍을 내어 뚫고[穿却鼻孔]스스로 코를 꿰어 진원으로 돌아가 자기의 성품을 요달[歸源了性]하고 있다. 그것은 본성을 보았을 때 터져 나온 그의 일성[吠地一聲]에 연유한 그만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본체를 밝힌 다함이 없는 글귀[體明無盡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송준영의 시는 끝이 있어도 그 뜻은 끝이 없다. 변방의 골짝이나 봇도랑을 묻는데[塞壑塡溝] 있어 곳곳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나 그 어느 한 곳에도 저 언어가 끊기는 아득한[言思迥絶] 세계, 은밀한 진리의 세계[隱密全眞]를 비치게 할 뿐, 진작 미친 곳이 없다. 사실 송준영의 시를 읽다 보면 극칙에 이르는 길이 끊어지고[極則無路處] 없다. 그것은 궁극의 이치이면서 그것이 궁극의 이치라는 자취마저 없는 현묘한 몰종적(沒蹤跡)의 당처를 생각게 한다. 소나기 지나가매 산악이 밀려 쌓이는[堆山積嶽] 찬 재와 같은 마른나무[寒灰枯木]의 울음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시장 바닥의 큰 파도와 넓고 아득함[洪波浩渺], 큰 파도 흰 물결을 일으키는 동해이어(東海鯉魚)의 숨소리도 들려온다.

오늘 송준영은 저자거리에 손을 드리우고 있다. 성스러운 견해에도 머물지 않고 범속한 생각에서도 벗어나 책을 만들고 시를 쓰고 있다. 이것이 찬란한 붉은 바탕의 사람[紅爛底人]의 참사람의 진면목이 아닌가.

검인상주(劍刃上走) 칼날 위를 달리는 이여
대용현전(大用現前)에 부존궤칙(不存軌則)이로다.

설악(雪嶽) 조오현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카필라 신발


▲성불화 남여공용

카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 국가이름

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대단히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뉴벅" 사용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고, 스님께는 승복색상에 맞게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벅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청하고 있다. 또한"카필라"를 신고 만행할때 악귀와 잡귀를 미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것이 독특하다. 성불화"카필라"는 남여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싸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가격 88,000원
•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님 승복 색상에 맞춰 품격!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에서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 Ⅱ "카필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 I 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카필라"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자를한 인도의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작된 기능성 신발

추운 겨울, 더운 여름을 거뜬히 이겨냅니다!
산양삼 직판 특별할인공급
지리산 산양삼 먹어보면 느낌이 확 옵니다.



산삼은 노루나 멧돼지 새 등이 산삼씨앗을 먹고 다른곳에 배설하여 싹이나 자라는 것이고 산양삼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에 산삼의 종자를 뿌려놓고 자연상태에서 10~20년을 기다린후 채취한다.
인삼은 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 2~3년만 지나도 손가락 굵기로 크지만 민족의 영산 지리산에 위치한경남 함양군에 있는 지리산산양삼은 울창한 수림속에 잔볕이 드는 산삼이 자라는 토양과 같은 조건에서 자라므로 10년이 지나도 손가락 굵기정도밖에 자라지 않으며 토양속 무기질을 영양으로 흡수하기 위해 잔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다. 그동안 삼이 좋은줄 알면서 높은 가격 때문에 선뜻 구입하지 못한 분들께 지리산 산삼영농조합에서 직가로 특별공급하고 있다. 공복에 생삼을 바로 먹어도 좋고 다려 먹어도 좋은 산양삼입니다. 많은 애용바랍니다.

- 자주 나른함을 느끼시는 분
- 연로하신 부모님
- 일이 많아 업무에 시달리는 분
- 손, 발, 몸이 찬 주부
- 추위나 더위를 많이 타는 분
- 공부로 늘 힘든 수험생
- 몸이 약한 아이들
- 체력소모가 많은 운동선수

※삼령, 생산자, 원산지가 표시된 산양삼 증명서가 동봉됩니다.
※시중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겨울철이므로 통신으로 직판만 합니다.

■8년산 3뿌리 ~~300,000원~~ 200,000원
■8년산 6뿌리 ~~600,000원~~ 300,000원
■12년산 1뿌리 ~~200,000원~~ 150,000원

문의 1566-3378
지리산산삼영농조합
농 장 (055) 963-3375
농협 1285-02-028081 임지영

가족, 부모님, 고마운 분께 산양산삼은 평생 잊지못할 건강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옻 옻가네 토종참옻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안전성 완료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2006.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일반형] [고급형]



• 내용량 : 1박스(80mℓ ×60포) 2개월분
• 1병(1.5ℓ)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



불서를 만드는 사람들

여래출판사

"출판은 인생과 딱 붙어있는 것"

불서는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훌륭한 방편이지만,
그것이 시중에서 유통되면 '상품'이다.
시장 논리로만 따진다면 불서의 외연만 확대되고
독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불서를 펴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불서를 만드는 사람들의 고집은
시장논리를 훌쩍 뛰어넘는 것 같다.

'소박'한 마음으로 20년…70여 종 펴내
'행복한 세상' 통해 불교 밖 이야기 담아



도서출판 여래를 찾아 4월 22일 용인으로 발길을 옮겼다. 대부분의 불서출판사들이 서울 조계사 인근에 모여 있는데,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셈이다.

"원래는 저도 종로 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넓은 장소를 찾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하."

도서출판 여래 정창진 대표가 반갑게 맞으면서 이야기한다. 정 대표는 현재 요가원과 출판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우연한 기회에 요가가 정신 수련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낀 그는 아직 종로에 있던 시절인 5년 전부터 요가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종로는 임대료도 비싸고 장소도 좁아 3년 전에 용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요가원을 두고 '외도'라고 농 반 섞어 이야기 한다. 그러나 농담이라고 넘기기에는 정 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수련과 펴낸 요가서적의 양이 만만치 않다. 그가 만든 요가 책들은 지금 한국 사회에 퍼져있는 '체조식' 요가를 지양하고 정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래서 여래에서 출판된 요가 책은 정신수양을 목적으로 요가에 다가서는 사람들에게 읽히곤 한다.

요가원에서 커튼으로 가려진 부분을 걷어보면 공간이 하나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정 대표가 작업하는 도서출판 여래 사무실이다. 한쪽 벽면에는 지금까지 여래에서 출판한 도서들이 가지런히 꽂혀있다.

정 대표의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보면 '그럼 요가원만 운영하면 될텐데' 하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람의 꿈이란 그렇게 단순하게 접었다 폈다 할 수는 없는 것. 정 대표 역시 왜 고민이 없었을까.

"돈벌이로만 생각했다면 진즉에 불서출판사, 문 닫았죠."

그는 딱 이 한 문장으로 불서출판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를 정리했다. 정 대표에게 불서 만드는 일은 몸에 밴 습관, 나아가서는 그 인생 자체여서가 아닐까 싶다.

도서출판 여래가 처음 문을 연 것은 1988년. 설립 당시에는 모 스님을 대표로 출판 등록을 했으나, 그것을 곧 정 대표가 인수했다. 스님에게 사정이 생겨 더 이상 출판사를 이어나갈 수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거창하게 큰 뜻이 있어서 출판사를 인수한 건 아닙니다.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했고, 편집일과 잡지사 일을 좀 하다 보니 불서 출판 쪽이 잘 맞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정 대표는 고요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한다. 오히려 이렇게 소박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20년 동안이나 출판사를 이끌어올 수 있었을 터다.

그렇게 시작해 맨 처음 만들어 낸 책이 <포교사 포교법>이다. 당시 포교사들을 위한 교안 형식으로 만들어진 이 책은 자료가 귀하던 그 시절, 포교사들에게 소중하게 쓰였던 지침서였다. 지금은 절판됐다.

이렇게 시작해 지금까지 만들어 낸 책은 70종 정도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출판사를 소중하게 가꿔왔다는 데가 난다. 경전 강의서부터 쉽게 읽을 수 있는 불교이야기까지 다각도에서 불교를 조명하려 애써온 것이다.

그런 중에도 가장 아끼는 책이 있다면 <행복하게 사는 법 아름답게 죽는 법>(정재 저)과 <법성게 강의>(석우 저)다. 두 책은 정 대표와 인연이 있는 스님들이 지은 책인데 <행복하게…>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쓴 책이고, <법성게 강의>는 <화엄경> 가운데서 의상대사가 가려 뽑아 정리한 <법성게>를 석우 스님이 다시 하나하나 설명한 책이다.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책이지만 분명한 것은 책을 지은 사람도, 출간한 사람도 읽는 사람이 이 불서들을 통해 좀 더 세상에 대해 깨닫고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는 점이다.

정 대표와 출판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출판인은 역시 사람을 좋아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종로 시절엔 3평 남짓한 출판사가 사랑방처럼 운영됐습니다. 동국대 시간강사들, 스님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차 한 잔 하고 가셨죠."

그 시절이 못내 아쉬워서일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사람과의 끈끈한 정을 잊을 수 없어 주말만 되면 서울로 가서 어울린다고 하니, 어쩌면 사람 좋아하는 것은 천성인 듯 싶었다.

도서출판 여래에 대해 아는 사람만 아는 사실이 하나 있다. 요즘 많은 출판사가 그렇듯 여래도 '행복한세상'이라는 또 다른 브랜드를 갖고 있다. 행복한세상은 이를테면 쉽게 읽힐 수 있는, 보다 넓은 세상을 향해 뻗어 있는 도서출판 여래의 줄기다.

행복한세상을 통해 좀 더 일반적인 불서를 만든다면 도서출판 여래에서는 예전에 펴냈던 책들 중 몇 가지를 다시 작업해 재출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정 대표는 새 책도 조만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제 불서를 만든 지 20년. 출판을 쉰 적도 있었지만 정 대표는 지금까지 불서출판사의 명맥을 이어왔다. 그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까.

"불서출판사들이 현재 메이저 출판사들의 불서시장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각자 가지고 있는 색깔을 최대한 살려 승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여래는 제 색깔을 찾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계속 '우리 색깔'을 찾아야겠죠."

글 · 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도서출판 여래 불서 BEST 10

순위	도서명	출판년도	지은이
1	행복하게 사는 법 아름답게 죽는법	2004	정재
2	법성게 강의	2005	석우
3	대승불교	1995	시즈타니 마사오, 스구로 신조 공저 · 문을식 역
4	조주선사 선문답(상 · 하)	2006	석우
5	사원예법과 불자예절	2000	성수
6	초발심자경문	2003	원혜
7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법	1999	화암
8	재미있는 인과이야기(인과의 수레바퀴)	1997	임원용
9	천수경 강의	2006	석우
10	새벽숲길	2005	원혜

한국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 출시!**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불법을 공부하시는 사부대중 –
주지스님,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불경 학습기기!



염불(念佛), 염송(念誦)모음

■ **염 송 경** • 반야심경 • 천수경 • 불설아미타경 • 금강반야바라밀경 • 원각경 • 관세음보살보문품 •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 불설약사여래본원경 • 화엄경 보현행원품 • 화엄경 약찬게 • 초발심자경문 • 무상계 • 의상조사 법성게 • 장엄염불 • 부모은중경 • 백팔대참회문 • 대불정능엄신주 • 지장보살본원경 • 천지팔양신주경 •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 송주편 • 예경편 • 불공편 • 천도재 · 49재편

지금 바로 신청 하십시오.
도연아카데미 문의 및 신청 (02)2666-0676~8
157-280 |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6 상희빌딩 301호
➔ 전국 소호점 문의 : 011-785-9398
➔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제품명 : 아이센스 T-108**
• **제품구성**
– 아이센스 · 염송경집 1부 · 염송의범 1부
– 기기크기 : 9.5cm×6cm, 화면크기 : 5cm×4cm, 기기두께 : 0.8cm
• **제품의 특징(개발동기)**
의식을 공부하시는 불자분들의 종전 학습방법은 책을 본다든지 테이프를 듣는 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었으나, 본 제품은 염송경과 염송의범을 듣고 화면으로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한글로)과 의식까지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불경을 학습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 **제품사양**
컨텐츠캡션 MP4 재생기능, 동영상촬영, 내장형카메라, MP3, 멀티태스킹 · 백그라운드음악, 내장2G 플래시, 외장 2G, 320×240 TFT LCD 화면, FM라디오 내장, 터치패드사용, 게임기능, 전자수첩, 영 · 일 · 한자 전자사전
※영어 · 일어 · 중국어도 함께 공부 할 수 있습니다.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33>
(修習止觀坐禪法要)

제4장 조화(調和)⑤

급하게 선정에 들면 병통생긴다

五初入定時調心者有三義 一入 二住 三出 初入有二義 一者調伏亂想 不令越逸 二者當令沈浮寬急得所 何等爲沈相 若坐時心中昏暗 無所記錄 頭好低垂 是爲沈相 爾時當繫念鼻端 令心住在緣中 無分散意 此可治沈 何等爲浮相 若坐時心好飄動 身亦不安 念外異緣 此是浮相 爾時宣安心向下 繫緣臍中 制諸亂念 心卽定住 則心易安靜 擧要言之 不沈不浮 是心調相

선정에 들어가 마음을 조화하는 법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 번째로는 마음속에 혼란한 잡념 망상을 조복받아 망상이 자기의 마음을 뛰어넘어 방일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즉 마음을 하나의 대상경계에 전일하게 집중하라는 뜻이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들뜨고 가라앉고 느슨하고 급한 것이 알맞게 조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가라앉는 것은 혼침이고, 들뜬다는 것은 산만하게 요동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로는 다른 인연을 버리라는 것인데, 이는 마음이 각자 따로 따로 목전에 나타난 육진경계를 상대적으로 반연하는 것을 말한다. 색 성 향 미 촉 등 오진을 반연하기도 하고, 혹은 안 이 비 설 신 등 오근을 반연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반연하는 것은 각각 동일하지 않다. 그 때문에 다른 인연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모두는 마음을 조화하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들뜨지도 않고 혼침하지도 않게 하는 것을 마음을 조화하는 모습이라고 말한다.

其定心亦有寬急之相 定心急病相者 由坐中攝心用念 因此入定 是故上向胸臆急痛 當寬放其心 想氣皆流下 患自差矣 若心寬病相者 覺心志散慢 身好逶迤 或口中水涎流 或時闇晦 爾時應當斂身急念 令心住緣中 身體相持 以此爲治 心有澀滑之相 推之可知 是爲初入定調心方法

선정심 가운데서도 느슨하고 급한 두 종류의 병통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위에서 밝혔던 망상을 조복받고 마음이 들뜨지도 않고 혼침하지도 않게 하는 것을 마음이 안정된 모습이라고 말한다.

선정 속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두 종류의 병통이 일어나게 된다. 하나는 급한 모습으로서 가슴이 꽉 막힌 상태이며, 또 다른 하나는 느슨한 상태로 몸이 축 늘어져 추스르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 두 가지 모습은 똑같이 선정심 가운데서 일어난다.

우선 선정심 가운데서 마음이 급해서 일어나는 꽉 막힌 병통의 모습에 대해 말해보자.

수행인이 고요히 좌선하는 가운데서 마음을 거두는데, 생각을 인위적으로 급하게 일으키면 거두려는 생각은 허망하고 거짓된 망념이며 진실한 정념이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선정에 들어가면 선정을 닦을 때마다 가슴이 꽉 막혀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안온하지 못하게 된다.

수행인들이 마음이 진실하게 안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진 수행할 경우 기운이 급하고 꽉 막힌 통증이 이미 그 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병통을 다스리려면 마음을 느슨하게 놓아 상상 속에서 모든 기운이 몸의 아래로 흐른다고 여기면 병통은 스스로 낫게 된다.

대체로 이 병통을 앓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과도하게 마음을 써서 급하게 마음을 거두기 때문에 발병한 것이다. 만일 마음을 느슨하게 놓아준다면 일체 들뜨고 혼란한 망상과 거친 마음과 급한 기운을 낱낱이 놓아버리게 되어 상기가 되지 않는다.

이는 이른바 "마음의 불을 끄고 열을 제거하면 시원함을 얻으며 모든 잡념을 여의면 다시 나의 마음이 청정해진다" 라고 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급한 마음의 병은 스스로 나아지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선정심 가운데 마음이 느슨한 병통의 모습에 대해 밝히고 있다.

수행인이 마음속에 의지가 산만하여 수습하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면 몸이 항상 축 늘어져 추스르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신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쾌한 상태가 된다. 때로는 입 밖으로 침이 흘러내리기도 하고, 혹은 정신이 껌껌하게 어두워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모든 것이 선정 가운데서 마음을 지나치게 느슨하게 놓아버렸기 때문에 생긴 병통의 모습이다.

마음이 들뜨지도 혼침하지도 않아야 안정
선정에 들어갈땐 거친곳서 미세한 곳으로

이 같은 병통이 일어날 때엔 수행자는 그것을 깨닫고 몸과 마음을 수렴하여 마음이 밖으로 치구하지 않게 함으로써 마음을 한 곳으로만 전일하게 주입해야 한다.

수행인이 반드시 알아야할 일은 느슨한 병통은 마음을 지나치게 방일하게 놓아두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점이다.

가령 마음을 고요하게 거두어 하나의 경계로 전일하게 주의를 기울이면 육근을 모두 하나로 포섭하고 청정한 생각을 면면이 상속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 마음이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만 된다.

이 방법으로써 병을 다스리는 좋은 약으로 삼는다면 느슨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병통은 자연히 뿌리까지 제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선정심 가운데에는 느슨하고 급한 병통뿐 만 아니라 꽉 막히거나 날카로운 두 가지의 모습도 있다. 다시 말해서 수행인이 선정 가운데서 마음을 조화할 때 이 두 가지를 조금이라도 근신하지 않는다면 꽉 막히고 날카로운 상태에서 일어나는 병통을 조화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 두 가지 마음을 잘 조화하면 꽉 막히고 날카로운 두 가지 병통이 자연스럽게 소멸하는데, 이를 비유하자면 물이 맑아지면 그 가운데 물고기가 환하게 나타나는 이치와도 같은 것이다.

이러한 이치와 의미는 심오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치를 추리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상으로 밝힌 내용들이 수행인이 최초로 선정에 들어가 마음을 조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夫入定本是從麤入細 是以身旣爲麤 息居其中 心最爲細靜 調麤就細 令心安靜 此則入定初方便也 是名初入定時調二事也

선정에 들어가는 법은 본래 거친 데로부터 미세한 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는 처음에는 몸을 조화하고 다음으로는 호흡을 조화하고 그 후로는 마음을 조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몸이 가장 겉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조화의 조건이 되었고, 호흡은 그 다음의 조건이 되었으며, 마음은 가장 미세하고 고요하기 때문에 최후에 조화하라고 하였다. 이것을 두고 거친 것을 조화하여 미세한 조화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한다면 마음이 안정되고 모든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비유하면 지혜로운 말을 훌륭하게 길들이면 급하게 흐르는 폭포수도 건널 수 있다고 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를 선정에 들어가는 최초의 방편이라고 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선심소(善心所)

③무탐심(無癡心)

'무탐심(無癡心)'이란 어리석은 마음을 대치하는 것으로, 모든 이치와 사물을 본성의 밝음으로써 이해하여 그에 대한 미혹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는가.

우리는 올바른 주의력으로 인해 우리의 본심이 희미하게나마 밝아지게 되면 그 밝음을 보호하고 더욱 자라나게 하면서 그에 대한 확고한 신심 때문에 본래 청정한 마음의 이치를 이끌어 내는데, 이때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이 발현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우리 자성의 본래 밝은 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성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사물과 이치에 대해 분명한 이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체로 분명한 이해는 후천적인 자체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데, 많은 경험을 쌓

사물이치에 어리석음 없는 마음
자성의 지혜 근본의지처로 발현

을수록 그 범위는 더더욱 광대해집니다.

그러나 그 세력이 처음 싹틀 때는 전혀 원인이 없는 데에서 갑자기 발동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성의 지혜가 그 근본 의지처가 되어야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세속에서 흔히 말하는 예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성에는 본래 밝은 분명한 이해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진제(眞諦)의 이치에 있어선 일체의 허망한 분별을 멀리 떠날 수 있고, 속제(俗帝) 가운데서는 그 대상의 경지에 걸맞게 앎으로써 망상의 견해로 실제의 사실을 혼란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가론(瑜伽論)' 57권에서는"대자비는 증오 없는 마음과 어리석음 없는 마음을 의지해서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증오심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에게서 진정한 자비를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올바른 지혜가 없는 사람이 올바른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세 가지의 선한 마음을 삼선근(三善根)이라고 하는데, 이는 탐 진 치인 삼불선근(三不善根)을 대비해서 수립한 명칭입니다. 십악업(十惡業)이 삼불선근을 의지해서 일어난 것이라면 십선업(十善業) 역시 이 삼선근을 의지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삼선근이야말로 모든 선업을 일으키는 근본인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제23회 不二賞 공고

不二會에서는 한국불교의 앞날을 이끌어 갈 신진학자와 자비행의 실천에 앞장 서 오신 분을 대상으로 불이상을 제정하여 매년 1회 시상합니다. 불교발전을 위해 힘쓰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시상분야
가.연구분야
대학원 석사과정수료 이상의 학력자로 대학에서 시간강사 이상, 조교수 이하의 직에 있는 자로서, 최근 2년 동안 업적 중 불교전반에 걸친 학문의 탁월한 연구 성과를 올린 40세 전후인 자.
나.실천분야
불교에 입문하여 10년이 경과하고 신행과 포교가 모범이 되는 개인(연령제한 없음) 또는 단체

시상규모 각 분야별 1명 1000만원

후보자제출서류
가. 후보자 추천 카드 (본회 소정양식)
나. 자필이력서 (사진 첨부)
다. 학력증명서
라. 경력증명서
마. 업적 증명응 연구물 또는 활동 내역서, 성적 증명서
바. 具足戒, 受戒 증명서
사. 추천서 3통 (총장 · 대학원장, 기관및단체의 장)

접수마감 2008년 5월 31일까지
수상자발표 불교계 언론매체
접수처및문의 불이상 심사 위원회
서울 종로구 익선동 55번지 현대뜨레비앙 148호
전화 (02)762-5624~6 / 전송 (02)762-5627

不 二 會

중앙불교대학원 학인
[남 · 여 승려 모집]

■ 모집학과 : · 본과(사미과) 6개월 과정
(3개월 기본습의 후 3개월 통학 가능)
· 통신반 6개월 통신강의(월 1회 출석)
■ 개강일시 : 제 3기 2008년 5월 6일(월)
■ 자격요건 :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행자)로서 나이,학력 불문
■ 특 징 : 본원은 세계불교 승가회(World Buddha Sanga)에서 운영하는 전문강원으로서 6개월 수료 후 수계득도(승려증 발급)하도록 지도하고, 사찰(포교원)창건시 초심자라도 여법히 법회를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수 강 료 : 기본 3개월 150만원(숙식제공,지도비 강의료포함)
■ 특강교수 및 지방 연락처
경남지역:무송스님 011-883-7579 대구지역:법인스님 011-548-3664
경북지역:해성스님 010-9421-9364 동두천지역:법천스님 010-7700-7093
부산지역:법봉스님 011-9330-6210 용인지역:송산스님 031-262-1577
■ 접수처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중앙불교대학원
전화 031)676-0908 / 팩스 031)675-0206

세계불교승가회(World Buddha Sanga)전문강원
중 앙 불 교 대 학 원



행 자 모 집 (예비스님)

◆자 격 : 건강한 남자 50세 이하 학력제한 없음
◆수행공부 모든지원
◆6개월 교육 후 수계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1통
· 신원확인서 1통
(경찰서 민원실에서 작성)
· 부모, 형제 동의서 1통

경북 문경시 농암면 율수리 17-1
재단법인 한국불교 조계종
종 무 소 054)541-6753,541-6750
회주스님 010-8819-8988

사단법인 대한호국 불교 소림선종
입 종 안 내

달마조사께서 주석 하셨던 중국 숭산소림사의 달마조사 33대제자 석영신방장 큰 스님으로부터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총무원장 덕산 석연화 큰 스님과 10여명의 소림선종의 스님들이 달마조사 34대제자로 중국 숭산소림사 큰 법당에서 소림 1600년사에 외국스님들에게는 최초로 금년 1월 23일 수계법회가 여법히 거행되었음을 중국언론에서 특종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로 중국 숭산소림사 석영신방장 일행 23명의 소림스님들이 서울 인사동 소재 중국 숭산소림사 한국문화원본부 현판식 참석 및 소림무술 공연 행사를 (2월 18일~2월 21일) 서울 신촌 봉원사와 원주 소림선종 본찰 용화사, 부산 해동용궁사에서 거행하였고 그리고 본 종단의 숙원 사업인 소림승가대학과 소림중앙선원 소림무술학교 건립불사를 시행하여 본 종단의 면모를 여법히 갖추고져 합니다. 이에 때를 같이하여 뜻을 함께하실 대덕큰스님과 종도 및 행자님을 모시고져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국소림사에서 달마조사의 제자로 수 · 도계첩 수여(입종비:15만원)
◇ 입종시 :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부여
◇ 입종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2통, 승려증사본 2통, 이력서 1통, 여권사진 5매

소림문화원 개원에 따른 수강생 모집
(개강일 4월 1일)
■ 명상수행 : 새벽반, 오후반(무료)
■ 서화(동양화) : 주 3회 2시간 청곡 이한동선생(3개월 10만원)
■ 서 예 : 주 3회 2시간 석천 김기섭 선생
■ 소림무술 : 소림무술스님 : 석연체스님, 석연탁스님(소림사 석영신방장님제자), 스님 무료(입종스님에 한함)
■ 대상 : 스님, 일반인, 학생

중국 숭산 소림사 한국문화원
소림선종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70번지 동일빌딩 6층
전화 02)720-6363 / 팩스 02)720-6340 / 담당 010-6438-3561
인터넷 동영상 : (야후) 연합불교방송

“부모·형제·이웃·산천초목도 부처에요”

선지식을 찾아서 현해

월정사 회주 현해 스님



삼일수심천재보 백년탐물일조진(三日修心天載寶 百年貪物一朝塵), ‘삼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평생 동안 탐착한 재물은 하루아침의 티끌과 같다.’는 <초발심자경문> 구절을 듣고서 현해 스님은 그 자리에서 발심하였다. 그리고 출가를 결심하였다.

현해 스님은 월정사에 도인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건만 도인은 만나지 못하고 나무하고 밥 짓는 일을 하였다. 그렇게 해서 불가에 발을 들여 놓은 지 반세기가 지났다. 현해 스님의 반세기를 돌이켜 보면 24년 동안은 불학연구에 전념하였고 24년 동안은 사판에서 일하였다.

북한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월정사 서울 포교당 법종사를 찾았다. 현해 스님은 월정사 주지소임이 끝나는 그 날로 이곳 법종사로 내려와 버렸다. 이런저런 소임을 다 놓아버리고 나니 참으로 편안하다면서 환하게 웃었다. 요즈음은 소일 삼아 붓글씨를 쓰고 있다지만,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오롯이 붓과 먹을 대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수행의 일환이 아닌가 싶다. 공간 가득 채우고 있는 은은한 묵향 또한 현해 스님의 수행의 향기로 다가온다.

현해 스님은 도를 깨치겠다고 출가하였지만, 견성성불은커녕 출가할 때 보다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고 한탄한다. 하지만 스님의 이런 한탄은 한탄에 지나지 않는다. 현해 스님은 법화경 연구에 일생을 다 바쳤고, 우리나라에서 법화경의 권위자이다. 중앙승가대학과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오랫동안 법화경을 강의하였다. 스님의 독특한 시각으로 <법화경요품강의>를 펴냈으며, 산스크리트어본 · 한문번역본 · 영문번역본 · 한글번역본 등을 일일이 대조해가면서 <묘법연화경>을 완간했다.

현해 스님은 <법화경요품강의>에서 ‘상불경 보살품’을 비중 있게 소개하였다.

<…상불경 보살은 멀리서 사부대중을 보면 쫓아가서 예배하고 찬탄을 하였다.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고 가벼이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의 도를 행하여 반드시 성불하기 때문이다” 사부대중 가운데는 상불경 보살이 ‘반드시 성불하겠다’는 말을 듣고서는 화를 내거나 돌로 때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도 상불경 보살은 굽히지 않았다…>



현해 스님은

1958년 오대산 월정사에서 만화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였다. 1992년부터 2004년 1월까지 월정사 주지 소임을 맡았다. 조계종 제3 · 7 · 10대 종회의원을 지냈다. 지금은 법종사에 주석하고 있다. <법화경 요품 강의>, <마하지관 연구>, <묘법연화경> 등을 펴냈다.

> “수행자는 돈 멀리하고 검소한 생활을 부처님 교리로 무장하면 마음동요 없어 선업 베풀면 모두 자신에게 돌아올 것”

현해 스님은 ‘상불경 보살품’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였다.

“상불경 보살은 한 번도 경전을 독송한 적은 없는데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은 부처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한 공덕으로 성불하였어요. 반면에 그를 구박한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본성만 믿으면 성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성변시광장설(溪聲便是廣長舌) 계곡의 흐르는 물소리 모두가 부처님 말씀인데 산색기비청정신(山色豈非淸淨身) 산천초목이 어찌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아니겠는가.

현해 스님은 소동파의 시 한 구절을 읊으면서 “내 자식도 부처요, 내 부모도 부처요, 내 형제도 부처요, 내 이웃도 부처지요. 더 나아가서는 저 산천초목 흐르는 냇물, 나무, 돌 등 부처 아닌 것이 없어요.”라고 덧붙였다.

현해 스님의 신념은 검소한 삶이다. 스님이 월정사에서 행자생활을 할 때는 절 살림이 참으로 궁색하였다. 겨울에는 알곡은 구경할 수도 없었고, 감자와 옥수수만으로 끼니를 때웠다. 어느 날 모처럼 시주로 들어온 쌀 몇 톨을 땅에 흘렸다가 두 시간 넘게 꼼짝 못하고 서서 은사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검박한 생활이 몸에 뺀 현해 스님은 휴지 한 장도 아껴 쓰며 양말도 기워서 신는다.

스님 또한 상좌들에게 검소한 생활을 강조하지만, 요즈음에 와서는 이러한 가르침에 한계가 있음을 느낀다. 옛날에야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풍족한 시절이며, 속가에서 풍족함을 누렸던 사람들이 아닌가. 스님이 공부하던 시절의 검소함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도 공직을 맡은 자는 공금을 무섭게 여기고 수행자는 돈을 멀리해야 한다는 스님의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들은 가진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와 반대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업을 베풀면 모든 것이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라는 것은 자신이 지닌 것이 충분하다고 여기면서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기도하라는 것은 과욕을 부리지 말고 헛된 꿈이나 망상을 버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해 스님은 은사 스님께 배운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어른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시절에는 어른의 말씀이 곧 법이요 진리였다. 다른 한 가지는 절을 중건하는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밥을 굶더라도 불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화 스님은 20년 동안 월정사 주지 소임을 맡아서 1964년 적광전을 중창한 것을 시작으로 전각 10여동을 복원하였다.

현해 스님은 그러한 은사스님의 뜻을 받들어, 12년 동안 주지를 지내면서 용검루, 삼성각, 범종루, 보장각, 불이문, 성보박물관, 서별당 등을 고쳐 짓거나 새로 지었다. 가람을 수호하는 일 또한 수행의 한 가지였기에 현해 스님은 그 어느 것도 허수로이 하지 않았다.

스님이 월정사에서 공양주 소임을 맡아 일할 때이다. 저녁 공양 준비를 위해 지장암에서 표고버섯을 따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 월정사로 가기 위해서는 내를 건너야 하는데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건너가기에는 무리였다. 지장암에서 하룻밤을 머물다 가도 되지만, 기어이 바지를 걷어 올리고 물에 들어갔다. 겉보기보다 물살이 훨씬 거세어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현해스님은 몇 번이나 물살에 휩쓸려 물을 들이마시면서도 은사스님께 공양을 지어 올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기에 버섯이 들어있는 무거운 바랑을 벗어 던지지 않았다. 세찬 물살 속에서 스님은 ‘이렇게 해서 죽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죽을 고생을 하고 내를 건너와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은사스님께 저녁 공양을 지어 올렸다.

스님은 사회가 아무리 혼탁해도 자신의 심지가 굳다면 흔들릴 일이 없다면서 사람의 마음은 솜과 같다고 하였다. 잉크 옆에 가면 잉크를 빨아들이고 먹물 옆에 가면 먹물을 빨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속성이다. 쉽게 빨아들이지 않으려면 솜을 기름에 푹 적셨다가 건져내면 어디에 가도 물들지 않듯이, 부처님 교리로 무장되고 그 속에 푹 젖어버린다면 물들 일이 없는 것이다.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처럼.

상불경 보살이 ‘당신은 성불할 것입니다’고 외쳤듯이 현해 스님 또한 혼탁한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 보여 주고 있다.

문윤정(수필가 · 본지논설위원)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Cm × 29Cm
2 돈타레 5.6ϕCm × 27Cm
3 밀 대 4.7ϕCm × 25Cm
4 1호 5.9ϕCm × 20Cm
5 2호 5.9ϕCm × 14Cm
6 3호 4.7ϕCm × 13Cm
7 4호 4.7ϕ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ϕ X 35cm
■ 야광 용초 70ϕ X 35cm
■ 원기둥 마패 7.4ϕ X 30cm
등신불 마패 4.7ϕ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D) 양초.net

두바퀴에 '자유' 싣고 봄길 달려볼까

☑ 자전거 어떻게 즐길까 구입·타기 요령



서울 잠실에서 여의도로 출 · 퇴근하는 김재훈(37)씨는 요즘 하루가 가볍다. 지각하기 일쑤였던 김씨였지만 지각을 않는다. 기름값 걱정에 호주머니를 매만지던 버릇도 사라졌다. 게다가 요즘 부쩍 건강해 보인다. 김씨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의 비결은 자전거 타기에 있었다. 한강 둔치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출 · 퇴근 하니 교통체증도 없고, 유류비 걱정도 없던 것. 김씨는 "늘 운동이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출 · 퇴근 시간 동안 운동도 겸하니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뿐 아니다. 주말이면 산과 들로 자전거 타러 나간다는 김씨. 고유가와 건강부족으로 김씨처럼 자전거를 달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진 요즘, 자전거 타기에 대해 알아본다.



내게 맞는 자전거는?

출퇴근 용도라면 일반 자전거도 무방하지만 큰 충격을 받기 쉬운 산악자전거(MTB) 용도라면 품질이 중요하다. 산악자전거라면 대개 27단 기어에 두꺼운 블록형 타이어, 튼튼한 프레임과 강력한 브레이크는 기본인 탓에 가격은 수십만원대에서 천만원대까지 다양하다.

전문가들은 "입문자의 경우 굳이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유사산악자전거를 타고 산악트레킹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용도에 맞는 자전거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유사산악자전거는 외형은 산악자전거와 비슷하나 부품 강도 등 성능이 산악용으로는 부적합한 것을 말한다. 도심 출 · 퇴근용으로는 접이식 자전거도 인기다. 2단, 3단으로 접어 이동과 보관이 용이한 접이식은 바퀴가 작고 예뻐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자전거에도 싸이즈가 있다. 대개 프레임 크기에 따라 S, M, L 등으로 나뉘는데 산악자전거의 경우 체형에 맞는 자전거를 타야 안전하다. 키 170cm 보통 체격의 성인은 M싸이즈, 키가 180cm 정도는 L싸이즈가 적당하다. 황상준 대표(금천MTB)는 "쉽게 구입한다는 생각에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해 덜컥 구매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자전거는 페달만 굴리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춰 안장과 핸들 높이를 조정해야 하는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안전장구와 액세사리로 더해지는 즐거움

자전거 운동에 안전은 필수다. 헬멧과 장갑은 항상 착용하고 산악 주행시는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 등 안전장구를 철저히 갖춘다. 야간 주행시 플래시, 안전등도 준비하자. 퇴근 후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 공원 주변에는 밤에 운동하는 사람이 늘면서 등화장치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수시로 일어나는 사고 중 등화장치와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잦다. 속도계와 심박계, GPS 등 액세사리도 있으면 좋다. 속도계와 심박계를 통해 자전거 주행의 강약을 조절하면 운동효과를 배가시킨다. 또 속도계와 GPS는 단조롭기 쉬운 자전거 타기에 새로운 재미를 준다.

#자전거는 전신운동, 얼마나 운동되나?

자전거 타기는 자기 체력에 맞게 운동의 힘과 양을 조절해 신체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 흔히들 자전거 타기가 다리운동만 된다고 여기지만 자전거는 유산소 운동이며 전신운동이다. 특히 체중에 따른 부담이 적어 무릎 등 관절이 안좋은 사람들이나 비만인 사람들에게 좋다. 자전거를 타면 호흡시 산소량이 증가되는 등 폐활량과 심폐기능이 향상되고 혈액순환이 잘된다. 신진대사 촉진 및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또 인슐린 활동을 늘리는 등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때문에 와일드바이크 등 인터넷 자전거 동호회 게시판에는 "자전거 운동으로 건강을 되찾았다"거나 "자전거 운동 후 간 수치 · 혈당이 정상화됐다"는 등의 체험담이 많이 보인다.

MTB는 체형에 맞게 골라야 산악 주행시 안전장구 필수

그렇다면 자전거를 타면 얼마나 운동이 될까? 몸무게 70kg 기준의 성인기준으로 천천히 페달을 밟을 경우 분당 5~6kcal가 소모된다. 적당하다 싶을 정도는 분당 7~8kcal, 시속 30킬로 이상으로 달릴 때는 분당 12kcal로 시간당 720kcal가 소모된다. 시간당 147kcal인 걷기와는 4배, 줄넘기와 비슷한 양의 칼로리를 소모한다. 다이어트를 위해 자전거를 탈 경우 10분은 가볍게 페달을 밟고, 이후 5분간 50% 정도의 힘을 써서 달린다. 또 5분간 온 힘을 다해 페달을 밟고 나머지 10분은 다시 가볍게 페달을 밟는 요령으로 한다.

사진제공=와일드바이크 '토마토'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자전거 관련 정보 여기 다모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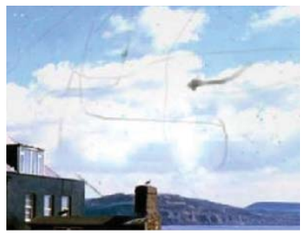
와일드바이크(www.wildbike.co.kr)는 회원수 10만여명의 국내 최대 산악자전거 커뮤니티로 교과서에도 소개된 곳이다. 자전거 타기 기초부터 구입요령, 기술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cafe.naver.com/bikecity)'은 자전거 출 · 퇴근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다. 이외에도 '다음 까페' 등에 자전거 커뮤니티가 여럿 있다.



28. 날파리증

날파리증은 비교적 흔하게 오는 증상 중 하나로 주변에 날파리증을 호소하는 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날파리증 또는 비문증은 눈앞에서 날파리나 하루살이 같은 것이 항상 보이는 증상이다.

실제로는 눈앞에 아무 것도 없지만 날파리나 하루살이, 모기 같은 것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진다. 모양도 다양해서 아지랑이, 실타래 또는 거미줄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시선을 돌릴 때마다 이것이 눈앞을 따라 다니는 것처럼 느껴진다.



대개 밝은 배경에서 더 잘 보이게 되는데 시력에는 별 관계는 없지만 중심시야에 있으면 매우 성가시게 느껴지기도 한다. 우리 눈 속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투명한 젤리와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다. 유리체는 콜라겐 덩어리로 이런 콜라겐이 부분적으로 뭉쳐있기도 한데 이를 유리체 혼탁이라 한다. 유리체 혼탁의 그림자가 날파리나 하루살이처럼 보이는 것이 비문증이다.

유리체 혼탁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다. 대부분은 유리체를 구성하는 콜라겐이 응축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특정 안질환과 무관하게 생긴다.

나이가 들면서 더 빈번하게 생기게 되는데 근시가 있는 눈은 10~20대의 젊은 나이에도 생긴다. 이런 생리적 유리체 혼탁은 치료가 필요 없다.

유리체 혼탁을 그대로 놔둬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일은 없고 특별한 치료 방법도 없다. 유리체절제술을 통한 유리체 혼탁의 제거는 수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개 범위가 넓어 보편적으로 시행되지는 않는다.

최근 미세절개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유리체절제술을 하는 방법이 도입되면서 중심시야를 가리는 유리체 혼탁의 경우 간혹 수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은 유리체 혼탁은 굳이 치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수술 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날파리증 중에 약 20% 정도는 눈 속 질환과 관계가 있다. 망막이나 유리체에 염증이 생기는 포도막염이나 유리체 출혈, 망막열공, 망막박리와 같은 질환은 날파리증을 초기 증상으로 동반하는데 생리적 유리체 혼탁과 증상만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질환들은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적절한 치료를 해야만 시력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날파리증은 생리적 증상인지 특정 질환을 동반한 것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단 과거에 알고 있는 날파리증이 변화 없이 그대로 있는 경우라면 큰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새로 발생했거나 종류나 가짓수가 최근에 늘어났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통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인지를 감별해야 한다.

정리하면 날파리증 자체는 하나의 증상일 뿐 질병이 아니다. 또한 단순 날파리증은 치료할 필요가 없지만 다른 위험한 망막 질환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날파리증이 보이면 반드시 안과를 찾아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한다. (02)755-0055

■ 김준헌(소중한눈 안과 원장)

유리체 혼탁이 원인인 경우 안질환과는 무관 특정질환 동반증상 감별 위한 정밀검사 필수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
카이로프락틱 · 전생 · 빙의 치유법
초보 · 지도자 모집
교과목 • 카이로프락틱 – 경추, 흉추, 요추, 골반, 선추 이론및 실기
• 골격학, 근육학, 운동처방학
• 최면술, 전생 · 미래체험, 빙의 퇴치법, 집중력 강화, 정신질환, 불면증 해소
기 간 • 2급과정 (2개월) • 1급과정 (1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108 시간 집약완성
• 최면 이론실기 8회
장 소 •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서 도보로 5분, SK주유소 뒤, 기숙사 이용 무료
입학일시 • 2008년 5월 1일
사단법인 해동 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서울 · 구로구 구로 1동 685-201 천안빌딩 5F
본원 교학과 Tel : 02-853-6010~1
원장 우혜안 스님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두개의 門

오늘의 禪語

⑰ 돈오와 점수

수행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번에 깨달아버리는 것을 '돈오(頓悟)'라 하고, 하나하나 수행의 단계를 밟아서 점차적으로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을 '점수(漸修)'라고 합니다. 공간론적으로 해석하면, 돈오는 처음 깨닫는 순간 즉 '이것이다' 하고 깨닫는 순간이 바로 돈오입니다. 모든 것은 공이라는 사실, 자기 자신이 본래 부처였다는 사실, 일체유심조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미망에서 깨달음으로 전환하는 것, 즉 인식의 전환, 완벽히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오란 시간적으로는 단번에 깨닫는 것이지만 공간적으로는 자신의 성품이 본래 부처(진리)였음을 깨닫는 것(인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자신의 성품이 본래 부처였음을 인식(돈오)했지만, 아직 육체적인 습관(버릇)은 남아 있으므로 그 습관을 제거하는 것, 즉 깨달은 바를 더욱 숙련시켜서 완벽히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돈오와 점수는 별개의 것이 아닌 상부상조의 관계로서 깨달음을 보다 완벽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초 이 문제와 관련하여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즉 깨달으면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는 '돈오돈수(頓悟頓修)'와 깨달은 뒤에도 세속적인 습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 닦아야 한다는 '돈오점수(頓悟漸修)'에 관한 논쟁입니다. 돈오점수설을 주장했던 분은 고려시대의 선승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이었고, 새롭게 돈오돈수설을 주장한 분은 근래 한국의 선승 성철(性徹, 1911~1993) 스님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자신의 저서 <선문정로(禪門正路)>(1981년)에서 보조국사의 돈오점수설은 사설(邪說)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돈오- 수행의 단계 없이 단번에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

점수- 점진적 수행 통해 미망→깨달음으로 인식 전환

그것을 돈오라고 합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정리한다면, '점수(漸修)'의 사전적 해석은 앞의 설명과 같이 점차적으로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만. 오늘날 돈점 논쟁과 결부시켜 이야기할 때는 그 개념이 좀 다릅니다. 돈오 즉 처음 깨달음을 토대로 하여 점진적으로 더 수행하여 그 깨달음을 완벽하게 해 가는 것을 점수라고 합니다.

고려시대의 유명한 선승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은 자신의 글 <수심결>에서 돈오와 점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길에 두 가지가 있는데 '돈오'와 '점수'이다. 돈오는 자신의 성품이 바로 법신(진리)이며 부처(진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인식)이고, 점수는 비록 자신의 성품이 본래 부처와 다름없음을 깨달았지만 평소에 익혀진 육체적 습관은 단번에 제거할 수 없으므로 돈오를 바탕으로 더 닦아서 그 깨달은 바를 거뒤다(頓修)는 것입니다. 즉 깨달았다면 더 이상 닦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주장은 일정 부분 모두 타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보조국사가 돈오점수설을 주장한 것은 이치(논리적)로 보면 돈오돈수가 맞지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가 보편적인 인간, 즉 중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돈오돈수보다는 돈오점수가 더 옳다는 것이었고,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설은 보편적인 인간보다는 특수한 사람의 입장에서 말한 것으로서, 깨달은 뒤에 또 닦는다는 것은 철학적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철 스님이 돈오점수를 이해 못한 것도 아니고 보조지눌이 돈오돈수를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또 이 두 설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그 차이점은 무엇보다도 '돈오'에 대한 개념상의 차이입니다. 보조지눌은 처음 깨달은 것, 즉 깨달음의 첫 단계(초견성)를 '돈오'라고 규정했고(그러므로 더 닦아야 한다는 것이고), 성철 스님은 깨달음의 최종 단계, 즉 완벽한 깨달음에 도달한 증오(證悟)의 단계를 돈오로 본 것입니다. 이 논쟁은 이와 같이 돈오에 대한 개념상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 논쟁이 큰 파장을 몰고 온 것은 무려 800년 동안 한국선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보조지눌의 돈오점수설을 당시(1981) 종정이신 성철 스님께서 강한 어조로 비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이 문제는 많은 학자들과 스님들이 참여하여 10년 이상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어느 것이 옳다는 결론은 내리지 못했지만 깨달음과 수행에 대한 매우 진지한 토론이었습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앉은 채로 육신을 벗다

⑰ 방거사의 딸 영조

인도의 유마거사, 한국의 부설거사와 함께 '세계 3대 거사'로 추앙받는 방거사(龐居士). 본명이 방온(龐蘊, -808?)인 그는 유마의 화신, 보처대사(補處大士)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선종사에서 위상이 높다. 방거사 가족은 조리 만드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청빈하게 살았으나 아내와 아들, 딸이 모두 도인이었다. 특히 딸인 영조(靈照)는 아버지를 능가한다는 찬사를 받을 정도로 탁월한 선적인 안목을 가진 것으로 이름이 높다.

한 번은 선정에 들어 있던 방거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렵고 어려우니, 백석(白石)의 유마(油麻: 참깨)를 나무 위에서 뿌림과도 같도다."

참깨를 나무 위에서 뿌려서는 절대로 싹이 날 수 없듯, 분별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의미를 암시한다. 아내가 이를 듣고 화답했다.

"쉽고 쉬우니, 침상에서 내려와, 발이 땅을 밟음과도 같도다."

다만 분별에 서기 어려워질 뿐이니, 본래의 자기를 확인하여 '인위적이 조작이 없음'(無爲)이 어찌 쉬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미다.

그러자 딸 영조도 끼어들었다.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으니, 백초두상조사의(百草頭上祖師意)라!"

'백초(百草)'는 온갖 사물이란 뜻이다. 온갖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실상(實相)은 명백히 나타나 있으니, 그것은 어렵다거나 쉽다거나 하는 분별을 떠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세 사람이 동일한 견처(見處)를 드러내고 있다.

"아들 있되 장가 안 들고/딸은 딸대로 시집가지 않은 채/온 식구 모두 다 단란한 중에/함께 무생(無生: 불생불멸의 진리)의 얘기 주고 받나니" 라는 방거사의 게송이 말해 주듯, 온 가족이 깨달음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속에 있으면서도 청정한 가정생활을 영위한 방거사가 마침내, 입적을 예감하고 영조에게 말했다.

"인생이란 꿈 같고 허깨비 같은 것이다. 너는 너의 인연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라."

그러고는 지금이 몇 시쯤 되었는지, 밖에 나가 해의 위치를 알아보도록 일렀다. 밖에 나갔던 영조가 돌아와 말했다.

"벌써 정오가 될 시간이지만 마침 일식중이어서 확실치 않으니, 아버님이 직접 나가 보시지요."

그래서 밖에 나가 보았으나 일식도 아닌 것 같아 이상히 여긴 그가 방에 돌아왔더니, 어느덧 딸은 자리에 앉아 합장한 자세로 숨을 거둔 뒤였다.

이를 본 방거사는 웃으며 중얼댔다.

"내 딸이지만, 참으로 민첩하군!"

방거사는 딸의 장래를 위해 죽음을 일주일 연기했고, 그가 죽을 때는 마침 그 고을(襄陽) 태수 우적이 찾아왔다. 우적은 그의 친구이자 사법제자였고, 후일 <방거사어록>을 편찬한 사람이다.

이 때 거사와 딸의 시신은 암굴에 있고, 아내와 아들은 집을 지키고 있었다. 거리가 너무 먼 관계로 우적은 거사를 다비해 장사지내고, 그 후에 사람을 보내 가족에게 알렸다.

온가족이 '좌탈입망' 경지 도달

'생사일여' 가르침 온몸으로 보여

"늙은이의 장례도 안 지내주고 먼저 가다니…."

딸을 나무란 방거사의 아내는, 들에 나가 있는 아들을 찾아가 부음을 전했다.

이때 아들은 '앗!'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잠시 뒤에 보니 어느덧 선 채로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노파마저 어디론가 사라져 자취를 끊었다. '앉아서 죽고(坐脫)' '서서 죽는 것(立亡)'을 자재히 해낸 방거사 가족의 예는 고금에 드문 일이 아닐 수 없다.

영조는 제방의 선원을 주유하는 아버지 방거사를 따라 다니며 모셨다. 대나무 조리를 저자에 내다 팔아 아버지를 봉양하고 온갖 수발을 들었다. 구체적인 수행이력은 알 수 없지만, 영조는 방거사로부터 선리(禪理)를 배워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이 여러 선어록의 기록이다.

김성우 기자(buddhapia5@buddhapia.com)

신행게시판

●**한국위빠사나선원 3월 직장인반 개강**=한국위빠사나선원이 5월 7일부터 직장인을 위한 수요일 저녁반을 개강한다. 저녁 7시 시작하는 직장인 저녁반은 우 소바나 사야도의 법문집 〈12연기〉와 위빠사나를 교재로 위빠사나 수행의 기초과정부터 깨달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교육한다. 한국위빠사나선원의 수행방식은 몸을 알아차리는 기존의 수행법 외에 마음과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중점을 둔다. 특히 12연기를 통한 위빠사나 수행까지 할 수 있어 다양한 수행방법을 배울 수 있다. 수행기간은 6개월을 예정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강좌가 이어진다. (02)512-5258

●**법왕사 '7인 큰스님 초청, 연등맞이 특별법회'**=대구 법왕사가 '7인 큰스님 초청, 연등맞이 특별법회'를 개최한다.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이 5월 5일 법문을 열면, 관오사불교사회복지회 회주 자광 스님이 6일,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이 7일,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정무 스님이 8일, 한국불교통신대학장 활안 스님이 9일, 동화사 강주 지운 스님이 10일, 운문사 학감 일진 스님이 11일 법문에 나선다. 매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이번 특별법회는 법왕사 법당에서 열린다. 초파일 전야인 11일에는 저녁 7시 법문이 이어지고 인도성악가 허찰영씨가 특별출연해 불교음악을 선사한다. (053)766-3747

●**영평사 템플스테이**=공주 영평사가 5~6월 상설템플스테이 일정을 발표했다. 5월 17~18일, 24~26일, 31일~6월 1일, 6~8일, 14~15일, 21~22일, 28~29일 열린다. 상설로 운영되는 1박2일 코스 외에도 2박3일, 3박4일, 5박6일, 7박8일 코스도 신청 가능하다. 좌선 걷기명상, 대비주 주력, 구절초 백련차 마시기, 108배, 백련꽃길 산책, 사찰음식 맛보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041)857-1854

●**월정사 걷기대회 수행학림 등 행사**=평창 월정사가 5월 한달 간 걷기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5월 3~4일 제4회 한암 대종사 수행학림을 개최한다. 월정사 상원사 중대사자암 적멸보궁을 돌며 한암 대종사의 수행법을 배우고 실수하는 시간을 가진다. 4~5일 오대산 전국 디지털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10일 오전 10시부터는 오대산 천년의 숲 '옛길 따라' 걷기 대회를, 27일 오전 11시에는 탄허 대종사 선서함양 전국휘호대회를 한글 한문 문인화 분야로 나눠 개최한다. 부처님오신날이 있는 5월 월정사의 다채로운 행사 속에 푹 빠져보자. (033)332-6661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불교장애 복지의 리더, 승가원
봉 부처님오신날 축
부처님 오신날, 불자님의 소망을 담아 밝히는 연등공양.
올 해에는 승가원에도 연등을 밝혀주세요
자비나눔등
불자님의 소원과 장애가족의 희망을 함께 들어주는 연등!
분홍연등의 주인공 김인하 아동
(10세, 지적장애1급)
구강근육이 발달하지 못해 가사없는 노래를 부를 수 밖에 없는 인하.
인하가 언어치료를 받고 또박또박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불자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자비나눔등 신청 승가원 법인사무국 02) 928-
108 특별연등 (부처님연단 한정) : 개인 10만원, 가족 20만원
1년등 : 개인 5만원, 가족 10만원 1일등 : 개인 1만원, 가족 3만원
* 자비나눔등 신청금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승가원 홈페이지 사이버법당에 들어오시면 불자님의 연등 위치를 직접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www.sgwon.or.k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법 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백련 종근 분양
백련 종근 분양
(충남 금산)
011-675-1288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 전국 택배가능 ◁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원인없이 아프신분 영험
궁금증 즉시 해결
수국사 원성 합장
02)2603-2992
011-340-5963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 개인지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자격취득안내
◦포교사 분야 : 상담포교사, 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 불음법회포교사, 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 국악연주포교사, 장묘관리포교사
◦법사분야 : 상담법사, 교법사, 상담지도법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 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 국악지도법사
◦대법사분야 : 교학사, 종학사, 종사, 대사, 선사, 율사
(법인등기 제1969호)
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대한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영산재 제9호 작법무 교육도량
●학인수시모집 : 범음, 범패, 바라, 나비춤
●사찰행사 : 49재, 천도재, 점안식, 구병시식
010-3928-0006
무량사 무상 합장

이혼녀보호소
㉮ 오갈데 없는 이혼녀를 보호 해 드립니다
㉯ 복잡한 이혼문제 도와 드립니다
031)753-8484
011-354-8484

바라 · 작법무등은 원할경우에만 시연해 드리며 큰 법력으로 사물과 함께 우리말 · 한문등을 마음대로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49재 및 불상, 불화 점안 각종 불공의식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854-8107
무진장 합장

보살선방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적천수 · 사주명리학 개인지도
명리학의 경전, 적천수 10간론 적천수 핵심원리적용, 적중률 90%이상 (용신잡는법)(통변)실전위주 책임지도 대운 · 년운의 정확한 운세대입 수년을 공부해도 실전, 통변을 못하는분 적천수를 (아는)자만이 (천기)를 안다 신생아작명, 모든 운명을 감정해 드립니다
한국 적천수 명리교육원
042)255-1186
010-6730-1186

계룡산 손바닥 토종 선인장
영하 20~30도 노지에서도 얼어죽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 성인병 예방에 신이 주신선물
(분양안내)
019-9765-8052
공주시 계룡면 관음기도도량 원각사
•효능 : 잇몸 염증, 당뇨, 퇴행성 관절염, 심한 가려움증, 아토피염, 쑥쓰림, 위염, 심한 변비등 탁월한 효과

비구,비구니 모십니다
(모든 제 의식 가능한 스님)
제 의식 봉행할 때만 오셔 도 됨
부산 근교 스님 환영
051)502-656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대 이상
055)333-0705

조계종 내원암 보궁을 수행하며 관리 운영할 비구, 비구니, 40~50대의 은사를 의지할 상좌를 찾고 있으며 또한 깨끗하고 조용한 후원에 불연이 깊은 40~50대의 공양주 구합니다
054)653-1180
010-6353-1180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묵조선 명상선원
종무소 02)464-8305

출가에 뜻이 있는 여(女)행자 모집
1.신분이 확실한 자
2.나이 제한 없음
3.불교대학 과정(지원)
4.소정의 교육이후 주지 발령
문의 010-2599-6020
우리절 육지장사 여여합장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남 하동
010-3138-4897

미국(L.A.)에서 수행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외국비자 있는 스님에 한함
부전스님 모십니다
042)282-9270

부처님 모시고 공부하고 기도할수 있는 장소(빈가옥, 산 기타) 무임으로 약 3년정도 빌려주실 불자님을 기다립니다. 또한 선망 조상님, 천도재,49재도 형편이 여의치 못하신분들께서도 연락주시면 무임으로 성실히 모시겠습니다
010-4475-3552
02)934-3352

경주 산사 후원보살님 모십니다
(퇴직금 지급)
011-876-5078
054)772-4133

기도스님 모십니다
(조계종 사찰)
055)261-7505

사무직 직원 구함
(기혼자 환영)
PC가능한 분 모심
▷위치: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대한불교 조계종 정토사에서 근무
055)353-6768
011-854-4960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통화 중일때는 02-574-3427) 핸드폰 011-498-5067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비구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7-206-0113

조계종 사찰에서 행자구합니다
출가 수행의 뜻이 있는 남자
▷자격:17세~45세, 고졸
1인1실 개인지도함
054)452-0845
054)452-6065

부전스님 구합니다
011-591-8228

경관이 좋은 산사에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양산)
010-3647-001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011-9045-9045

보살님이 창건한 사찰에서 무보시로 기도(부전)하고 싶습니다
(40대 후반 조계종 비구승)
010-2014-34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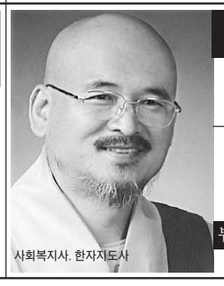
여 사무장
(비구니 스님도 가능)
구합니다
▷월 50만원
055)744-3973
011-595-3973

부전 기도스님자리 원합니다
4월 8일 행사까지만 기도할수있는 부전자리 원합니다
(차후 협의하에 오래 있을수도 있음)
010-2606-1299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50초반 비구승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마음,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곳 찾아오는 모든이에게 행복한 미소를 찾아주는 수행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위치 : 부산 근교
조용한 기도처를 제공하실 소중한 불자 인연 기다립니다.
011-594-1526

역 학 공 부
•사주 + 궁합 + 택일 + 작명(초급) 매 화요일 18: 30
•전문가 과정 :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주역, 풍수, 관상: 수요일 18:30 수강생 무료 수강 원장 전용원 박사
인터넷 동영상 강의 : 사주+궁합+택일+작명(전과정 완성)=45만원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관인 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 출구 도보 2분. 전화 1688-1137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한국(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가장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會主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새법요집,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6-8228	053)313-8228	054)443-8228

※ 행자(예비스님)모집 -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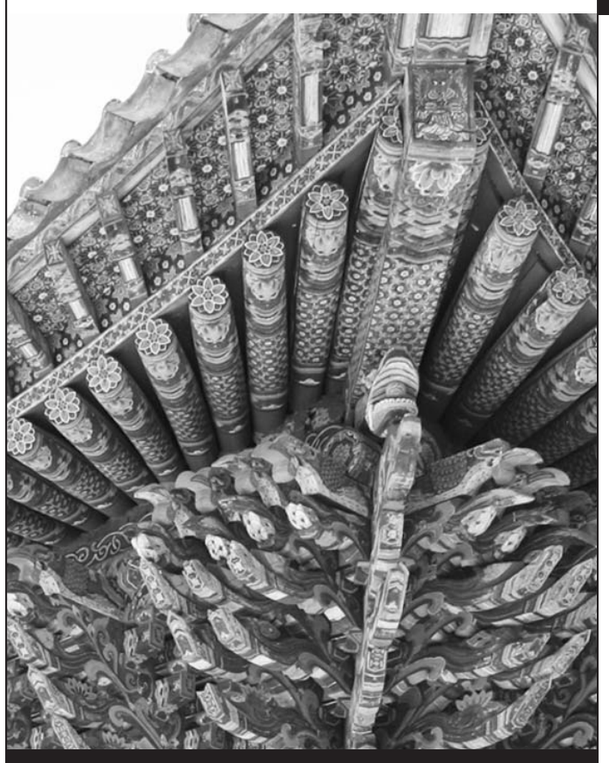
육임 수강생 모집
「육임 수강생 모집」
■ 공념 학당에서는 기초에서 백가지 비법인 백법까지 마스터 할 수있는 육임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동영상과 직강을 동시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를 익힌 다음에는 720 국수자료로 그때그때 알고자 하는 질문에 답으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풀이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신간안내 '육임이 보인다'
육임공부를 보다 쉽게 할수 있는 강의록이 출간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육임이 어려워 공부를 망설이신 분은 새로 출간된 '육임이 보인다'로 공부 하시면 보다 간결하고 한눈에 알수 있도록 각 점단마다 국수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쓰지 않은 시간법으로 초사를 말할수 있도록 강의록에 수록 되었습니다.
공 념 학 당
■ 상담문의 : 02)793-7333(전화 상담도 가능)
■ 홈페이지 : www.saju79.com(강의 홈페이지)
www.unsemaru.com(운세상담 홈페이지)
■ 사 무 실 :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예금주 : 박옥자)

승려 체탈도첩 및 직위 제명 건
◆ 체탈도첩 법명 : 혜수(신능운), 일봉(장월봉)
상기자 장월봉, 신능운은 여래종 호법원장 및 인왕문도회장 재직 중 호법원장으로 종도 이간질, 여래종 비방, 은사에 대한 폭언과 약 5개월 전 종도들을 상대로 탈종권고와 종정 예하 비방 등을 일삼았으나 반성 기미를 보이지 않아 승려로써의 자질과 은사의 인연을 고발 하고자 체탈도첩 및 직위 제명을 한다.
작 성 이 유
• 해종 행위
• 종정 예하 비방
• 문 · 종도 이간질
• 호법원장으로써 품위 훼손
※ 결과 : 교계 신문에 게재
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장

정토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불교의식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정토불교법사대학에서 확실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안내
◆개강일자 : 2008년 5월 6일(화) 오후 3시 (목탁 지참)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테이프 우송)
교육내용
(1)송주편 (도량석, 조.석 종성)
(2)예경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3)헌공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불공시식, 지장, 관음, 신중청 등)
(4)제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5)시식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구병시식 등)
교육기간 단기 속성 3개월 과정
신청방법 전화접수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수강신청서. 사진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의식방법을 현장실습 위주로 집중 지도함.
○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정 토 불 교 법 사 대 학
서울시 중랑구 망우 1동 403-15 (3F)
TEL 02)2208-6097, 6098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 안내

- 위치 : 진주 사천
- 총평수 : 8,000평(100% 사용가능)
- 종교용지 및 버스주차장
- 법당 30평, 산신각 20평, 관음전20평, 대중방 15평, 요사채 70평
- 정남향, 좌우 청룡백호 현무의 자태 완벽한 산세
- 가액 : 24억원 반값매각(개인사정 급)

임법당
- 위치 : 부산 범일동
- 대지평수 120평(시유지)
- 건물 : 약 30평(등기필)
- 법당 12평, 요사 방 3칸, 주방 및 화장실(초현대식)
- 마당 5층 석탑
- 정남향, 전망최고, 뒷산 접
- 가액 : 9,500만원

사찰전문 부산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근교 사찰부지 및 사찰, 임법당, 토굴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21평
- 요사 : 20평
- 부지 : 190평
- 가액 : 7억 5천 (융자 2억 가능)

- 위치 : 충북
- 법당 : 13평
- 요사 : 40평
- 부지 : 380평
- 가액 : 3억5천

- 위치 : 강원 동해
- 법당 : 20평
- 요사 : 60평
- 부지 : 800평
- 가액 : 5억2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수행과 포교의 일거양득처

- 위치 : 대전시
- 2층 건물중 2층 5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45만원, 시설비 1500만원
- 주차와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유명한 사적공원과 산이 있어 일년내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목에 있으며 수행과 포교를 병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도량으로 양도하기 아쉽지만 부득이 인연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042)633-849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양
- 종교부지 약 260평
- 법당 22평(현 불사중) 요사채 32평(현대식) 창고, 산신각
- 가액은 원하는 금액에 양도하고자 함

010-3553-789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양산시 (부산에서 20분 거리)
- 평수 : 총 54평
- 법당, 공양실, 방3개 부처님, 탱화
- 보증금 2천만원, 월45만원 시설비 없음

010-2599-6020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팔공산자락 (동화사 근교)전통사찰
- 대지 : 720평, 법당50평, 30평 요사채30평, 종무소 20평
- 가액 : 13억원

대구시내, 근교사찰터

- 가액 : 2억 5천 ~20억
- 평수, 금액 다양함 (사찰 양도하실 분 소문없이 해결 해 드립니다)

019-534-723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칠곡 (구미시에서 5분거리) 인근에 신도시 개발중
- 평수 : 740평
- 대웅전,삼성각, 요사채, 종무소
- 가액 : 4억 5천
- 실사용면적 1,000여평

011-9598-3399

절터 별장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선산 근교
- 관리지역 약 500여평
- 가액 : 4천5백만원

010-4707-8090

도심사찰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 2층 40평내 법당1, 큰방2, 스님서재방1
- 부처님 삼세불 4자3치, 후불목탱 순금조성 14자6치 신중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칠성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 완벽하고 깔끔한 사찰, 즉시입주
- 전세 5천만원, 월세가능, 주차확실
- 비구니스님도량으로 완벽함
- 주인 직거래, 답사하시어 의논바람

011-650-8481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 임법당 1, 공양간 1, 컨테이너방 2개
- 산신불 모셔져 있음
- 스님 기도하기 최적합
- 물좋고 조용한 산사 산약초, 텃밭 있음
- 가액 : 3천만원

010-4660-5388

사 찰 안 내

- 위치 : 합천
- 평수 : 1530평 법당15평, 요사채 40평
- 화장실, 샤워실 별도 지하수, 심야보일러 설치
- 법당 앞에 연못과 조경 편안하고 포근한 산자락에 위치한 기도도량
- 가액 : 1억 5천

010-9690-2236

제주 암자 안내

- 위치 : 제주시 오라동 공항에서 10분 거리
- 대지 : 194평 마당에 연못 있음
- 임법당 30평(법당 15평) 공양간 25평
- 가액 : 3억 8천만원

018-590-3583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 중 대지 3000여평 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010-6304-5998

경 치 좋 은 산

- 충북 보은 시내에서 20분거리
- 바위 위에서 나오는 생수 야경 으뜸
- 대지 252평,전답 730평 법당 목조 신축 12평
- 요사채 황토집기와, 방5, 거실1, 조립식 3동
- 가액 : 2억 3천만원

018-406-307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사천읍
- 평수 65평, 시설완벽
- 즉시입주 법회가능
- 종단 주지발령으로 급 안내
- 보증금 2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 절충

055)855-5950
018-622-986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 평수 : 111평(법당외부단청)
- 건물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공양간 등 4채 방 5개 심야보일러 설치 마당에 5층 석탑 있음
- 가액 : 1억 5천5백만원(절충가능) 사정상 시세이하 계산함

010-3007-561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내
- 평수 : 250평
- 대웅전 25평, 삼성각 6평 요사채 30평, 주지실, 종무소 6평
- 보증금 4천만원, 월 20만원 사찰 규모 완벽함, 시설비 조금
- 사정상 급안내

055)674-5978
011-9393-2323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근교
- 평수 : 약 110평
- 법당 : 약 55평(삼존불,삼성단등)
- 요사 : 약 55평 (방3개,상담실,거실등)
- 가액 : 3억 3천만원(융자별도)

050)2345-156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 부천시 (경인 국도변)
- 평수 : 70평
- 방3, 법당, 공양간 도시가스, 샤워실, 시설완비
- 즉시 법회 및 숙식가능

010-7112-18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덕성부락 1364번지
- 총 약280평
- ㄱ자 집 2채, 법당, 요사채
- 가액 : 8천만원(융자 4천만원) 답사 후 절충가능

055)747-8350
017-552-7350

암자토굴 안내

- 위치 : 합천 해인사 안 계곡 (가야산)
- 크기 : 450평
- 앞쪽 계곡, 뒤는 산
- 임법당, 요사채 45평, 방7개 옛집 12평, 창고 20평 전답 800평 사용
- 심야보일러, 법당, 주방 일체완비
- 특징 : 해인사 계곡, 해발 900고지 최신 황토방, 요사채
- 가액 : 9천 8백만원(대출가능)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요

010-6797-3223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
- 총 700평
- 법당 17평 한옥 (내부 5평 임법당)
- 요사채 24평
- 마당 잔디밭 약200평 이상 신축 5년, 주차장 별도
- 가액 : 2억원

011-772-478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괴정3동 (지하철 5분거리)
- 법당 시설 완비 차 진입가능,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답사 후 절충

051)294-1204
010-9998-292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원주시 문막읍 버스정류장 앞 2층
- 약 30평
- 삼존불, 각 탱화, 집기일체
- 교통편리, 즉시법회가능
- 역학하시는 스님, 법사, 보살님 환영
- 보증금 3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7-274-082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수영지하철역 부근
- 50평(6층 건물중 6층)
- 특징 : 교통편리, 전망좋음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 상담 후 절충

011-588-220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김해 시내
- 50평, 4층 건물중 3층
- 법당1, 큰방2, 사무실2 살림가능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5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절충

010-5669-1414

토 굴 터 안 내

- 위치 : 상주시 화남면 속리산 아래
- 약 170평. 계곡접
- 목조, 흙벽돌 건물 건축중인 토굴
- 가액 : 4,000만원

011-701-0232

사 찰 양 도

- 위치: 경산시 용성
- 대지 237평, 텃밭 665평 합 902평
- 법당 약20평, 요사 30평
- 심야보일러
- 동불 삼존불 후불, 신중, 지장탱화
- 마당까지 차 진입
- 양도가 : 2억2천5백만원

011-509-012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포교의 최적지)
- 6층 건물중 4, 6층. 각 70평, 총 140평
- 법당, 종무실, 방2, 공양간 최신 시설완비,즉시 법회 및 숙식가능
- 보증금 3천만원, 월160만원 시설비 : 꼭 하실분 절충
- 스님 사정상 급 안내 (삼존불 및 후불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미륵불, 관음지장원불)

010-2774-1250
031)653-0355

사찰 및 암자터

- 위치 : 경남 남해 용문사 뒷편
- 임야 : 2,200평(관리지역)
- 평당 7만원(절충가능)
- 저수지, 계곡 함께 접함 뒷산에 와불부처님 형세

055)833-7447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종로 요지
- 가액 : 20억 (상담 후 결정)

011-9732-4746

사 찰 안 내

- 경북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형산 생활주거지는 포항입니다
- 대지 : 406평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 심야에어컨, 심야보일러 완벽하게 설치되어있음
- 가액 : 3억 2천만원

011-542-0982
054)762-7389

미륵사 절 안내

- 위치 : 이천시 갈산동 76-1번지 (이천 법원 옆)
- 대지 513평, 법당 25평
- 특징 : 설봉호텔, 미란다호텔 등으로 둘러싸인 이천의 요지, 영험한 고려시대 미륵 돌부처님 전장 4.7m 향토유적 지정
- 가액 : 6억 5천만원

031)638-6880
010-5600-6880
017-212-688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대구대 앞 대로변)
- 법당 42평 (5층 건물중 2층)
- 삼존불, 108호신불 방1,주방,샤워실(비품일체 양도)
- 가액 : 시설비 1,200만원 보증금 500만원, 월45만원 급한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함

010-5013-252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광진구 화양동
- 3층 건물중 2층, 3층(각 24평) 2층 요사채, 3층 법당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1억5천만원 (보증금, 시설비 포함)

010-8028-0660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동 청수장 (국립공원 주차장 내)
- 임법당 50평 주차장 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 1억 3천 5백만원 (전세, 시설비 포함)

010-4532-792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앞 주택지)
- 4층 건물의 3,4층 전세(120평)
- 진신사리 봉안
- ※ 30여 년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상 급 안내 합니다.
- 최고의 시설, 일산상의 이유로 부득이 저렴하게 양도함
- 가액 : 총 4억 (절충가능)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02)338-0567

사 찰 중 개

- 위치 : 경기
- 부지 : 1,000평
- 법당 : 30평 목조
- 요사 : 30평
- 가액 : 10억

- 위치 : 서울산아래
- 대지 : 국유 300
- 법당 : 45평기와
- 요사 : 25평
- 가액 : 9억

전국사찰암자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특급)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 교통 : 삼랑진IC 7분, 밀양 25분 거리(2차선 도로 포장)
- 부지 : 5200평(종교용지 1050평)
- 법당 : 대웅전(목조 5포9포 단청) 25평, 지장전 20평, 관음전, 삼성각
- 요사 : 설송당(목조) 18평, 자양당 43평, 요사 52평
- 환경 : 수려한 산속 지장기도도량, 좌청룡 우백호 명당
- 가액 : 시세 저렴 직거래 상담 후 결정

창건주 건강문제로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55)356-6887 (야)
010-3865-341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보령시 (대천여중 사거리 대로변)
- 법당 : 50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시설A급, 즉시법회가능
- 포교활동 하시는 분 최적지

010-9288-9930

(특)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신도시 부근
- 부지 : 680평(실제 1300평이상 활용) 납골당 가능
- 대웅전 20평, 요사채 2(100평, 20평), 창고 2동
- 도시 속 노송 우거진 풍치 수려한 절 두개의 신도시(차로 5분) 서울(차로 25분) 교통요지 포교와 신행의 최적지, 시설좋음
- 창건주 건강문제로 부득이 좋은인연 기다립니다
- 가액 : 주택가격이 평당 500 ~ 1천만원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내방 후 결정

010-5290-370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제기동 경동시장 내 천은당 한의원과 같이 있는 한옥 1채
- 평수 : 약 25평
- 부처님 모셔져 있음, 시설완비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300만원

02)967-419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동
- 법당 : 65평
- 특징 :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전철역에서 5분 거리 롯데백화점 근교, 주차자 완비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90만원
- 최고의 시설,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저렴하게 양도함

011-9850-1348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반야계곡
- 평수 : 3200평 ● 대지 : 20평
- 가액 : 6천만원

016-9707-3108

최고의 시설(포교원)

- 위치 : 경북 대구 바로 옆 경산시 중심가 교통의 중심가, 주차장 완비
- 5층(엘리베이터) 옥상사용
- 삼존불 탱화, 약사여래불 탱화, 신중탱화
- 평수 : 80평(법당 40평 마루)
- 방3개(주지실, 사무실, 주방) 후원
- 시설비 3000만원, 월70만원 급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함

010-2051-6705

경허 만공

선풍과 법맥 학술세미나

근대 한국불교 선맥 증흥시킨 대선승

길을 가던 스승과 제자, 경허 스님과 만공 스님이 시냇물을 건너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처녀를 만났다. 처녀를 등에 업고 물을 건네준 한참 뒤 경허 스님에게 만공 스님이 물었다. "출가자가 어찌 젊은 여자를 업을 수 있습니까?"하자, 경허 스님은 "나는 그 처자를 냇가에 내려놓고 왔는데 너는 아직도 그 처자를 업고 있느냐?"

일화에 소개된 경허 스님은 1899년 해인사 정혜결사를 필두로 통도사, 범어사, 화엄사, 송광사 등에서 수선결사를 조직해 영·호남 일대에 간화선풍을 드날린 선지식이다. 경허 스님의 법맥을 이은 만공 스님 역시 40여년간 덕숭산에 주석하며 수많은 납자를 길러낸 종장이다. 정혜사, 견성암, 간월암 중창과 1920년대 초 선학원 설립과 선우공제회 운동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두 스님 모두 조선말 쓰러져가는 한국 불교를



설정 스님(덕숭총림 수좌)이 경허·만공 스님의 선풍과 법맥을 주제로 강연 중이다.

"경허는 禪·敎 달통 생사 등 분별 끊긴 무애도인으로 불려"

지탱한 동량이었다.

그동안 경허·만공에 대한 연구는 근현대 불교사 연구가 미진한 가운데서도 수차례 발표·정리됐다. 덕숭총림 수덕사 부설 한국불교선학연구원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경허·만공 스님과 관련한 학술회의를 정리해 총 5권의 <덕숭선학>을 출간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허와 만공 스님이 근대 한국불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춰볼 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경허 스님은 쇠잔한 선풍을 되살린 대선지식이라는 평가와는 달리 자유분방했던 무애행이 한국불교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는 평가가 교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간의 연구를 회통하고 미진했던 두 스님에 관한 연구를 보완해 한국불교의 미래를 비추고자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와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옹산)가 '경허·만공의 선풍과 법맥'을 주제로 4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설정 스님(덕숭총림 수좌)의 '경허·만공의 선풍과 법맥을 되돌아보며'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로 시작한 세미나는 최병헌 교수(서울대)의 '근대 한국불교의 선풍 진작과 덕숭총림', 고영섭 교수(동국대)의 '경허의 행장과 수행가풍', 변희욱(서울대 강사)씨의 '경허의 선사상에 대한 재조명', 김경집 교수(진각대)의 '근대 한국불교에서 만공의 활동', 황인규 교수(동국대)의 '근대 비구니의 동향과 덕숭총림 비구니들', 오경후 선임연구원(선리연구원)의 '경허·만공의 법맥과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 등 7편의 주제발표로 이어졌다. 설정 스님의 기조강연과 참석자들에게 주목받은 논문 두 편을 소개한다.

한국 불교와 민족을 아우른 선지식

설정 스님은 기조강연 '경허·만공의 선풍과 법맥을 되돌아보며'에서 경허는 선교에 모두 달통했던 선지식이라 소개했다. 경허를 생사 등 분별이 끊긴 무애도인으로 설명한 스님은 "해인사 간경불사 때 조실이던 경허는 <선문촬요>를 저술했고, 화엄법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설정 스님은 "경허는 화엄법회 당시 <대방광불화엄경>의 '대(大)' 한글자만으로 1주일간 법문을 할 만큼 선교를 겸수했었다"고 강조했다.

설정 스님은 "만공은 경허를 가장 오래 시봉했고 유지를 받들어 법을 펼쳤지만 그 법에 차이가 있었다. 정법안장을 구현한 철저한 실참 만이 참 중노릇이라 가르쳤다"고 말했다. 스님은 "만공은 정법안장 구현이 유무에 따라 승속을 나눴을 정도로 철저했다"고 설명했다. 만공이 민족불교를 주창했던 인물이었다는 내용도 있었다. 스님은 "일본 강점기때 많은 승려들이 창씨개명 했지만 만공과 그 제자들은 창씨개명을 거부했었다. 민족불교의 주체성을 지켜 선학원을 건립하고 유교법회를 봉행해 종지종풍을 바로 세운 인물이 만공"이라 주장했다.

또 스님은 "일선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만해와 김좌진을 뒤에서 돕던 만공은 항상 '광복은 반드시 된다. 광복보다 광복 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간월도 암자에 얽힌 일화를 소개했다. 설정 스님은 "간월도에 있던 사찰을 선비들이 없애고 묘를 쓴 일이 있었다. 만공은 조선총독부에 건의해 파묘하고 다시 사찰을 지었고 그곳에서 1000일 기도를 시작하며 기도가 끝나는 날 광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기도회향하는 날 광복이 됐다. 광복 후 민족분단이 된 만공의 우려도 기우가 아니었다. 이처럼 만공 스님은 민족의 장래까지도 훤히 비춰보던 선지식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능화 등의 비판은 경허 업적에 대한 반증

'근대 한국불교의 선풍 진작과 덕숭총림'을 발표한 최병헌 교수(서울대)는 "근대 한국불교는 조선조 500년 동안 억불정책으로 명맥만 유지하다 일본 제국주의 침탈과 일본불교의 왜곡으로 변질되던 위기였다. 여러 곳에 선원과 선실을 개설하는 등 선수행 풍토 진작에 앞장섰던 경허는 간화선 부흥자인 동시에 근대 한국불교의 중흥조"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1918년 간행된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를 인용해 "근대 한국불교는 선종이 교종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였다"고 말했다. 그 배경에 대해 최병헌 교수는 "조선 후기 선수행 기풍이 사라지고 강학·염불 등이 혼합돼 선종은 형체만 남은 외선내교(外禪內敎: 밖으로는 선을 하지만 실제로는 교를 닦는 기풍)였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일제강점 이전부터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각 종파들이 한국 불교를 장악하려 했다. 일제강점 후로는 사찰령과 30본산제를 통한 조선총독부의 한국불교 왜곡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을 찬양하며 협력했던 이능화가 <조선불교통사>에서 경허에 대한 많은 지면을 할애했던 것은 경허가 한국불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라면서 "당시 경허의 선법은 마설(魔說)로 비판받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대승보살의 화신, 경허

고영섭 교수(동국대)는 '경허의 살림살이와 마음가짐-간경불사와 수선결사의 역사적 의의'를 통해 "경허의 삶이 담긴 '살림살이'와 생각이 투영된 '마음가짐'의 기호가 역사와 철학 혹은 불사와 결사를 읽어내는 기표가 된다"고 전제했다.

고 교수는 경허의 언어관을 행리와 행장의 검토, 간경과 불사, 가사와 노래로 나누고, 경허의 실천관을 수행·가풍의 분석 등으로 나눠 설명해 주목을 끌었다.

고영섭 교수는 "<참선곡> <중노릇 하는 법> 등 경허의 저술은 모두 국한문 혼용체였다"면서 "경허의 간경과 불사는 불교의 외연을 넓힌 불사"라고 정리했다. 그는 "견해가 같고 행동을 같이 하려는 사람이면 승속·남녀·노소·귀천 등 일체의 차별을 여읜 경허의 결사는 성불의 폭을 넓힌 불사"라고 평가했다.

말년에 서당 훈장으로 살다간 경허를 고 교수는 "사문 경허에서 거사 선생 박난주로 인간상의 전환을 보였다"고 표현한 뒤 "속세를 넘나든 경허의 모습에서 불교적 인간상 창출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만공은 민족불교 주창 독립 이후 분단까지 훤히 비춰보던 선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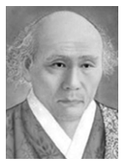
●경허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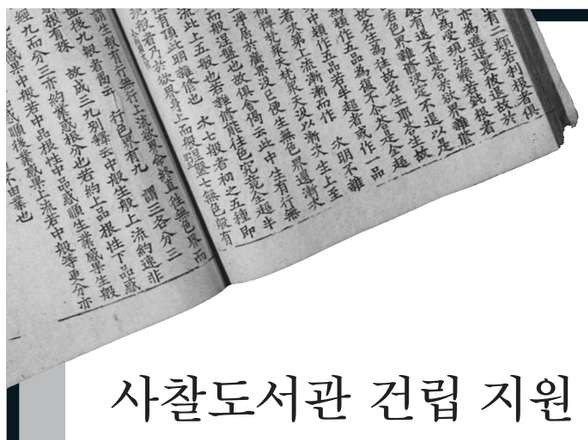
경허성우(鏡虛性牛, 1846~1912) 선사는 9세 때 경기 청계사에서 출가해 계허 스님의 제자가 됐다. 14세에 사서삼경을 배우고 23세에 동학사 강사가 됐다.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을 보고 사교입선했다.

영운 선사의 "나귀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닥쳐왔다"는 화두를 들고 정진하던 중 "소가 되어도 고삐 뚫을 구멍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라는 질문에 모든 이치를 깨달아 활연대오 했다. 56세에 만공에게 법을 전하고 서당 훈장으로 말년을 보내다 1912년 4월 25일 함경도에서 세수 67세, 법랍 59세로 입적했다.

●만공 스님



만공월면(滿空月面,1871~1946) 선사는 경허의 제자로 13세에 불상을 보고 감동받아 출가했다. 경허의 법을 이어 덕숭산에 금선대를 짓고 정진하며 전국의 납자들을 제접했다. 수덕사·정혜사·견성암을 중창하고 많은 사부대중을 거느리며 선풍을 드날렸다. 덕숭산 전월사에서 1946년 10월 20일 세수 75세, 법랍 62세로 입적했다. 덕숭 문중 법맥을 형성해 비구 보월·혜암·전강·금오·벽초·원담 등과 비구니 법희·만성·일엽 등 당대의 선지식들을 제자로 뒀다.



【출품도서】 20% 할인판매

가야산 호랑이를 만나다 · 9,800원 · 법전스님 외 · 아름다운 인연
간화선 입문 (1) · 8,000원 · 조계종 포교원 · 조계종출판사
광대와 화가 · 9,000원 · 최기인 · 아름다운 인연
사찰 어느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 12,000원 · 목경찬 · 조계종출판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 9,000원 · 최기인 · 아름다운 인연
스트레스드는 나의 스승이다 · 11,000원 · 김정호 · 아름다운 인연
애들아 절에 가자 · 9,000원 · 홍주연 · 조계종출판사
염불수행 입문 ③ · 8,000원 · 조계종 교육원 · 조계종출판사
우리에게 오신 부처님 · 9,800원 · 이슬기 · 조계종출판사
정수행 입문 (2) · 6,000원 · 조계종 교육원 · 조계종출판사
365일 부처님 말씀 · 7,500원 · 윤청광 · 명진사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 7,500원 · 석지현 · 민족사
간추린 불교상식 100문 100답 · 13,000원 · 정승석 · 민족사
간추린불교상식 100문 100답 · 13,000원 · 정승석 · 민족사
간화선 · 17,000원 · 조계종 교육원 · 조계종출판사
갈림길이 살게나 물처럼 바람처럼 · 10,000원 · 윤청광 · 우리출판사
경전과 함께 보는부다의 말씀처럼 · 12,000원 · 이상규 지음 · 불광출판사
계율학개론 · 9,800원 · 목정배 · 장경각
계초심학인문 새로 읽기 · 5,000원 · 김호성 · 정우서적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 · 30,000원 · 김 윤 곤 · 불교시대사
고려불화, 실크로드를 흘러 · 20,000원 · 김영태 · 문수사
고마워요 저바당사 · 12,000원 · 마가스님, 이주영 지음 · 불광출판사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 · 10,000원 · 이 미 형 · 불교시대사
고타마 붓다 · 9,000원 · 최봉수 옮김 · 불광출판사
과거현재인과경 · 8,500원 · 혜원 · 민족사
관음경사경 · 6,000원 · 윤석우 · 운주사
관음기도 경덕 · 6,500원 · 윤청화 · 민족사
구 법 · 18,500원 · 정운스님 · 솔바람
그대 몸 안에 있는 여섯 도둑부터 잡으시게 · 10,000원 · 윤청광 · 우리출판사
그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 10,000원 · 윤청광 · 우리출판사
그리운 아버지의 숨냄새 · 7,000원 · 이미령 지음 · 불광출판사
극락도 지옥도 마음속에 있다네 · 10,000원 · 윤청광 · 우리출판사
근본불교 · 10,000원 · 이중표 · 민족사
금강경 · 7,000원 · 정호영 · 민족사
금강경 강의 · 7,500원 · 무비스님 · 불광출판사
금강경 강의 · 7,500원 · 무비스님 · 불광출판사
금강경 이야기 · 9,000원 · 무비 · 운주사
금강경, 깨달음에는 길이 없다 · 9,000원 · 김광하 · 운주사
금강경강송 · 12,000원 · 이중표 · 민족사
금강경사경 · 5,000원 · 윤석우 · 운주사
금강경-심상사성 · 10,000원 · 우 승 태 지음 · 불교시대사
기공이란 무엇인가 · 12,000원 · 이 명 복 · 불교시대사
깊어의 삶, 깊적의 화두 · 9,500원 · 김광하 · 운주사
깨달라설리의 수습차별관계, · 20,000원 · 중 암 · 불교시대사
깨달음으로 가는 배움 수행 · 12,000원 · 박한서거양회 · 여명 · 운주사
깨침의 말씀 깨침의 마음 · 15,000원 · 석 지 명 · 불교시대사
나도 때론 울고 싶다 · 12,000원 · 지은이 · 주경스님 · 불광출판사
나마스테, 여기는 붓다의 나라 · 14,500원 · 향덕 · 운주사
날마다 읽는 부처님 말씀 · 12,000원 · 홍사성 · 우리출판사
날마다 한 장 · 7,000원 · 일광스님 · 아름다운 인연
내 마음을 지다 · 9,500원 · 윤청화 · 동승도
내마음의 복전 · 9,000원 · 신화규의 43인 · 불광출판사
눈으로 먹는 절음식 · 14,000원 · 김연식 · 우리출판사
능엄경 · 9,500원 · 김두재 · 민족사
능엄주해의 · 15,000원 · 전수래 · 운주사
다비에 묻힌 불능스님전집 · 6,000원 · 김지수 옮김 · 불광출판사
달마선 · 10,000원 · 박건주 · 운주사
당신이 주인공 입니다. · 12,000원 · 월호스님 · 불광출판사
대반열반경 · 8,500원 · 강기희 · 민족사
대승불교의 세계 · 15,000원 · 계창 · 운주사
대승선경 · 12,000원 · 법성 · 운주사
대승선관법경 · 15,000원 · 혜원 · 불교시대사 지음 · 불광출판사
대승찬 강설 · 9,000원 · 무비스님 · 불광출판사
도(道) 물을 것 없네 밥이나 가무게 · 10,000원 · 윤청광 · 우리출판사
도를 찾아 떠난 고양이 · 12,000원 · 진우기 역 · 솔바람
돈오입도요론론강설 · 9,000원 · 성철스님 · 장경각
돈황본 육조단경 · 5,000원 · 성철스님 · 장경각
돌섬을이 허허롭게 웃누나 · 10,000원 · 윤청광 · 우리출판사
동어서화 · 8,000원 · 백련선서간행회 · 장경각
떠남 · 11,000원 · 정운스님 · 솔바람
뜻으로 읽는 금강경 · 12,000원 · 송찬우 · 솔바람
라마야나 · 13,000원 · 주해신 · 민족사
룸비니에서 구시나가라까지 · 9,000원 · 김재성 지음 · 불광출판사
마음 깨달음 그리고 반야심경 · 9,500원 · 성법 · 민족사
마음 밭을 알구는 사람들 · 6,000원 · 김 정 열 · 솔바람
마음 비움에 대한 사색 · 12,000원 · 마성 · 민족사
마음공부 이야기 · 6,000원 · 법상 지음 · 불광출판사
마음부자 · 8,500원 · 자원 · 운주사
마음에 꽃 무엇을 고르고 고 · 10,000원 · 윤청광 · 우리출판사
마음으로 듣는 부처님 말씀 · 11,800원 · 홍 사 성 · 불교시대사
마음을 밝혀 주는 60가지 · 10,000원 · 방경일,김정열 · 솔바람
마음을 바우시게 온갖 근심 사라지네 · 10,000원 · 윤청광 · 우리출판사
마음을 열어주는 부처님 말씀 · 6,000원 · 정휴 · 민족사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 12,000원 · 광덕스님 · 불광출판사
마조록 백장록 · 7,000원 · 백련선서간행회 · 장경각

마지막 입는 옷엔 주머니가 없네 · 10,000원 · 윤청광 · 우리출판사
마하바라타 · 13,000원 · 주해신 · 민족사
만화 백유경 · 10,000원 · 김 장 열 · 솔바람
만화 불교이야기 1 부처님 생애 · 9,600원 · 김정빈,최병용 · 솔바람
만화 불교이야기2 인물 불교사 · 9,600원 · 김정빈,최병용 · 솔바람
만화로 보는 부처님 전생이야기 · 9,000원 · 정수일 글, 그림 · 운주사
묘법연화경 · 13,000원 · 현해 · 민족사
무문관강송 · 8,500원 · 김광하 · 운주사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 10,000원 · 최만희 · 운주사
무비스님 명구100선 세트 · 35,000원 · 무비스님 · 불광출판사
무비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공부 · 10,000원 · 무비 · 민족사
무비스님의 반야심경 · 7,000원 · 무비스님 · 조계종출판사
무비스님의 예불문 · 6,000원 · 무비스님 · 조계종출판사
무비스님의 천수경 · 8,000원 · 무비스님 · 조계종출판사
무엇이 너의 본래면목이냐, 1 · 18,000원 · 성철스님 · 장경각
무이스님의참선경어 · 8,900원 · 백련선서간행회 · 장경각
문수기도 공덕 · 6,500원 · 정념 · 민족사
미륵경전 · 7,000원 · 이종익 · 민족사
밀린다왕문경 1 · 12,000원 · 동봉 · 민족사
밀린다왕문경 2 · 12,000원 · 이미령 · 민족사
바구니에 물을 담고 달려 가누나 · 10,000원 · 윤청광 · 우리출판사
바람이 스리를 만나면 · 9,500원 · 지현 · 운주사
바람속 이야기 · 9,000원 · 동학사 · 운주사
반야불교신행론 · 15,000원 · 혜당 지음 · 불광출판사
반야심경사경 · 3,000원 · 윤석우 · 운주사
방가시어록 강설 · 15,000원 · 혜당 지음 · 불광출판사
백년도 못사는데 무얼 그리 탐내는가 · 10,000원 · 윤청광 · 우리출판사
백유경 · 8,000원 · 현각 · 민족사
백일법문(하) · 7,000원 · 성철스님 · 장경각
백일법문(상) · 7,000원 · 성철스님 · 장경각
법화경사본전 · 15,000원 · 차차석 · 운주사
법화삼부경 · 8,000원 · 무비스님 · 불광출판사
법화경(하) · 8,000원 · 무비스님 · 불광출판사
법화경(상) · 8,000원 · 무비스님 · 불광출판사
베솜도 채couc 꿈일에 이슬입세 · 10,000원 · 윤청광 · 우리출판사
벽암록 · 10,000원 · 조 오 현 · 불교시대사
벽암록 (상) · 9,000원 · 백련선서간행회 · 장경각
벽암록 (중) · 9,000원 · 백련선서간행회 · 장경각
벽암록(전5권) · 12,000원 · 석지현 · 민족사
변화경(하) · 12,000원 · 석지현 · 민족사
보살 · 7,500원 · 최명순 · 운주사
보현행원품 강의 · 6,500원 · 무비 · 민족사
부모은중경관음경 · 7,000원 · 일지 · 민족사
부모은중경사경 · 2,800원 · 윤석우 · 운주사
부처님 생애 · 4,500원 · 정각 · 운주사
부처님 지혜를 배우는 불교우화 417가지(하화) · 9,000원 · 정수일 글, 그림 · 운주사
부처님과 보살 제미있는 이름이야기 · 9,000원 · 김윤수 · 민족사
부처님생애 · 9,500원 · 박경훈 지음 · 불광출판사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 8,000원 · 홍 사 성 · 불교시대사
부처님지 쉽다네 저버름게 살게나 · 10,000원 · 윤청광 · 우리출판사
북somet · 15,000원 · 혜원 · 운주사
분somet · 20,000원 · 김진무 역 · 운주사
불교 교양으로 읽다 · 15,000원 · 화원 · 민족사
불교 교양으로 읽다 · 15,000원 · 화원 · 민족사
불교, 교과서 밖으로 나오다 · 15,000원 · 김형중 · 운주사
불교교리강좌 · 6,500원 · 해주 지음 · 불광출판사
불교란 무엇인가 · 7,000원 · 고영섭 · 장우서적
불교를 알고싶어요 · 10,000원 · 돈관스님 · 우리출판사
불교무용 · 17,000원 · 법현 · 운주사
불교문화 · 9,000원 · 조계종 포교원 · 조계종출판사
불교사 의례 · 9,000원 · 조계종 포교원 · 조계종출판사
불교사상의 이해 · 12,000원 · 동국대학교 · 불교시대사
불교성화산책 · 7,500원 · 송치용 · 불교시대사
불교성전 · 30,000원 · 법현연구원 · 장우서적
불교신행공덕 · 5,000원 · 마성 지음 · 불광출판사
불교이동교육론 · 15,000원 · 황 옥 자 · 불교시대사
불교와 유학 · 12,000원 · 김진무 역 · 운주사
불교의 상례 · 20,000원 · 정승석 · 불교시대사
불교큰선의 현대적 이해 · 12,000원 · 안옥선 · 불교시대사
불교철학강설 · 20,000원 · 법현 · 운주사
불교의 여성관 · 13,000원 · 서 영 애 · 불교시대사
불교의 이해와 신행 · 9,000원 · 조계종 포교원 · 조계종출판사
불교의 진리 · 9,000원 · 최봉수 옮김 · 불광출판사
불교입문 · 7,000원 · 조계종 포교원 · 조계종출판사

불교학개론 강의실(교리편) · 9,000원 · 장 휘 옥 · 불교시대사
불교학개론 강의실(입문편) · 9,000원 · 장 휘 옥 · 불교시대사
불영사전 · 20,000원 · 고운조약돌 · 우리출판사
붓사 및 가도 안내문 모음집 · 10,000원 · 편집부 · 솔바람
붓자생활백서 · 9,800원 · 고명석 윤청화 · 민족사
붓자예절과의식 · 8,500원 · 종오 김갑환편저 · 불교출판사
붓다, 행복의길을보이다 · 9,000원 · K.스리담마난다 · 불교시대사
붓다로부터 배우는 자녀교육의 지혜 · 9,800원 · 민병직 · 운주사
붓다의 나라 미얀마 · 10,000원 · 김형규 · 운주사
붓다의 발자국 · 12,000원 · 김미숙 · 정우서적
붓다의 호흡법 아나빠나사띠 · 25,000원 · 김영권/이승훈옮김 · 불광출판사
비온뒤에 무성한 조릿박넝쿨 · 10,000원 · 지묵스님 · 우리출판사
빈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간다네 · 10,000원 · 윤청광 · 우리출판사
빛의 목소리 · 7,000원 · 광덕 지음 · 불광출판사
사람의 향기 · 6,500원 · 정운 지음 · 불광출판사
사람이 부처님이다 · 5,000원 · 무비스님 · 불광출판사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도 길은 있다 · 10,000원 · 지현스님 · 아름다운 인연
사랑하는 사람 못만나 괴롭네 · 10,000원 · 윤청광 · 우리출판사
사랑학 · 13,000원 · 법성 · 운주사
산방야화 · 8,000원 · 백련선서간행회 · 장경각
산사에서 띄우는 풍경소리 · 9,000원 · 정관 · 운주사
산에는 꽃이 피네 · 8,000원 · 법정 · 동학사
살과 죽음 비르도의 실체 · 10,000원 · 중암 · 정우서적
살과 초월의 미학 · 12,000원 · 최성규 · 정우서적
살을 원하기든 죽음을 기억하라 · 9,000원 · 명한자 · 우리출판사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전2권) · 25,000원 · 이병교 · 민족사
삼세인과 · 5,000원 · 서인정역음 · 우리출판사
삼세인과경 · 부모은중경 외 · 3,500원 · 경전연구모임 · 불교시대사
삼천불명호경 · 13,000원 · 편집부 · 운주사
상식에서 유식으로 · 7,000원 · 정승석 · 정우서적
상식으로 만나는 불교 · 9,000원 · 계창 · 정우서적
생의의문에서 · 9,000원 · 광덕 지음 · 불광출판사
생활속의 처선수련 20년 · 7,500원 · 권영두 · 운주사
생활수행이야기 · 5,000원 · 법상 지음 · 불광출판사
선비대비의 행복수업 · 9,800원 · 김영로 옮김 · 불광출판사
서장 · 18,000원 · 전재강 역주 · 운주사
선가귀감 · 8,000원 · 임창 지음 · 불광출판사
선과 학생 · 8,000원 · 박건주 · 운주사
선문선답 · 8,500원 · 조 오 현 · 불교시대사
선비모범경 · 12,000원 · 법성 · 운주사
선사들의 살과 깨달음 · 10,000원 · 방경일,김정열 · 솔바람
선사들이 띄우는 깨달음의 편지 · 10,000원 · 정념 · 불교시대사
선어록 산책 · 20,000원 · 최현각 편역 · 불광출판사
선오스님의 백련으로 만드는 천수경 · 15,000원 · 선오스님 · 운주사
선오 · 10,000원 · 전재강 역주 · 운주사
선의 역사와 사상 · 15,000원 · 성본스님 · 불교시대사
선학과 현학 · 12,000원 · 김진무 역 · 운주사
설혼마주기 · 5,000원 · 고성훈 · 우리출판사
세간속에서 · 8,000원 · 이현덕 지음 · 불광출판사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 9,000원 · 이광래 · 솔바람
소설 탄허 · 12,000원 · 백금남 · 동쪽나라
손가락 하나 다시보기 · 14,500원 · 이 원 섭 · 불교시대사
수행의 본질과화두 · 9,000원 · 백공 지음 · 불광출판사
수행자와 중문학자가 함께 돌이킨 금강경 · 15,000원 · 수암 · 운주사
숫타니파타 · 8,500원 · 법정 지음 · 불광출판사
스승을 찾아서 · 9,800원 · 법정 · 동쪽나라
슬기로운 동화나라 1, 2, 3 · 권당 8,500원 · 법정 · 동쪽나라
신라화호의 금강삼매경론 · 38,000원 · 서영애 · 민족사
신묘장구 대다라니 강해 · 10,000원 · 임근동 · 솔바람
신반아심경 강의 · 7,000원 · 혜당스님 · 불교시대사
신심명증도가 강의 · 9,000원 · 성철스님 · 장경각
실천보현행원 · 5,000원 · 이종린 지음 · 불광출판사
아난존자의 일기 1 · 28,000원 · 범라 역 · 운주사
아난존자의 일기 2 · 28,000원 · 범라 역 · 운주사
아름다운 부처님 나라 · 8,500원 · 윤승운 · 동쪽나라
아름다운 정 아름다운 스님 · 12,000원 · 이현정 · 민족사
아미타경 · 무량수경 · 관무량수경 · 3,500원 · 경전연구모임 · 불교시대사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 9,000원 · 월호 · 운주사
아비달마불교 · 9,000원 · 권오민 · 민족사
아함경 1 · 9,000원 · 돈연 · 민족사
아함경 2 · 9,000원 · 돈연 · 민족사
아함경강송 · 8,500원 · 김광하 · 운주사
아함경사경 · 7,000원 · 윤석우 · 운주사
어린이 법요집 · 12,000원 · 조계종 포교원 · 조계종출판사
언젠가이세상에올당신을사랑합니다 · 9,500원 · 월호스님 · 마음의숲
업과 윤회 · 6,000원 · 최봉수 옮김 · 불광출판사
에세이 · 8,000원 · 백련선서간행회 · 장경각
여래선 · 20,000원 · 노선환 역 · 운주사
여유를 알면 삶이 아름답다 · 9,800원 · 성 민 · 불교시대사
역사로 보는 한국불교 · 10,000원 · 김경집 · 정우서적
역주 서분진흥 · 30,000원 · 일휴·우진 · 정우서적
염불, 정토에 왕생하는 길 · 8,000원 · 태원 · 운주사
염불의 공덕 · 4,500원 · 편집부 · 운주사

염불의 원류와 전개사 · 28,000원 · 이태원 · 운주사
영가천도와 49재 · 7,500원 · 박연진 · 민족사
영원한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네 · 10,000원 · 윤청광 · 우리출판사
영원한 자유 · 7,000원 · 성철스님 · 장경각
예불이란 무엇인가 · 8,000원 · 정각 · 운주사
옛 거울을 부수고 모니라 · 10,000원 · 성철스님 · 장경각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 10,000원 · 고경엮음,각산정원규옮김 · 불광출판사
옥야경 · 선생경 · 주마재니경 외 · 3,500원 · 경전연구모임 · 불교시대사
왕초보 경전백서 되다 · 0,500원 · 계환 · 민족사
왜 나무아미타불인가 · 12,000원 · J.C.cleary,영역:이기하옮김 · 불광출판사
욕심을 버리는 방법 · 8,500원 · 정우 · 민족사
우리말 법화경 사경 · 38,000원 · 혜조 · 운주사
우리말 법화삼부경 · 25,000원 · 혜조 · 운주사
우리말 천수경 · 7,000원 · 정각 · 운주사
운명을 뛰어넘는길 · 5,000원 · 김지수 옮김 · 불광출판사
운명을 바꾸는 법 · 12,000원 · 이기화 옮김 · 불광출판사
원각경언만경 · 10,000원 · 전해주 · 민족사
위빠사나 수행 · 5,000원 · 김재성 옮김 · 불광출판사
위빠사나(1)개정판 · 12,000원 · 김열권 지음 · 불광출판사
위빠사나(2)개정판 · 15,000원 · 김열권 지음 · 불광출판사
위빠사나333 · 7,500원 · 법산스님 · 우리출판사
유마경 · 7,500원 · 박용길 · 민족사
유식30송 · 8,000원 · 서광 지음 · 불광출판사
육조단경(감설) · 10,000원 · 지묵스님 · 우리출판사
육조대사 법보단경 · 15,000원 · 법지 역주 · 운주사
율무불교산책 · 7,000원 · 이태승 · 정우서적
이제존이 만난 아름다운 사람들 · 9,000원 · 이계진 · 동쪽나라
이른 아침 참선 같은 참으로 온 하루를 부려 · 8,500원 · 박영재 · 운주사
이야기 불교한자 · 5,000원 · 윤석우 · 운주사
인간학불교 · 8,000원 · 정승석 · 정우서적
인도사 108장면 · 15,500원 · 박금표 · 민족사
인도사 108장면 · 15,500원 · 박금표 · 민족사
인도철학과 불교 · 13,000원 · 권오민 · 민족사
인도철학산책 · 8,000원 · 이태승 · 정우서적
인생은 한 토목 꿈이로다 · 10,000원 · 윤청광 · 우리출판사
인연 이야기 · 9,000원 · 법정 · 동쪽나라
일본불교의 빛과 그림자 · 10,000원 · 김호성 · 정우서적
일체륙 반야 · 8,000원 · 백련선서간행회 · 장경각
자기를 바로 봅시다 · 9,500원 · 성철스님 · 장경각
자비명상 · 10,000원 · 제프리 솜킨스 · 불교시대사
자비의 수희공실 · 12,000원 · 방혜성 엮음 · 불광출판사
저변과 사람사이 정 · 12,000원 · 윤혁학골/정정현사진 · 우리출판사
저타카의 노래 · 10,000원 · 김 장 열 · 솔바람
정은 솔씨가 푸른 스나무 되네 · 10,000원 · 윤청광 · 우리출판사
직은책기슴을 적시는 부처님말씀 · 3,000원 · 석지현 · 민족사
직은책금강경 · 3,500원 · 정호영 · 민족사
직은책논어 · 3,500원 · 김상중 · 민족사
직은책대반열반경 · 3,500원 · 김기희 · 민족사
직은책대반야바라밀다경 · 3,500원 · 이종린 · 민족사
직은책명상 · 3,500원 · 김진경 · 민족사
직은책명심보감 · 3,500원 · 윤청화 · 민족사
직은책묘법연화경(상) · 4,500원 · 현해 · 민족사
직은책묘법연화경(하) · 4,500원 · 현해 · 민족사
직은책미륵경전 · 4,000원 · 이종익 · 민족사
직은책법화경 · 8,500원 · 현해 · 민족사
직은책백유경 · 4,000원 · 현각 · 민족사
직은책법구경 · 3,300원 · 석지현 · 민족사
직은책본생경 · 4,500원 · 이미령 · 민족사
직은책숫타니파타 · 4,200원 · 석지현 · 민족사
직은책아함경 · 4,300원 · 돈연 · 민족사
직은책아함경 · 4,500원 · 박용길 · 민족사
직은책지장경 부모은중경 · 3,500원 · 일지 · 민족사
직은책채근담 · 3,200원 · 김수경 · 민족사
직은책화엄경 · 4,300원 · 김지건 · 민족사
참시는법 · 8,000원 · 최정희 · 우리출판사
전통사찰총서 · 12,000원 · 적문스님 · 불광출판사
전통사찰총서 6 · 12,000원 · 사찰문화연구 · 사찰문화연구
전통사찰총서 7 · 12,000원 · 사찰문화연구 · 사찰문화연구
전통사찰총서11 · 12,000원 · 사찰문화연구 · 사찰문화연구
전통사찰총서12 · 12,000원 · 사찰문화연구 · 사찰문화연구
전통사찰총서13 · 12,000원 · 사찰문화연구 · 사찰문화연구
전통사찰총서14 · 12,000원 · 사찰문화연구 · 사찰문화연구
전통사찰총서15 · 12,000원 · 사찰문화연구 · 사찰문화연구
전통사찰총서16 · 12,000원 · 사찰문화연구 · 사찰문화연구
전통사찰총서17 · 12,000원 · 사찰문화연구 · 사찰문화연구
전통사찰총서18 · 12,000원 · 사찰문화연구 · 사찰문화연구
전통사찰총서19 · 15,000원 · 사찰문화연구 · 사찰문화연구
전통사찰총서20편 · 15,000원 · 사찰문화연구 · 사찰문화연구
전통사찰총서21 · 15,000원 · 사찰문화연구 · 사찰문화연구
절에서 배우는 불교 · 12,000원 · 혜자스님 · 우리출판사
정토불교의 세계 · 7,500원 · 장 휘 옥 · 불교시대사
정토삼부경 · 7,500원 · 한보광 · 민족사
정토의 본질과 교학입문 · 25,000원 · 태원 · 운주사
조상경 · 22,000원 · 태경 · 운주사

조선불교유신론 · 10,000원 · 한용운 · 운주사
좌선삼매경 · 9,000원 · 지승스님 · 불광출판사
주역선해(周易禪解) · 75,000원 · 지은이:지욱스님/옮긴이:박태섭 · 한강수
주역선해(周易禪解) · 75,000원 · 지욱스님저/박태섭역 · 한강수
죽는법을 모르는데 사는법을 어떻알며 · 10,000원 · 조 오 현 · 불교시대사
죽음을 준비합시다 · 6,000원 · 현장스님 · 우리출판사
중관사상 · 12,000원 · 김성철 · 민족사
중국선종의 성립사적 연구 · 30,000원 · 정성본 · 민족사
중국의 불교문화 · 17,000원 · 차차석 · 운주사
중국초기선종 능가선법 연구 · 25,000원 · 박건주 · 운주사
중국화엄사상사 · 12,000원 · 정병삼 · 민족사
중론, 논리로부터의해탈 논리에의한해탈 · 10,000원 · 김 성 철 · 불교시대사
지금후회없이사랑하라 · 8,500원 · 성전스님 · 도솔
지승보현행원품 · 6,000원 · 광덕 지음 · 불광출판사
지장경 강해 · 12,000원 · 도광스님 · 솔바람
지장기도 공덕 · 6,500원 · 편집부 · 민족사
지장보살 영험록 · 5,000원 · 김종래 외 지음 · 불광출판사
지혜로운 삶을 위한 불비른 신행생활 · 8,500원 · 남전 · 민족사
지혜의 보드컵 행복이 열리거늘 · 10,000원 · 윤청광 · 우리출판사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 10,000원 · 일선학연구소 · 불교시대사
착한 일 많이 하게 그대가 부처일게 · 10,000원 · 윤청광 · 우리출판사
참 묘한 이야기 · 7,500원 · 법정 · 동쪽나라
참 좋은 이야기 · 7,500원 · 법정 · 동쪽나라
참회정진 · 3,000원 · 도법스님 · 솔바람
천 수 경 · 6,000원 · 윤오연 · 솔바람
천수경과기도법 · 7,500원 · 윤 영 해 · 불교시대사
천수경사경 · 4,500원 · 윤석우 · 운주사
천수경의 비밀 · 7,500원 · 김호성 · 민족사
천지도 되지말고 원숭이도 되지 말라 · 10,000원 · 윤청광 · 우리출판사
청소년 법요집 · 8,000원 · 조계종 포교원 · 조계종출판사

유·도가 "불교는 오랑캐 문화"…불교 번창 경계

중국불교의 거사들 〈8〉

남북조 시기 배불논쟁과 거사불교(1)

-이하(夷夏)의 논쟁과 거사들의 반론-



그림 · 김홍인

동한 말 본격적으로 전래된 불교는 위진(魏晋)시기 정치적 실험을 거치며 남북조시기에 지배적인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이때 유(儒) · 도(道) 양가의 본격적인 반박이 나타났다. 그 가운데 도교에서 문제 삼았던 것은 '이하지방(夷夏之防)'으로, '오랑캐[夷]'의 저급한 문화가 '중국민족[夏]'의 우월한 문화를 망치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의식이었다. 이런 의식은 이미 선진(先秦)시대에 그 연원을 둔다. 특히 <맹자(孟子)>의 "나는 중국문화[夏]가 오랑캐문화[夷]로 변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오랑캐문화가 중국문화로 변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만약 요(堯) · 순(舜) · 주(周) · 공(孔)의 도를 버리고 다시 오랑캐[夷狄]의 방법을 배운다면 어찌 미혹하지 않겠는가?" 등의 구절에서 그런 의식이 얼마나 깊은 뿌리를 지녔는가가 충분히 짐작된다.

승민(僧愍)의 <융화논절고도사이하론(戎華論折顧道士夷夏論)> 등의 스님들의 반박 이외에 수많은 거사들이 격렬하게 반론을 제기했다. 기록에 따르면 애찬(哀粲)과 명승소(明僧紹), 주소지(朱昭之), 주광지(朱廣之), 사진지(謝鎭之) 등 수많은 거사들이 여러 편의 반박문을 찬술하였다.

명승소는 섭산(攝山) 정림사(定林寺)에서 20여 년을 은거해 '평원(平原) 거사'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그의 <정이교론(正二敎論)>(<홍명집>권6에 수록)에서는 도교는 장생(長生)을 중시하여 수련(修煉)을 통하여 수정(守靜)의 경계에 도달하지만, 불교에서는 내심(內心)의 공적(空寂)에 이르러 모든 현상이 허환(虛幻)돼 참다움이 없음을 깨달으니, 도교에서 '무(無)'로 설정하고, 유불도 삼교가 모두 '무'와 연관된 표현의 형태로 파악해 '이하'의 구분을 짓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본체론(本體論)의 입장에서 <이하론>을 반박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하론>에 대한 불교의 반박은 불교가 교의적으로 도교보다 우월함을 강조하고, 보편적인 인성을 지닌 인류이기 때문에 '이하'의 구분은 불필요한 것이며, 또한 그 본체의 입장에서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임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이들의 말미에는 대체로 불교는 대자대비로써 모든 중생을 구제하니, 유 · 도 양가의 교의보다 크고 넓어서 오랑캐나 중국민족이 모두 신앙할 수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불교의 반박에 대하여 도교에서는 어떤 도사가 장융(張融)이라는 가명으로 다시 <삼파론(三破論)>(479)을 저작하게 된다. 이른바 '삼파(三破)'란 바로 불교가 "나라에 들어오면 나라가 깨어지고[入國破國],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깨어지며[入家破家], 몸에 들어오면 몸이 깨어진다[入身破身]"는 극단적인 불교에 대한 비판이다. 또한 불교와 도교의 가르침을 비교하기를, "도교 가르침은 정밀하게 사유하여 '하나[一]'를 얻어 죽음이 없는 성인(聖人)의 경지에 들어가게 한다. 불교의 교화는 삼매(三昧)와 신통(神通)으로 '태어남이 없음[無生]을 바라고 죽음을 열반(涅槃)이라고 해 죽음을 배우게 한다"고 설명했다. 도교의 핵심은 수련해 득도한다면 죽지 않는 선인(仙人)을 이루지만, 불교는 사람들에게 삶을 떠나 열반에 들라고 강조하니, 죽음을 배우는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승순(僧順)의 <석삼파론(釋三破論)>, 현광(玄光)의 <변혹론(辨惑論)> 등 스님들의 반론이 나타났다. 거사중에는 <문심조룡(文心雕龍)>의 작가로 유명한 유협(劉勰)이 <멸혹론(滅惑論)>을 찬술했다. 유협(465-520)은 양대(梁代)의 고승 승우(僧祐)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양무제의 장자이며 불교학에 뛰어났던 소명(昭明)태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함께 교의를 연구했다. 그는 입적하기 몇 해 전에 출가했을 뿐 거의 대부분을 거사 신분으로 보냈다.

유협의 <멸혹론>에서는 <삼파론>의 주된 관점들을 하나하나 인용해 논파했다. 불교가 국가를 망하게 한다는 주장에 대해 유협은 "국가의 쇠망은 '치란(治亂)'에 있지 불교에 귀의했기 때문이 아니다. 반대로 불교가 흥성할 때 국가가 오히려 부흥했음을 역사적 사실을 인용하면서 논증한다"고 반박했다. 가정을 깨트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교 역시 '효(孝)'를 중시하지만 그 표현양식에 있어서 다를 뿐임을 밝히고, 여러 가지 업인과보에 의해 출가수행이 참다운 '대효(大孝)'임을 논증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강상명교(綱常名敎)의 준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출가했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참으로 인연(因緣)과 업감(業感)이 들이 아니기 때문에 명교는 둘이 있는 것이다. 재가[縉紳]와 사문이 다른 까닭"이라 말했다.

불교에서는 여러 인연과 업감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재가와 출가수행자로 나뉘게 돼 각각에 적합한 두 종류의 명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유협 역시 당시 모든 불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감히 명교에 대하여 반박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교를 부정하는 것은 국가체제에 대한 부정으로 통하는 당시 시대적 한계때문이었다. 또한 몸을 망친다는 주장에 대해 유협은 오히려 도교의 양생술법이 자칫 잘못하면 몸을 망치게 되고, 설사 신선을 이룬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소도(小道)'임을 밝히며, 나아가 불교야말로 참다운 '대도(大道)'임을 역설했다.

남북조시기의 이러한 '이하론'은 외래종교인 불교가 문화적 배경과 풍토가 다른 중국에 정착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었다. 특히 동한과 위진 시기를 거치면서 불교가 지배적인 정치이념으로 설정되면서 본토에서 자생한 유 · 도 양가의 비판과 공격은 더욱 심해졌을 것이 자명했다. '이하론'은 바로 민족과 문화적 정통성의 문제였던 것이다. 민족적 정통성의 문제는 논리보다는 정서적인 측면으로 치우칠 여지가 많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 해결은 출가 승려보다는 오히려 재가의 거사들이 보다 적합했다. 무엇보다 출가 승려는 이미 명교의 틀에서 벗어나 그 설득력이 반감된 것이 이유다. 물론 '이하'의 논쟁에 뛰어난 스님들이 많이 참여했고, 그 역할은 상당히 중요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러한 배불논쟁에 있어 거사들이 전면에 나서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더욱 많았다. 그것은 정치와 학계, 문학 등 세속적 생활에 바탕을 둔 거사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더욱 일반대중들의 호응을 끌어냈기 때문이다.

고환 '이하론' 찬술 후 재가 거사들 반박 줄이어
'정통성 논쟁'은 외래종교 정착 위한 필연적 과정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발단이 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남송(南宋)의 도사 고환(顧歡)이 <이하론(夷夏論)>(478)을 찬술하면서부터다. 그는 이전에 출현한 위서인 <노자화호경(老子化胡經)>의 내용을 근거로 "불조(佛祖) 석가모니는 노자(老子)가 교화했기 때문에 그 성인(聖人)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 하지만 가르침에 있어서는 도교는 성교(聖敎)이고 불교는 이교(夷敎), 즉 오랑캐의 가르침으로 결코 같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것은 마치 배와 수레가 물건을 운반하는 것은 같지만 배는 물에서 사용하고 수레는 육지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아 결코 함께 쓸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고환의 주장은 "불교는 자비심을 말하여 뭇 생류를 해치지 않지만 자신을 나아준 부모에 대해서는 조금의 효경(孝敬)하는 마음도 없어 화하(華夏: 중화민족)의 예교(禮敎)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불교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하고, 중화민족은 결코 불교를 신앙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하론>의 주장은 바로 불교계의 반박을 받았다. 혜통(慧通)의 <박고도사이하론(駁顧道士夷夏論)>과 원 거사의 반박은 사람들에게 문제의 초점을 예의와 풍속 등의 외부적인 것이 아닌 본질적인 교의(敎義)로 전환함으로써 교의의 비교를 통하여 불교의 가르침이 우월함을 논증하고 있음에 의의가 있다.

또한 남송 명제(明帝)시기에 상시(常侍)를 지낸 사진지는 <여고도사서(與顧道士書)> <중여고도사서(重與顧道士書)>를 찬술해 <이하론>을 반박했다. 사진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람의 동류[人類]가 있고, 짐승에게는 짐승의 군체(群體)가 있어 오랑캐던 중화민족이던 모두 인류의 공통된 본질을 지니고 있어 비록 풍속은 달라도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불교와 도교의 차별을 논하고 서로에게 장점이 있음을 피력했다. 그는 보편적인 인성(人性)의 각도로부터 '이하론'을 해결하려고 했다.

주소지(朱昭之)의 <난고도사이하론(難顧道士夷夏論)>에서도 "인도와 중국의 풍속이 달라 가르침이 다르게 나타날 뿐임을 강조하고, 그 다름은 다만 '지극한 도[至道]'의 '쓰임[用]'에 따라 표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도(至道)'의 '지극한 체[極體]'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반야심경 전등록 전5권 / 무문관 / 벽암록 / 천부경
금강경 / 신심명 / 증도가 / 반야심경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 환단고기 전5권
선가귀감 / 법융선사 심명 / 주머니 속의 심경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새는 지붕"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발, 다리, 허리가 불편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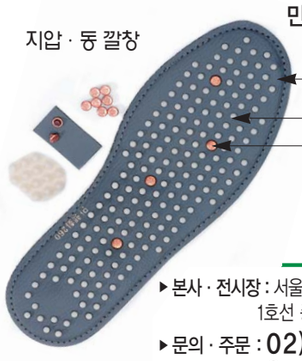
귀의 삼보하옵고
무자년 한 해도 불보살 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발원 합니다.
사부대중의 발로 인한 몸 건강을 생각, 발명 특허를 획득한 지압깔창을 보급합니다.



발명특허 10-0806337호

하루종일 서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
초극세사 · 실리콘 · 동 99% 삼위 일체 소재로 발냄새 제거, 무좀 예방!!
장인정신으로 수작업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만행화 대표 박해훈 합장



가격 15,000원
• 사이즈 : 230-280

▸ 본사 ·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1호선 종각역 2번출구 100미터
▸ 문의 · 주문 : 02)733-5715
011-9000-5715
▸ 계좌 : 우리 178-08-109613
(예금주 : 박해운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길을 묻는 이에게

제677호 현대불교
2008년 4월 30일(음력 3월 25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괴로워도 즐거워도 그냥 빙긋이 웃고 마세요!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해서

문 저의 친구가 요즘 시대는 자식들이 부모님의 생신도 제대로 챙기지 않는 시대인데,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생일을 이렇듯 성대하게 치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데 저는 절에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다운 의미를 일러 주십시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새벽예불에 팔상성도를 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리는 밖으로 부처님의 탄생을 기리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을 탄생시켜 준 부모의 은혜와 법의 부모의 은혜도 둘이 아니게 갚기 위해서 항상 각자 마음에다 관(觀)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육의 부모들도 자식과 둘이 아닙니다. 그걸 볼 때, 자신의 생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낳아 주시고, 또 일러서 가르쳐 주신 그 뜻을 기리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촛불 하나라도 켜 드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따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법의 부모도 육의 부모도 둘이 아니게 한마음으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관하면서 촛불을 켜신다면 그 촛불이 바깥으로는 형식이 되지만, 형식만이 아니라 정성이 되고 안으로는 진짜 촛불을 켜는 것이 됩니다. 마음의 촛불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월초파일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항상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팔상성도(八相成道)라고 하는 그 자체는 도솔내의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하항마상, 녹원전법상, 쌍림열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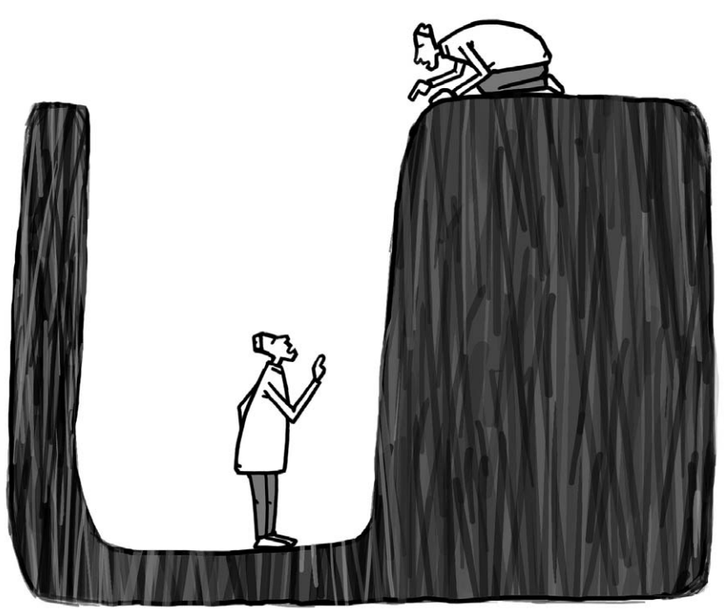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렇게 여덟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여덟 가지로써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모든 과정과 그 시대에 간곡하게 가르쳐 주신 그 뜻을 기리면서 우리는 수행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무 사유(四無四有)가 둘 아니게 일대사의 인연을 맺으셨다'고 한다면 팔상성도의 그 여덟 가지 문제를 다 함축해서 한마디로써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과정을 거치는 자체를 뼈 한 무더기로 비유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들어서 아시다시피, 사생자부(四生慈父)라고 하는 그 뜻도 역시, 태로 낳고 알로 낳고 화(化)해서 낳고 질척한 데서 낳고 하는 사생들을 모두 자기 아님이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 아닌 게 없이 했고, 자기 아픔 아닌 게 없이 했고, 자기와 더불어 같이 한도량에 있는 것을 제시했고, 또 모든 것을 둘 아니게 흡수해서 인연을 지으셨으니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불가에선 나유타 겁이라고 합니다마는, 나는 광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거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돼 보기도 하고 자식이 돼 보기도 하고 형제가 돼 보기도 하고, 그렇게 나오면서 자기 근본으로 인하여 진화를 해서 바로 형성되고 또 진화되고 형성되고 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업적이 얼마나 컸는지 헤아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를 볼 때, 우리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공기 바깥을 벗어날 수도 있고 바로 수억겁 광년을 거친 그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고, 미래로 돌아갈 수도 있고, 현재 또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인생살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공부를 함으로써 바로 그 뜻을 잘 파악해서, 바깥으로만 탄신을 기리고 팔상성도를 이름으로 기릴 게 아니라,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항상 직결돼 있다는 사실을 믿고 행한다면 그것이 곧 실천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팔상성도를,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열반하시고 그런 과정에 대한 것만 달달달달 외우고 알면서 바깥으로 끄달리면 아니 되겠죠.

그건 왜냐하면 부처님의 마음은 내 마음과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너부터 알아야 내 마음도 알아서 둘이 아니게 되느니라. 그래서 일체 사생이 너와 더불어 둘이 아니니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한 고로 이것은 내 마음의 부처님을 항상 관하며 '주인공'이라고 하면 벌써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부모도 법의 부모도 일체 가정의 모든 분들도, 한 식구 한 형제라 할지라도 앞에 닥치는 대로 걸리는 대로 거기다 놓고 합류시켜라. 하나로 만들어라. 동일한 한마음으로 결부를 시켜라. 그렇게 된다면 걸림이 없어서 어떠한 난국도 대치하고 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에서 이렇게 말하죠. "부(父)와 자(子)가 상봉해야만이 저승의 공부를 한다. 보이지 않는 정신계의 공부를 한다." 하고요. 부의 손을 잡아야만 자는 무(無)의 세계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봉치 못하면 아니 되는 거죠. 법의 부모란 나를 형성시켰고 또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온 자기의 근본 뿌리인 불성입니다. 불성 자체가 바로 자기의 원래, 법의 부니까요. 육신을 낳아 준 이는 육신의 부모고요. 그것은 내 근본의 법의 부모로부터 그 육의 부모를 빌려서 낳은 거지 내 영원한 그 자체의 불성이 아니었더라면 그 부모도 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월초파일이 돼서 촛불을 켜시더라도 육의 부모와 법의 부모가 둘 아니게 켜야 합니다. 내 주인공이 법의 부모니까요.

화내는 제 자신이 싫습니다

문 화를 내는 저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한번 화를 내게 되면 물건도 던지고 입에선 험한 말이 나오고, 생각으론 '주인공'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도 화내고 싶어 하니 이대로 가다간 아이에게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생각 따로 몸 따로 감정 따로 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딸아이가 저를 때리고 물건도 던지고 제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습니다. 스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실도 없다 이랬죠? 왜 그런가. 한 찰나의 살림살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한테 항상 말하죠. 우리의 살림살이는 한 찰나요, 한 인생 살아나가는 것은 한 철이라고. 여러분이 한 찰나의 살림살이를 지금 하고 가는 겁니다. 요리 변덕 조리 변덕, 변덕쟁이 거든요. 변덕쟁이, 도깨비장난, 귀신 장난감 이렇다고. 그러니까 그걸 말로 하려니까 그렇지 여러분은 변동이 무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공(空)에 들어서 가만히 있다면 그건 목석인 거죠. 또 너무 말을 하고 너무 아는 척을 해서 한데 떨어뜨린다면 그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그냥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내는 겁니다, 그냥. 거기도 걸리지 마세요. 생각이 자꾸 나걸랑 그대로 그냥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니까 버려두란 말입니다. 버려두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할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붙지 않는 자리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괜히 고(苦)덩어리 속에서 그 의식이 들고나면서 괴로움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고 이러는 거니까, 즐겁더라도 그냥 빙긋이 웃고 말고, 괴롭더라도 빙긋이 웃고 마세요, 거기서밖에 해결 못하니까요. 이열치열, '네 속에서 나온 거는 네 속에서 해결해야지 딴 속에서 해결 못한다. 나는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어. 네가 무체(無體)로서, 즉 말하자면 큰 부처로 보이더라도 난 거기에 속지 않아.' 이렇게 속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 전자의 종 문서에 의해서 자기가 한 것대로 짊어지고 나온 데서 들고나는 것에 속지 마시라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좋은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고, 말하자면 세 가지를 똑바로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는, 말 · 뜻 · 행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진실한지를 알게 되면 그냥 따르라고 그랬지, 믿으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따르라 이거죠. 나도 마찬가집니다. 왜 따르라고 그랬느냐. 그건 당신네들 주인공 안에 나와 더불어 같이 모두 일체 만물만생이 다 같이 한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생각이 자기를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묘법이 스스로 돼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창살 없는 감옥에다가 옹쳐매 놓고 있고, 병자로 옹쳐매 놓고 있는 거지 누가 병을 갖다 준 겁니까, 뺏어 갑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달린 거예요. 과거 자기가 한 대로 문서를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가난과 병고와 그 모진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 생각에 그 고통과 그 문서를, 종 문서를 한꺼번에 태워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아셔야 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법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부처님 법이 주어지는 거죠. '일체제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이다' 이런 노래 아시죠? 아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화가 나면 그 노래를 부르세요. 그러면 그 화가 다 없어지죠. 화나면 주인공에다 맡기시고 화내지 마세요. '화내게 하는 것도 너다. 화 안 나게 하는 것도 너야. 즐겁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관하세요. 아셨지요?

☞26면으로 계속

한글한문(겸용) 불교상용의식집

실무자 스님이 염불 한글화 하여!
"염불자가 경전의 내용을 알고 염불하는"
《의식집》을 만들어 소개합니다.

내 용 소 개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우리말염불(경전 내용으로 구성)을 염불자가 어느 쪽이든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 할수있게 만들었습니다.

②우리말 염불화를 하기위하여 한문의 (음)만 달은 것이 아니고 경전의 내용을 염불로 구성하여 편찬함으로 염불을 하면 자동적(주입식)으로 경전공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③의식의 분야에 따라 각각 5권으로 분류하여 염불내용을 위주로 조직하여 책의 분량을 줄여서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④염불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운운)을 최소한 적게하고 실무차원에서 염불자의 작은 애로 까지도 배려하여 초보 집전자도 편안하게 집전 할수있게 하였습니다.

⑤염불의 한글화는 우리 불교의 과제인데 염불하는 방법을 한부분 소개한다면 "삼청을 하는 청사를 "2청은=한문염불(기존염불)로 하고 "1청은=우리말염불(한글염불)로 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 없이도 자동적으로 한글화 할수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확신 합니다.

구 성

• 제 1권 : 예경:각청편 • 제 2권 : 천도:시식편
• 제 3권 : 수계:방생편 • 제 4권 : 장의편
• 제 5권 : 점안편

(이상 5권이면 기본염불 완료) 총 5권 특별보급가 67,000원

앞으로 상용의식집을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용의식집을 보신 후 격려전화를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성묵 합장 -

문의 전 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불서총판 운주사 02)3672-7181
(농협 : 211012-52-203756) 박명덕 ※각권 별도 구입 가능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위하여
어떤 기도로 어떻게 성취 하는가?
대충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기도의 비밀"은 불쌍함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 삶의 절망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을 성공으로 끌어 올릴 수 있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것을 내쫓고 막대한 부를 쌓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세상살이 장벽에 부딪혀 오갈 때 없는 자신을 스스로 보듬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잘되는 사람은 더 잘되는 길 안 되는 사람은 되는 길로 현제와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마음과학이며,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소원성취 기도 법이다.

"비밀의 열쇠"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은 이미지를 품기만 해도 그와 비슷한 형태를 불러온다. 욕망은 원하는 것들을 연결해주고, 기도는 그것을 끌어당긴다.

이 책에는 비밀을 활용해 건강과 부와 행복을 거머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끌어당김법칙"을 공개하오니 기도 성취를이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담 지음
신국판 | 292쪽 | 15,000원

"기도의 비밀"?

국민은행 562101-01-033348 | 관음정사 02-943-8573

· 찾아오시는길: 4호선 길음역 3번출구 - 정릉 청수장가는 버스 - 휄미리마트 3거리 - 중앙하이츠아파트 - 관음정사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부처님의 말씀을.. 스님의 법문을..
작은 공간에 영원히 간직 하세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기획을 비디오 촬영,
영상 제작하여 저렴하게 보시하겠습니다.

풍경 영상 기획 사업부

사찰홍보, 사찰행사, 자서전(다큐멘타리)
단체 사찰성지순례, 스님 강의, 법문

• 약력 : - 한국비디오 작가 연합회 정회원
- 한국디지털 비디오 영상 편집실 실장
- 방송 아카데미
- VJ특공대
- KDV 경남본부장



풍경영상기획 055)755-2695, 746-2778
※ 신문구독 신청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사 055)867-0776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항상 직결돼 있음을 믿고 행해야!

☞25면에서 계속

욕심내는 만큼 행복해지면…

문 스님, 욕심이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서 그게 욕심이 되는 것이지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살다 보면 더 욕심을 내게 되니까 되지 않는 것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마음을 비우고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는다면 욕심내는 게 없으니까 행복해지겠지만,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장소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욕심내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어떤 사람이 죽어서, 또는 잘못을 저지르고 죽어서 딴 모습으로 가면 시궁창도 돼지우리도 좋은 집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꽉 찼으니 볏짚단도 금으로 보일 수밖에요. 볏짚단도 금으로 보이고, 누렇게 마른 풀들도 금으로 방석을 해 놓은 건 줄 알아요. 그러니 좋아서 그리로 들어가면 짐승이 되는 겁니다. 욕심이 많은 고로 눈이 어둡고, 그릇된 행을 저질러서요. 똑바른 밝은 눈을 갖는다면, 한마음의 청눈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조금도 잘못됨이 없을 겁니다. 진짜 자유인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 만약에 진짜 사람이 못된다면 요다음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든 쳇바퀴 돌듯 또다시 돌아가야죠? 그러니 몇 바퀴나 돌아왔을까요?

재밌는 얘기 하나 또 해 드릴까요? 잘 생각하세요. 두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 한 점을 주니까, 그 고기 한 점을 보고서 고기로 보았습니다. 한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고기가 고기로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 한 점을 주니까, 고기로 보는 게 아니라 사생(四生)의 그릇으로 보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생의 그릇 즉, 소 한 마리로 보았다 이 소립니다. 소 한 마리로 보이니까, 그 고기 한 점이 소 한 마리면 사생으로부터 모든 생명체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생각 하나에 고기 한 점이 수십억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기 한 점을 딱 보는 순간에 소로 몇 바퀴나 돌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소로만 몇 바퀴 돈 게 아닙니다. 짐승으로 얼마나 돌았으며, 얼마나 쫓고 쫓기고 먹혀 왔으며 이렇게 돌아왔는가 하는 걸 한눈에, 한 찰나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탁 입에다, 보는 순간 벌써 자기는 요리를 해치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탁 해치워 버린 겁니다.

그렇게 소 한 마리를 잡아먹고 치워 버렸으나 자기가 됐더랍니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죠. 소 한 마리를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았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알아선 안 됩니다. 소 한 마리를 다 먹고 보니까 자기가 돼 버린 거죠. 자기가 됐으니깐 두드러지지도 않았죠? 자기가 또 거기서 소 한 마리를 꺼내니깐, 소를 꺼내도 소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꺼내는 겁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됐으니까 사람으로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를 넣었는데 사람으로 생산이 돼서 나왔습니다. 사람을 꺼냈어도 소의 사생이 들어있는 그릇이나 사람의 그릇이나 똑같이 그 사생은 마찬가지이나, 사람이라고 하는 거하고 짐승이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짐승은 새끼를 여러 마리 낳고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은 드물죠.

내가 각각 나라는 습성! 한마음에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이치를 모르고 각각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 숫자를 많이 낳죠? 알도 많이 낳고 새끼들도 많이 낳고, 이런 거는 벌써 내 마음속에 흐르는 피의 그 생명들이 내가 나라고 하고 싸우면서 서로 나오거든요. 서로 나와! 양보심이 없어요! 양보심이 없으니깐 그냥 나올 수밖에. 다섯도 좋고 넷도 좋고 열도 좋아요. 그러나 인간이라 하면 양보성입니다. '당신에게 모든 걸 다 주리다' 하는 양보성이 있어요. 그래서 불성이 다 같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독특한 생명이다 이겁니다. 고등생명이다 이거죠. 고등동물이다 이겁니다. 생명은 다 마찬가지지만, 차원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 자체가 그렇게 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생각을 잘못하느냐 잘하느냐에 의해서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잠재의식 속에, 카세트에 얽히고설킨 게 그냥 몰락 벗어지는 겁니다. 벗어지느냐, 더 지지하게 짊어지고 다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원통해서 놓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뭐가 원통합니까? 이 몸뚱이가 공(空)해서 한 찰나에 살다가 한 찰나에 구름이 흩어지듯 흩어지는 몸뚱이, 내일 죽으면 어떻고 오늘 죽으면 어떻습니까? 나라는 욕심 때문에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욕심 때문에. 나라는 욕심이 없다면 싱그럽게 사실 수 있을 텐데, 한 찰나찰나 사람이 넓게 볼 수 있고, 넓게 들을 수 있고, 넓게 일할 수 있고 지혜의 샘물은 골목골목에서 솟아 흐르듯이 좋은데 말입니다. 그 샘물이 싱싱하고 좋은데 그걸 모르시고선 자꾸 몸 하나에 끄달리니 전체에 끄달릴 수밖에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겁니까? 여러분 몸속에 수만 생명이 들어 있으면서 오르락내리락, 피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살 속에도 오르락내리락하고 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움죽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제일이라고 할까요? 그 중생들이 다 받쳐 줘서 내가 이렇게, 부처가 눈코가 의젓하게 달리고, 손발이 있어서 평발을 해 가지곤 턱 딛고 다니는 건데, 그래 내가 제일이라고 하시겠어요? 누가 지금 그렇게 딛고 다니게 해 드리는데 상구보리라고만 하시겠습니까? 하화중생은 모르고요?

내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고 부처가 있기 때문에 내 몸뚱이가 있는 겁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면 벌레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동시에, 기댈 데가 있으면 좀 덜하고 기댈 데가 없으면 아주 역력히 자기 살 궁리를 합니다. 그런 거를 볼 때에 홀홀단신으로 모든 거를 집착하지 않고 일어선다는 것은 참 어려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점을 감안해서 귀도 떠야 하고 눈도 밝아야 하고 폭도 넓혀야 하니까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 머리 위에도 세계가 있고, 우리 발밑에도 세계가 있고, 사방팔방에 세계가 있습니다. 전체 '대천(大千)' 하면 벌써 그렇게 있다는 말이고, '대천' 하면 그런 세계가 헤아릴 수 없이 있다는 증겁니다.

그러니 요만한 한 지구의 우물에서 '우리가 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땐 참으로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답답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우물에서만이 자기 집이라고 하고, 자기 거라고 하고, 자기가 했다고 하고, 서로 뺏고 빼앗기고 하는 싸움을 계속 하는 그런 정신계의 문제와 육신계의 물질세계와 이 모두가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새도 보십시오, 전쟁 아닌가! 내가 생각할 때는 거저 줘도 싫다고 할 텐데 말입니다. 돈을 갖다 주고 하라고 그래도 싫다고 할 텐데 말입니다. 이 문제들이 모두 겉면에 탐착을 해서 그런 거죠. 그것도 과한 욕심이죠. 진짜 욕심을 부리려면 우주세계 천차만별을 다 집어먹으려고 해야지 그것이 당연하겠죠. 영원치도 않은 걸 가지고 싸우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고등동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하치않게 생을 버리다니 그건 말도 안 됩니다.

> "법의 부모도 육의 부모도 둘 아니게 한마음으로 은혜를 갚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관하면서 촛불을 켜야!"

아이에게 마음공부를 가르치려면…

문 초파일이 되어서 그런지 젊은 법우들이 절에 나와서 열심히 참여하고 공부해 나가는 것을 보면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보살은 자주 나와서 봉사도 하고 공부도 해 나가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이끌어 줘야 이 좋은 공부를 배우게 해 줄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님, 가르침 주십시오

답 우리가 바쁘게 일을 해도 그것도 행선이다, 내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행선이다. 그것이 참선이 아닌 게 아니다. 행선이다. 서 있으면 입선이다, 누워 있으면 와선이다, 앉아 있으면 좌선이다. 이러니 모두를, 동서남북을 다 한데 합쳐도 그냥 참선입니다. 하다못해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있어도, 물 흘러 내려가는 걸 보고 있어도 참선이에요. 앉아서 하질 않고 섰으니까 입선이지요. 그러니까 모두가 참선 아닌 게 없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애에게 먹으라고 뭐를 주는 것도 참선이에요. 공식이면서 참선이라고요.

이렇게 좋은 공부를 지금 못하시면 어느 때 하시렵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또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도 어려운 겁니다. 또 육체가 없으면 공부 못해요. 그러니 육체가 있을 동안에 해야죠. 그런데 내가 좀 아쉬운 건, 남편이 안 나오는 분들은 남편이 나오게끔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달라져야 남편도 나오게 됩니다. 그건 정한 이치죠. 자식들도 그렇고요. 또 자식들에게 관하는 도리부터 가르치면서 자기가 배운 대로 자꾸 이렇게 이끌어 간다면 어디다가, 공중에다 갖다 세워 놔도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들여서 가르치는 것만 가르치는 걸로 아니 이걸 어떡하면 좋죠?

세 살 먹은 아이가요, '주인공, 낫게 해 줘.'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감기가 들어서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콧물을 줄줄 흘리는 고 세 살배기가 "주인공, 낫게 해. 주인공, 낫게 해." 그러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걔가 그냥 부신 듯 부신 듯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자라서 다섯 살이 됐어요, 지금. 다섯 살이 됐는데요, 엄마가 "아이구, 아파서 죽겠다. 감기가 들어서 죽겠다." 이러면 "흥, 엄마는 아직 멀었어." 그런대요. 그러니 애들 중에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애들이 드문드문 있단 말입니다. 그런 애들이야 아주 여기에 박혀서 이다음에 자라도 그냥 거침없이 해 나갈 거란 말입니다.

어떤 아이는 지금 중학생이 됐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 목 뒤에 혹이 나 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악성이라고 수술을 못한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걱정 걱정을 하는데 그게 몇 해가 흘렀죠. 올해 인제 중학교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중학교를 들어가면서도 아버지 혹 하나 못 없애니 이거 어떡하지?"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형이 인제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한번 해 본다고 하니까 형더러 그러더래요. "우리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운전수가 진짜 나라면 왜 못하겠어? 하여튼 형은 아직도 멀었어." 그러더니 불과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아버지의 혹이 반으로 줄었더란 얘기죠. 그런데 중학생이 또 학교에 갔다 와서는 착 깔고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걱정 없어!" 이러더래요. 그러더니만 그냥 또 한 반달이 되니까 그냥 싹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나니까 걔가 형더러 하는 말이 "뭐는 못하겠어? 형은 아직 멀었어. 취직 못하는 것도 아직 멀어서 그래!"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런 아이들은 진짜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묵사발이 될 일이 생겨도 끄떡없이 하늘을 받치고 나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지혜로운 요량에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지금 이렇게 시급한 학생들을 놔두고도 그런 얘기 한마디 안 해 주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거 뭐 돈이 들으니 못해, 재산이 없어지니 못해, 글쎄. 자손들이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으면 '너의 주인공과 나와 둘이 아닌 까닭에 다 너에게도 불이 켜질 것이다. 그저 이거를 배우고 또 앞으로는 점점 잘 알게 될 것이다.' 하고 관해 줘야 정작 싫다고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뜻이 갑니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한텐 연방 해 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도 자기 엄마 말을 안 들어서 관하는 내용을 밥 먹는 테이블에도, 벽에도 붙여 놓고, 변소 안에도 붙여 놓고 그랬더래요. 그저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해 보자 했던 모양이지요. 그렇게 해 보고 가니까 살면서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엄마더러 그러더래요. "나는 처음에는 '어디 정말 되나 안되나 보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해 주고 가져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시시때때로 그렇게 대치를 하고 보호를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디다." 하고 고맙다고 하더래요. 그랬다는 셈으로 우리가 아무리 싫다 그러더라도 마음으로 관해 주고 벽에 붙여 놓고 한번 해 본다면 그건 진저리나게 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여튼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기에 달린 건데 마음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마음을 제대로만 먹는다면 분란이 날 것도 앞서 대처해서 없애 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법의 부모도 육의 부모도 둘 아니게 한마음으로 은혜를 갚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관하면서 촛불을 켜야!"

대한불교 무량종
입 종 안 내
불교 정법을 수행정진 하면서 본 종단 종지종풍을 지키고 뜻을 같이할 참신한 승려나 법사 행자 입종을 바랍니다.
◆입종구비서류
· 입종신청서(제반서류 총무원 비치)
· 주민등록 등본 1통
· 호 적 초 본 1통
· 승려 증빙서류 (전종단 재적등본 또는 승려증,사찰등록증,사본)
· 이 력 서 1통
· 여권용사진 4매
· 사찰전경사진 (내 외)

대한불교 무량종 총무원 총본산 지리산 칠보정사
•주소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번지
☎ 055)883-7771.7790.7714 / 팩스 883-7796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크신 은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 드리며
2008년은 더욱 크신 기도의보시공덕으로 가정이 늘 번창 하시고 행복 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처음처럼 늘
의지의 열정을 갖고
일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의
행복한 성혼을 이루 십시요.
2008년은
새로운 도약의 해로
정했 습니다.
감사합니다.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휴대폰 : 011)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전통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범패교육원에서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범패 작법(바라춤,나비춤)등에 관심 있는 스님 및 재가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과정
◆고급과정(4개월)
49재 의식 및 천도의식,지장청,시왕도청,상용영반, 관음시식,화엄시식,전시식
◆특강(5개월)
천수바라,사다라니,화의재바라,오공향,유원승, 요잡작업,종사이운,종사영반,점안의식.시다림,예수재등
2.수 업 : 5월 22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1시~5시 (경우에 따라 요일을 변경 할 수 있다.)
3.자 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 별도)
5.강의장소 : 경북교구종무원 설법전
6.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종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1매
7.접 수 처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전화접수가능, 상시모집)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2리 265번지
8.연 락 처 : 053)857-4339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교육원

발 로 해
(특수기능성 두한족열 양말)


발로해가 오리지날 기능성!
유사품이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절수행 최고의 수행도우미!
(법당에서,참선,명상,성지순례,등산,운전,고시수험생)
◉양말 내부의 금강저문양과 도트에서 노폐물,독소,나쁜기운 빼는 특급비밀!
◉신는 순간 발이 따뜻해지며 매끈매끈,보들보들,보송보송 100%보장!
한국언론최초 KBS(생로병사의비밀, VJ특공대, 감성매거진 행복한오후)출연
SBS스페셜(0.2평의 기적)출연 BBS불교방송(무명을 밝히고)출연
동아일보 한겨레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등 기사 다수
특별판매가 : 2만원 (배송은 착불)
주문처 : 서울법당 (02)-456-0035
부산법당 (051)-583-7886
대구법당 (053)-743-0063
인터넷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불자 세상보기

정용길
동국대 정치학 교수

협상의 원칙과 외교의 조건

"정치는 역사의 딸이고, 역사는 지리(地理)의 딸이다"라는 말이 있다. 지정학의 중요성이 잘 표현된 말이다. 다시 말해 어느 나라의 현재 정치는 그 나라의 역사에서 비롯되고, 그 나라의 역사는 그 나라가 놓여 있는 지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시절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주요 인사들을 특사로 파견하였던 일이나, 대통령에 취임한지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스스로 미국, 일본을 순방한 것은 앞에 지적한 현재의 정치, 역사 그리고 지리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

외교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나 조직과의 관계에서 자기나라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국가이익이란 국가안보, 자주성 확보, 경제발전, 국제사회에서의 지위향상 등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미국, 일본 방문도 이러한 국가이익 추구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일로 분쟁의 해결보다는 공동이익의 증진에 더 큰 비중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한 · 미 정상회담을 결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주한미군 3500여명의 추가 감축계획을 백지화하고 현 2만8500명 선으로 유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조건을 최혜국인 NATO와 일본수준으로 격상시켜 줄 것 미 의회에 요청, 한국인의 미국방문 비자면제프로그램 연내 시행 등이다. 이에 비하여 미국의 성과라면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테러와 환경, 인권문제 등 범세계적 문제에 한국이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과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한국의 협력약속 그리고 한국 쇠고기시장개방 등이다. 또한 한국과 미국 모두 관심이 있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군사동맹의 수준을 넘어 21세기 전략동맹을 맺어 글로벌 파트너로 관계를 격상시키고, FTA 연내 비준을 위해 공동노력하며, 방위비 분담증액 대신 분담방식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재확인한 것 등이다.

이제 심각한 문제로 남는 것은 미국이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압박해 온 미사일방어체제(MD)구축,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참여, 방위비분담금 증액, 평택기지조성비용 증액, 아프간 추가파병, 한 · 미 · 일 삼각안보협력 등 6대 안보쟁점사항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쇠고기개방문제와 FTA 국회비준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이것들로 한국이 입는 손실은 위의 6대 안보쟁점사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한국은 주변 강대국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동맹을 맺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손실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미국에게 군사 · 안보상의 역할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다면 동맹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한국보다 월등한 국력을 갖고 있는 독일과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며 그들의 국익을 챙기는 전략을 배울 필요가 있다.

한 · 일 정상회담에서는 과거보다 미래를 중시하여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 일정상은 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 일 과거사 문제 외에 북핵 해법, 한일 FTA를 비롯한 경제협력 확대방안 등 양국간 현안과 북핵, 일본인 납치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 뒤 북 · 일 국교정상화교섭에 들어간다는데 입장을 같이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측이 FTA보다 더 넓은 의미의 경제통합이라고 주장하며 사용하는 용어인 EPA(경제연대제휴협정)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 일 관계에서 한국이 바라는 것은 한 · 일 과거사 문제와 무역역조 그리고 부품산업분야의 기술이전문제 등에 대한 일본 측의 전향적인 자세이다. 또한 일왕(日王) 초청문제도 논란이 예상되는 일이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순방외교를 평가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주변 4개 국가들은 국력에 있어서 한국이 1:1로 상대하기가 힘겨운 강대국들이라는 현실이다. 그에 더하여 또 우리는 현재 분단국이라 외교활동을 펴는데 여러 가지로 불리한 입장이라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협상에서는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특히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약소국이 전적으로 이익만을 취할 수는 없다. 서로 양보하는 것이 있을 때 합의가 이루어지고 선린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협상의 철칙임을 알아야한다.

불자의 눈

부처님 法대로 사는 길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카필라국의 왕자 고타마시타르타가 니련선하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부터 부처님과 그 가르침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그 가르침을 전하면서 승단(좋은 벗들의 모임, Sangha)이 생겼다. 삼보 다시 말해 불법승(佛法僧)이 형성되면서 불교는 종교로서의 형식을 완성했다.

오늘날 불자들은 기본교리를 체계적으로 학습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불교의 정체성을 신행의 골간으로 삼기보다는 많은 방편 중의 하나에 집착하여 편협하게 불교를 이해하는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승단이 부처님 법에 온전하게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불교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매우 왜곡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부처님 법대로'라는 지극히 당연한 모토가 새로운 시대의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조계종이 유교(遺敎)법회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연찬회를 가진 것은 바로 시대적 과제가 된 '부처님 법대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불교의 정체성에 철저히 천착한 관점에서 오늘의 모습을 성찰하고자 한다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일이다. 비겁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끝내 참회조차 하지 못하는 법이다. 오늘날 조계종이 그 몸의 안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중흥조 경허 선사와 만공 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 등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모처럼 형성된 '자기고민'의 분위기라 좀 더 진지하고 철저하게 확산되어 새로운 종단의 틀을 창출해내는 에너지가 되길 기대한다.

연등축제의 가치를 높이자

전국의 도심에 봉축등이 밝았다. 관련행사도 푸짐하게 준비되고 있다. 꽃이 만개하고 푸른 잎이 돋아나 생명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이 지상에 부처님이 오신 뜻을 알리는 맑은 소리들이 가득하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부처님 오시는 소리이고 저녁에 달이 뜨고 별이 눈 깜빡이는 것도 부처님 오시는 소리다.

올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일찍부터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다. 정부가 연등축제를 국내외에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최근 조계종이 연등축제는 일제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놀이임을 분명히 하는 세미나를 개최해 연등축제의 역사적 배경을 밝혔다. 또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이건무 문화재청장에게 연등축제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등축제를 단순한 종교행사가 아닌 우리민족의 축제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움직임은 대단히 신선하다. 우리민족의 문화사에서 차지하는 불교의 비중은 매우 크다. 연등축제도 팔관회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법회와 더불어 민족문화를 형성해 온 중요한 역사다.

문화관광체육부가 올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대외적인 홍보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불교가 하나의 문화로 외국에 언급될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일 것이다. 단순히 관광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과 비전이 포함된 신명나는 오늘의 축제가 홍보되길 기대한다.

"왜 사람을 때리는거야!"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⑥1 마음속에 새긴 회초리

과잉반응

이씨는 어느 날 친구와 이야기하며 길을 걷고 있었다. 둘은 쉴 새 없이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이씨의 말을 듣다가 "맞아. 정말 그래!"하면서 손바닥으로 이씨의 어깨를 탁 쳤다. 세게 친 것은 아니었고 조금 아프다싶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씨는 갑자기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자기도 모르게 "야, 왜 사람을 때리는 거야!"하며 소리 질렀다. 걸음을 멈추고 친구를 노려보았다. 친구는 놀라서 "얘, 내가 언제 때렸니. 왜 그 정도 가지고 그래?"했다. 이씨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다. "뭐, 그 정도라니. 도대체 사람을 뭘로 보고 함부로 때리고 있어. 나는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한지 알기나 해."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씨의 음성이 높아지자 둘이 싸우는 줄 알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끗흘끗 쳐다볼 정도였다. 친구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니, 난 아무 뜻도 없었는데…." 순간 숨을 헉헉거리던 이씨는 '아차, 내가 또 그랬구나' 하고 자각하게 되었다.

맞기 싫어요

어린 시절 이씨의 아버지는 매우 엄하였다. 조금만 잘못이 있으면 회초리로 때렸다. 6남매의 장녀였던 이씨는 초등학교 전부터 동생들을 돌보아야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동생들이 어질러놓거나 울고 있으면 모두 이씨 책임이었다. 변명하거나 반항하려하면 더 맞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참았다. 매일매일 맞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을 정도였다. 이씨는 맞는 게 아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지긋지긋했다. 특히 종아리에 회초리 자국이 남는 날은 치마를 입을 수가 없었다. 학교에서 애들은 "넌 맨날 남자처럼 바지만 입고 다니니" 하고 놀렸다.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어 눈물을 삼켰다.

천만다행인지 중학교 때부터 서울로 올라와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자취를 하게 되어 무척 힘든 생활이었다. 그래도 이씨는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좋았다. 무엇보다 아버지를 안 보게 되고 회초리를 맞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친척들이 "아유, 어린 것이 어떻게 혼자 밥해 먹고 학교에 다니나" 하며 걱정들을 했지만 오로지 매 맞지 않는 것이 좋아 신이 날 정도였다.

"그러면서 어릴 때 맞고 지낸 사실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아니,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이 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기르며 살던 어느 날이었다. 시누이가 와서 집을 둘러보다가 "언니는 참 살림도 잘 하시네요. 어쩌면 이렇게 어울리는 것만 골라서 사다놓았을까" 하며 이씨의 어깨를 탁 쳤다. 그 때까지 칭찬받아 기분이 좋던 이씨는 마음이 돌변하는 것을 느꼈다. 불같은 분노가 올라왔다. 시누이에게 "아가씨! 왜 때리는 거예요!"하면서 무섭게 노려보았다. 시누이는 할 말을 잃고 당황하여 쳐다보았다. "언니, 내가 언제 때렸어요." "그럼 때린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그렇게 맞아야 하나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 시누이가 새파랗게 질려 떠난 뒤에야 이씨는 마음이 좀 진정되는 것 같았다.

생각해 보니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다. 왜 그렇게 과잉반응을 했을까. 사실 시누이가 때린 것이 아닌데, 나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 않은가. 나중에 시누이에게 사과하느라고 진땀을 뺐다. 그런데 그 순간은 분노를 도무지 억제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 그 후로도 간혹 누가 가볍게라도 탁 치는 일이 일어나면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나며 공격적이 되는 것이었다.

마음으로 녹이는 회초리

절에 다니게 된 후 이씨는 차차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고요히 관하는 실천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자기 속에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매를 맞으며 울고 화내는 아이의 마음이 보였다. 사실 어린 자기는 맞기가 싫고 맞아야 된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었던 것이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아버지에게 소리 지르며 반항하고 싶었는데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무섭고 두려워서였다. 어떻게 해볼 힘이 없었다. 그래서 그 분노와 혐오의 감정은 표현되지 못하고 마음 깊이 억눌려 있었다. 어른이 되어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몸을 탁 치면, 회초리로 아프게 탁탁, 맞던 기억이 연상되어 올라오면서 분노가 폭발하게 된 것이다.

"자기 속의 자성중생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이 실감이 나게 되었어요. 아직 어린애로 살던 중생심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모든 아픔과 고통은 오직 근본 자성의 자리에 놓아야만 한다는 법어를 새겨본다. 이씨는 이제 마음속에 새겨진 회초리 자국을 마음으로 녹여가려고 정진하고 있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양 지 국 악 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봉인사 사마타 위빠사나 5월 집중수행

"왜 수행을 해야만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왜 가르치셨는가?"
수행의 목적은 깨달음(열반)을 얻는것이며, 생로병사의 고통인
윤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 일 시 : 1차 : 5월 1일 ~ 5월 10일
2차 : 5월 13일 ~ 5월 22일
3차 : 5월 25일 ~ 6월 3일
(입실 오후 5시, 퇴실 오후 1시까지)

■ 동참금 : 10일, 30만원
(환불은 프로그램 시작 3일전까지 가능)

■ 준비물 : 좌선하기 적합한 편안한 옷, 슬리퍼,
우산, 개인용컵, 개인 세면용품및 필기도구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봉인사 홈페이지(www.bonginsa.net)
접속 후 명상코너 템플스테이 예약게시판 이용 전화 접수합니다.

■ 연락처 : 031)574-5585, 528-5585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릉 2리 304번지
봉 인 사 한 길 정 진 원

설법 연수생 모집

15년의 전통을 지닌 한국설법연수원에서는
"맞춤식 설법 개인지도" 연수생 모집 합니다.

■ 교육목표
◇나의 발견 ◇나의 계발 ◇나의 실현

■ 교육내용
◇ 대인불안 공포증해소, 대담한 성격 배양,
자신감, 열정, 호소력, 화술··· 설법실기
◇ 인사말, 축사, 주례사, 토론, 회의진행법 등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최면(催眠)도 활용합니다.

■ 일시 : 수시접수 · 교육일시는 맞춤식으로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나!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나!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나를 만들자!

한 국 설 법 연 수 원
한 국 인 성 개 발 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청정수에 2~3방울만...

불가 최초 관불 관욕 전용의 물에 타서 쓰는 향탕수 개발!!

관불수향 출시!!



灌佛杉香

거룩한 불탄일을 맞이하여 능인향당에서 세계최초로
개발한 관불수향으로 성스러운 관불의식을
더욱 경건하고 향기롭게 누리십시오.

관불수향(약 20㎖ 약 50회 정도 사용 분량)
가격 : 120,000원

관불수향은 그 재료 자체가 피부보호 기능이 뛰어난 전단과 침향이 주 재료이므로 따로 스킨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피부보습 효과와 아로마 요법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능인향당은...

인연이란 이름으로 다가올 미래의 용화삼회에, 최상의 공양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과 교류, 연구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능인향당은 인체에 가장 해가 적고 순수한 원향을 제조하여 2007년부터 국내에서도 시판하였습니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침향을 원산지인 비나 등급을 그대로 적용하여 공예품인 염주부터 복장공양물의 최고 결정체인 기남 등급까지 16등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료 관련 국제 특허 3종과 불교용품에 관한 국내 특허를 다수 취득하였으며 인도와 캄보디아 등 불교의 성지를 직접 돌며 구한 원자재로 불가의 최고 공양물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관불수향이란

관불, 관욕시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생수에 희석하여 향탕수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한 제품입니다.

사용법

청정수에 1~2방울을 타서 희석하여 사용하되 양은 가감할 수 있습니다.
2방울 정도면 세숫대야 하나 정도를 희석할 수 있는 양으로, 1병으로 약 50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불수향의 재료

불가에서 신성시하는 신목인 5단 향목(침향, 백단, 전단, 자단, 천단)을 주종으로 하여 정향과 들장미 백리향 등 5가지 꽃에서 직접 추출한 향유를 소재로 하였습니다.

지난 3년여에 걸친 신제품 실험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대덕 큰스님들께 우선 이 지면을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관불수향의 주 재료



• 침향 : 세계 3대 향(침향, 사향, 용연향)중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향으로 불가에서 가장 신성시 하는 향이며, 사기를 몰아내고 인체의 기를 북돋아 주는 등의 약성이 뛰어나 동의보감이나 중국의 중약대사전 등에 그 약효가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 전단향 : 자기를 찍어내는 도끼날에조차 향기를 묻힌다고 하는 백단의 뿌리부분으로, 최초로 불상을 조성한 불가에서 가장 신성시 하는 신목 중 하나. 인도가 원산지로 위장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화장품이나 향료의 가장 중요한 원료가 된다.

• 자단향 : 아프리카가 원산지로 불가에서 중요한 공양물로 여기는 향나무. 사기를 몰아내고 간의 열을 내리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나무결이 단단하고 아름다워 고급 조각 재료로도 이름이 높다.



〈관불수향 출시 기념행사 1〉

초파일 이전에 관불수향을 주문하시는 스님께는 능인향당의 대표향인 능인향 1통과 침향선향의 샘플을 보내드립니다.





〈관불수향 출시 기념행사 2〉

능인향의 우수성을 알리고저 전화를 주시는 모든분들께 불가의 원향으로 제조한 고도로 순한 선향 샘플을 무료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제작동기와 제작과정

불가의 가장 중요한 의식 중 하나인 관불, 관욕의식은 전단과 자단 등 불가의 신목을 다려서 향수를 만들어 의식을 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해방 이후 화학향이 발달하고 일제향의 유입으로 톨루엔 등에 값싼 향수를 섞은 향들이 사용되면서 그 편리함 때문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선향을 부러뜨려 사용하는 것으로 성스러워야 할 향탕수를 대신하는 현상이 관행처럼 계속되어 왔습니다.

새벽일찍부터 향물을 끓여 관욕준비를 하시던 예전 노스님들의 그 마음을 이어받아 다시금 불가의 청정한 법도를 되살리고자 하는 불교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능인향당에서는 불가의 성지를 직접 찾아 초기 불가의 전통을 연구하고 확인작업을 하여 불가의 신목을 찾아내었고, 그 특성상 유성(油性)이 많은 불가의 향목들을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수용성화 하면서 피부미용과 아토피 등에도 효험이 있는 백단 등의 향목을 첨가하는 등 7년여의 노력끝에 전단과 침향, 백단 등 불가의 신령스러운 향기가 그대로 보존되면서 간단히 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도 현대적인 관불, 관욕 전용향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능인향당 能仁香堂

본사 :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96번지 02)3663-6777 홈페이지 : www.nihwa.com 직영매장 : 서울 종로구 견지동 95-2 조계사 앞

성 불 조 각 원 www.sungbul.co.kr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패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